KREI

P 2026-04 I 2026. 8.

청년농 영농 진입단계 의사결정 지원체계 설계 연구

박미선 · 엄진영 · 박준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P 2026-04 | 2026. 8. |

청년농 영농 진입단계 의사결정 지원체계 설계 연구

박미선 · 엄진영 · 박준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박미선 | 부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5장 집필
엄진영 | 연구위원 | 제4장 집필
박준홍 | 연구원 | 연구 보조

정책연구보고 P2026-04
청년농 영농 진입단계 의사결정 지원체계 설계 연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6. 8.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세일포커스(주)
I S B N | 979-11-6149-855-3 95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머리말

최근 청년농 육성정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내실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영농진입과 정착을 위한 사전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농이 영농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농지와 자금, 영농기술 등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자신의 영농목표와 여건을 고려하여 어디에서 어떤 품목을 재배할 것인지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독립적인 영농기반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청년농에게 지역과 품목의 선택은 이후 필요한 농지와 자금, 교육 등 구체적인 영농준비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그러나 현재 관련 정보는 여러 기관과 서비스에 분산되어 있고, 청년농 개인의 목표와 여건에 맞추어 지역과 품목을 탐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예비농과 청년농의 정보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통계·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영농진입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원정보와 지표를 검토함으로써, 청년농의 지역·품목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기본구조를 설계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담당자와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에 참여해 주신 예비농 및 청년농업인,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귀중한 의견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연구를 계기로 청년농 지원정책이 영농진입 이후의 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영농진입 이전의 탐색과 의사결정 단계까지 보다 세밀하게 확장되고, 청년농이 자신의 목표와 여건에 부합하는 영농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2026.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 두 봉**

요 약

□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농의 영농진입 의사결정 특성과 정보수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체계의 기본구조와 작동방식을 설계하며,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주요 정보의 구축·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음.

□ 연구 방법

○ 문헌조사를 통해 청년농의 영농진입 및 정착, 귀농·귀촌 의사결정, 데이터 기반 농업 의사결정 지원, 창업준비 및 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영농진입 사전준비의 개념을 설정함.

○ 예비농 200명과 영농진입 5년 이내 청년농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품목 선택과 관련된 영농진입 의사결정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여 의사결정 지원체계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 등의 사전준비와 청년농의 영농목표에 부합하는 사전준비의 맞춤성이 영농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각각 분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함. 이 결과를 통해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청년농과 예비농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영농진입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이용상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설계 방향과 정보지표 및 산출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함.

□ **연구 결과**

○ 2장에서는 청년농의 영농진입 사전준비 범위를 확장하여 살펴보고, 사전준비와 영농성과 간의 관계, 영농목표-사전준비 정합성과 영농성과 간의 관계 및 현행 정보제공체계의 한계를 분석함.

- 이 연구에서는 영농진입 사전준비를 농지·자금·교육 등 실행준비에 한정하지 않고, 자신의 영농목표와 여건에 따라 지역·품목 등 영농의 기본방향을 탐색·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과 이에 따른 실행준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정의함.

- 사전준비와 영농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 영역의 준비 여부는 향후 영농지속 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음.

- 영농목표-사전준비 정합성과 영농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청년농의 영농목표에 부합하는 사전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진 경우, 당초 기대 대비 현재 영농소득 수준 및 현재 영농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남.

- 이를 종합하면 지역·품목에 대한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 등 영농진입 의사결정을 포함하여 준비를 폭넓게 수행하는 것과 개인의 영농목표에 부합하는 준비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모두 중요할 수 있으며, 영농진입 준비에서 '준비의 범위'와 '준비의 맞춤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한편 현재 영농진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개별 정보가 여러 기관과 서비스에 분산되어 있고 청년농의 의사결정에 직접 활

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연계·가공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조건에 맞게 정보를 비교·종합하여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예비농의 67.0%가 영농 관련 정보를 비교·종합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5.5%는 관련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자신의 자본, 노동력, 지역, 선호 등의 조건에 맞게 적용하거나 선택하기 어렵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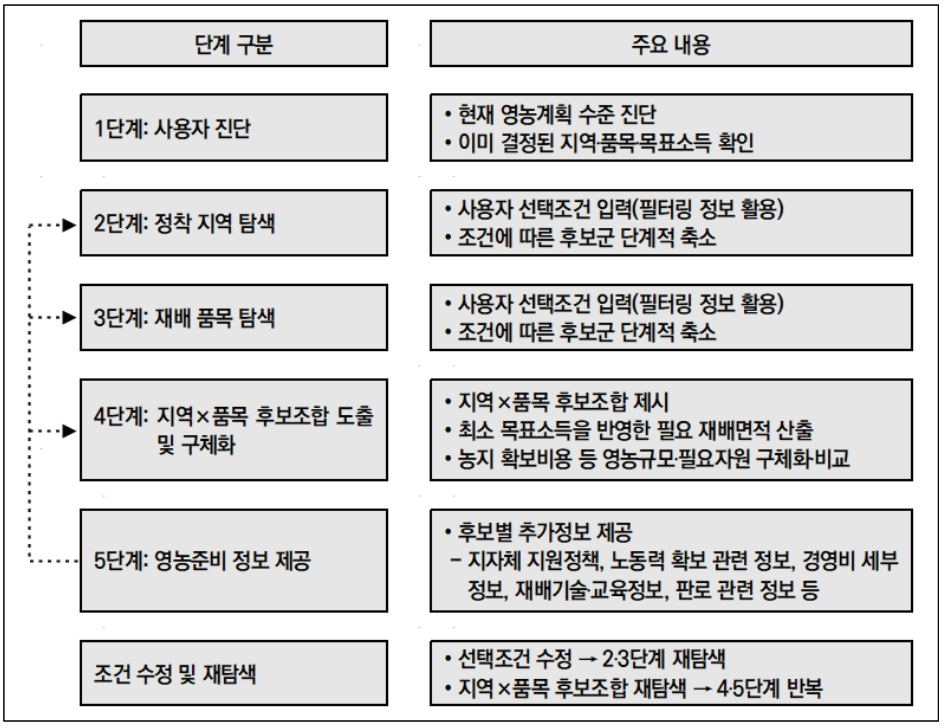
○ 3장에서는 예비농과 청년농의 영농진입 의사결정 특성과 정보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농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의 기본 구조를 설계함.

- 설문조사 결과, 지역과 품목 선택 시 단일 요인보다는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하며, 청년농 개인별로 고려하는 요인의 조합과 각 요인에 부여하는 중요도가 다양하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에서 청년농이 자신의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고려요인과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탐색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설계함.
- 지역 및 품목 선택을 위한 지원정보는 필터링 정보, 맞춤형 정보, 향후 구축 필요정보로 구분함. 지역 필터링 정보는 농지 구입·임차 가능성, 주거 확보 가능성, 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으로, 품목 필터링 정보는 기대수익성,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성, 노동 투입 특성으로 구성함. 지자체 지원정책, 경영비 세부정보, 재배기술 및 교육정보, 노동력 확보 가능성, 판로 확보 용이성 등은 후보조합 도출 이후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로 구성함. 또한, 청년농의 정보수요가 높으나 현재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정보가 부재한 시설 구축비용을 향후 구축 필요정보로 구성함.

-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① 사용자 진단 → ② 정착 지역 탐색 → ③ 재배 품목 탐색 → ④ 지역×품목 후보조합 도출 및 구체화 → ⑤ (맞춤형) 영농준비 정보 제공의 5단계로 구성함.

〈그림 1〉 청년농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의 작동원리



자료: 저자 작성.

○ 4장에서는 3장에서 설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지역×품목 기반 DB와 지역 및 품목 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지표를 시범 구축함.

-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품목이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품목 기반 DB를 구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 및 품목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기본구조를 마련함.
- 지역 선택 지원정보는 농지 구입 및 임차 가능성, 주거 확보 가능성, 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구축함. 농지 구입 및 임차 가능성은 읍면동별 농지 매매·임대 가격과 물량, 주거 확보 가능성은 읍면동별 주택 매매·전세·월세 가격과 거래건수, 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은 고속도로 IC, KTX역 및 생활서비스 중심지역까지의 차량 이동시간을 지표로 활용함.
- 품목 선택 지원정보는 기대수익성,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성, 노동 투입 특성을 중심으로 구축함. 기대수익성은 품목별 10a당 농업소득, 소득 안정성은 최근 3년간 10a당 농업소득 중앙값의 변동계수(CV), 노동투입 특성은 10a당 월평균 노동투입시간과 외부노동 의존도를 지표로 활용함.
- 청년농은 농지 확보 방식과 유형, 농지 확보를 위한 최대 지불가능 가격, 최소 목표 농업소득, 허용 가능한 농업소득 변동 수준 등 각 지원정보의 세부조건을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정보체계는 입력된 조건과 지역·품목별 정보를 비교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품목 후보조합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함.

- 후보조합이 도출된 이후에는 지자체 지원정책, 노동력 확보 관련 정보, 경영비 세부정보, 재배기술 및 교육정보,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하여 실제 영농진입 가능성과 후속 준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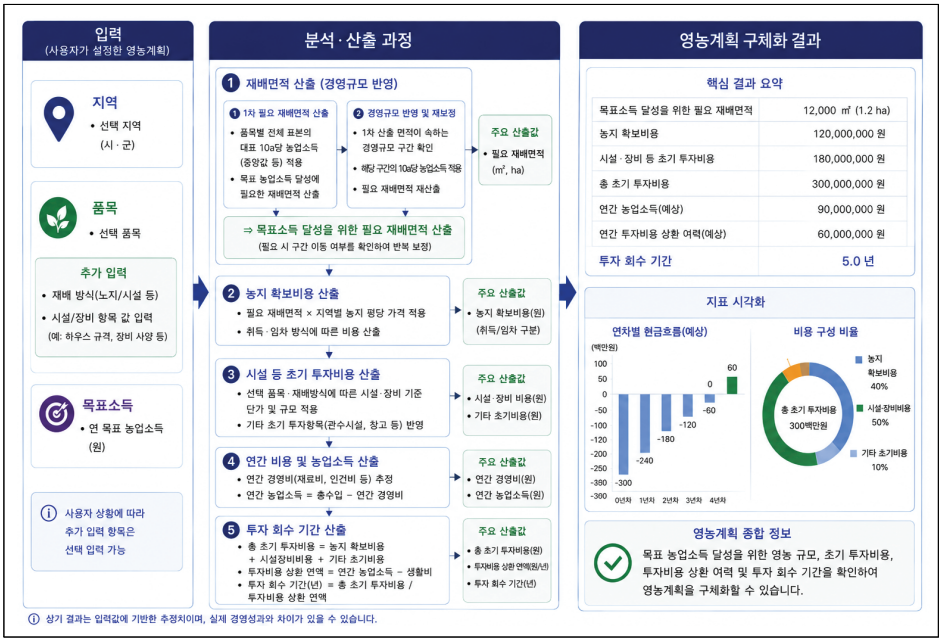
○ 5장에서는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과제와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함.

-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할 운영주체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통계 및 정보를 안정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 실제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지역×품목 DB는 농림어업총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보다 최신의 재배정보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포괄성과 최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청년농 개인별로 지역·품목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정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보지표와 산출방식을 지속적으로 검증·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료별 생산·갱신주기를 고려한 갱신체계와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공통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산물소득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의 조사품목과 품목별 표본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요 품목과 재배방식을 중심으로 조사범위와 표본 규모를 확대하고, 스마트팜 등 시설 구축비용과 같이 정보수요가

높으나 관련 자료가 부족한 분야는 새로운 통계·정보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실제 활용 과정에서는 청년농의 의사결정 목적과 영농계획의 구체화 수준에 따라 지역 선택형, 품목 선택형, 목표소득 역산형, 자금·농지 제약형 등으로 기능을 모듈화할 수 있음. 또한 지역·품목·목표소득 등이 이미 구체화된 경우에는 필요한 재배면적과 농지 확보비용 등을 산출하여 영농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영농계획 검토형 모듈로 활용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청년농의 진입 당시 조건과 실제 지역·품목 선택, 이후 경영 및 정착성과 등에 관한 자료가 축적될 경우, 개인의 조건에 적합한 영농대안과 예상성과를 제시하는 분석·예측형 의사결정 지원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최근 AI 활용의 확산과 행정·산업 전반의 데이터화, 데이터 간 연계·활용 확대 등으로 정보 활용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구축·가공·갱신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리 부담을 낮추어,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의 실제 구축·운영 가능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데이터 축적에 기반한 분석·예측형 의사결정 지원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2〉 영농계획 검토형 모듈 개념도(예시)



자료: OpenAI(2026) 활용하여 저자 작성.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용어 정의 및 연구 범위 ····· 7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8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20

제2장 청년농의 영농진입 사전준비와 의사결정 정보지원의 필요성

1. 영농진입 사전준비의 구성과 범위 ····· 27
2. 영농진입 사전준비의 범위와 영농성과의 관계 ····· 31
3. 영농목표-사전준비 정합성과 영농성과의 관계 ····· 39
4. 영농진입 단계의 정보제공 현황과 한계 ····· 48
5. 소결 ····· 56

제3장 청년농 영농진입 특성을 반영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설계

1. 예비농·청년농 영농진입 의사결정 특성 ····· 59
2. 지역 및 품목 선택을 위한 지원정보의 구성 ····· 71
3. 청년농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체계 설계(안) ····· 82

제4장 청년농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1. 정보지표 구축의 기본방향 ····· 95
2. 지역-품목 연계 기반 DB 구축 ····· 96
3. 지역 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지표 구축 ····· 101
4. 품목 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지표 구축 ····· 117
5. 지역-품목 후보조합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 ····· 132

제5장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실용화를 위한 과제 및 활용방안

1.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실용화를 위한 과제 ····· 137
2.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49

부록

1. 예비농·청년농 영농 진입단계 의사결정 구조와 정보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 155
2. 사전준비 유형과 영농성과 간의 분석결과 ····· 159
3. 영농목표-사전준비 정합성과 영농성과 간의 분석결과 ····· 165

참고문헌 ····· 169

표 차례

제1장

〈표 1-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규모 ····· 2
〈표 1-2〉 사용자 입력 정보, 연계 데이터 및 시스템 제공 정보 ····· 15
〈표 1-3〉 면담조사 내역 ····· 24

제2장

〈표 2-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영농진입 특성 ····· 28
〈표 2-2〉 청년농 영농진입 관련 사전준비 내용 및 준비 정도 ····· 32
〈표 2-3〉 영농진입 사전준비 구성요소와 설문조사 항목의 연계 ····· 34
〈표 2-4〉 사전준비 범위에 따른 유형 구분 ····· 35
〈표 2-5〉 영농진입 사전준비 유형과 영농성과의 관계 ····· 38
〈표 2-6〉 청년농의 영농목표 ····· 40
〈표 2-7〉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 및 내용·질 정합성 산출 예시 ····· 45
〈표 2-8〉 영농목표-사전준비 정합성과 영농성과의 관계 ····· 48
〈표 2-9〉 청년농 영농진입 관련 주요 정보 및 자료 현황 ····· 50
〈표 2-10〉 예비농의 영농진입 의사결정 정보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 51
〈표 2-11〉 농산물소득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표본 현황 ····· 54

제3장

〈표 3-1〉 예비농·청년농 지역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 ····· 60
〈표 3-2〉 예비농·청년농 지역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 선택 개수 ····· 61
〈표 3-3〉 예비농·청년농이 지역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의 조합과 빈도 ·· 62

〈표 3-4〉 예비농·청년농 지역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 중 상위 선택요인의 중요도 분포 ····· 63
〈표 3-5〉 예비농·청년농 품목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 ····· 64
〈표 3-6〉 예비농·청년농 품목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 선택 개수 ····· 65
〈표 3-7〉 예비농·청년농이 품목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의 조합과 빈도 ·· 66
〈표 3-8〉 예비농·청년농 품목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 중 상위 선택요인의 중요도 분포 ····· 67
〈표 3-9〉 정착지역 특성별 영농 초기 자금 규모 및 농지 규모 ····· 69
〈표 3-10〉 영농형태별 영농 초기 자금 규모 및 농지 규모 ····· 70
〈표 3-11〉 시설 구축비용 표준화의 제약 요인 ····· 79
〈표 3-12〉 지역 및 품목 선택 지원정보의 최종 구성 ····· 81

제4장

〈표 4-1〉 지역-품목 연계 DB의 행정구역별 구축 범위 ····· 101
〈표 4-2〉 농지 구입 및 임차 가능성 구성 지표 ····· 102
〈표 4-3〉 주택 확보 가능성 구성 지표 ····· 108
〈표 4-4〉 주택 유형 및 거래 유형별 실거래정보 확인 읍면동 수 ····· 110
〈표 4-5〉 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구성 지표 ····· 114
〈표 4-6〉 지역 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지표 구축 및 시스템 적용 방식 ····· 116
〈표 4-7〉 농업소득 산출을 위한 기준통계 품목 현황(총 56개 품목) ····· 119
〈표 4-8〉 농산물소득조사 품목별 10a당 농업소득 DB 구축 결과 ····· 121
〈표 4-9〉 농산물생산비조사 품목별 10a당 농업소득 DB 구축 결과 ····· 122
〈표 4-10〉 품목별 농업소득 변동성 ····· 126
〈표 4-11〉 품목별 월평균 노동투입시간 DB 시범 구축 결과 ····· 130

〈표 4-12〉 품목별 외부노동 의존도 DB 시범 구축 결과 ····· 130
〈표 4-13〉 품목 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지표 구축 및 시스템 적용 방식 ····· 131
〈표 4-14〉 농산물소득조사 생산비 세부 항목 ····· 135

제5장

〈표 5-1〉 지역-품목 연계 DB의 행정구역별 구축 범위(표 4-1) ····· 139
〈표 5-2〉 농산물소득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표본 현황(표 2-11) ····· 144

부록

〈부표 1〉 설문조사 대상자 기초 특성 ····· 158
〈부표 2〉 사전준비 유형과 영농성과 분석에 활용한 변수의 기초통계 ····· 159
〈부표 3〉 사전준비 유형과 영농성과 간의 분석결과 ····· 161
〈부표 4〉 사전준비 영역별 준비 여부와 영농성과 간의 분석결과 ····· 163
〈부표 5〉 영농목표-사전준비 정합성 변수의 기초통계 ····· 165
〈부표 6〉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 정합성과 영농성과 간의 분석결과 ····· 165
〈부표 7〉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질 정합성과 영농성과 간의 분석결과 ···· 167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귀농·귀촌지원 통합시스템(가칭) 개념도 ····· 14
〈그림 1-2〉 청년 창업자 창업과정 단계화 ····· 18

제2장

〈그림 2-1〉 연구에서 설정한 영농진입 사전준비의 범위 ····· 31
〈그림 2-2〉 영농진입 목표와 사전준비 내용의 연계 ····· 41

제3장

〈그림 3-1〉 청년농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의 작동원리 ··· 88
〈그림 3-2〉 의사결정 지원체계 화면 구성 예시: 1단계 ····· 89
〈그림 3-3〉 의사결정 지원체계 화면 구성 예시: 2단계 ····· 90
〈그림 3-4〉 의사결정 지원체계 화면 구성 예시: 3단계 ····· 91
〈그림 3-5〉 의사결정 지원체계 화면 구성 예시: 4단계 ····· 92
〈그림 3-6〉 의사결정 지원체계 화면 구성 예시: 5단계 ····· 93

제4장

〈그림 4-1〉 지역×품목 기반 정보 DB 연계 구조 ····· 97
〈그림 4-2〉 농지은행 농지구하기: 충청남도 청양군 검색 결과 ····· 105

제5장

〈그림 5-1〉 영농계획 검토형 모듈 개념도(예시) ····· 150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1.1. 청년농 육성정책 질적 제고를 위한 사전준비 강화 움직임

○ 농업 종사 인력의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청년농 육성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되어 왔음.

- 정부는 2017년 '청년창업농 육성대책'과 2023년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농의 신규 진입을 확대하고, '준비-진입·정착-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음.

- 2017년 대책에서는 2022년까지 청년농 1만 명 육성을, 2023년 기본계획

에서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청년농의 양적 확대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함.

- 이와 함께 영농정착지원금, 정책자금, 농지, 교육 등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영농 진입과 초기 정착을 지원해 왔음.

❍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청년농의 신규 진입 규모도 지속해서 확대되어 왔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2018~2025년 동안 총 22,600명이 선발되었으며, 연간 선발 규모도 2018년 1,600명에서 2024년 이후 5,000명으로 확대됨.

〈표 1-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규모

단위: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600	1,600	1,600	1,800	2,000	4,000	5,000	5,000	22,6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 그러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참여자의 영농 이탈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년농 정책의 초점을 신규 진입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진입한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지속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됨.[1)]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청년농 육성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은 크게 ① 실제 영농진입 이전에 충분한 교육·경험·탐색 등을 거치도록 하는 사전준비 기능 강화, ② 양적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대상의 선발·육성 기능을 강화하는 질적 정예화, ③ 농지·자금·기술·주거·판로 등 기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진입·정착 이후 지원 강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서울 Pn(2025. 10. 2.),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빨간불'… 이탈률 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한국농어민신문(2025. 9. 19.), "단순 자금지원, 숫자 늘리기보다 질적 정예화·내실화에 중점"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비농업계 학교 출신 영농 미개시 예비농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예비농업인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영농진입 이전 단계의 사전준비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2)]

- 이 사업은 실제 영농을 개시하지 않은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과 현장·품목 중심 영농교육을 제공하여 창농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영농진입 이전의 충분한 사전준비는 실제 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영농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한 선행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함.

1.1.2. 지역·품목 선택의 중요성과 영농진입 사전준비 범위 확대 필요

❍ ‘지역’과 ‘품목’ 선택은 영농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청년농의 영농 성과와 안정적인 정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임.

- 품목에 따라 기대소득과 소득의 안정성 등이 달라지며, 지역에 따라서도 생활·정주 여건 및 지역사회 관계 등이 달라지기 때문임.
- 선행연구에서는 청년농의 영농 정착과 지속 여부가 농업소득 등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영농만족도, 지역사회 관계 및 정착여건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남(박미선 외, 2024; 안다섬 외, 2022; 마상진·김남훈, 2019).

❍ 최근 청년농의 영농진입 형태를 보면 기존 영농기반을 그대로 승계하기보다 별도의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진입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품

2)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65호, “2026년 예비농업인 역량강화(멘토링·교육) 사업 지원자 모집” 참조.

목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중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받은 승계농은 16.7%인 반면, 부모의 영농기반 없이 새롭게 기반을 마련한 신규 창농은 36.0%, 부모의 영농기반이 있음에도 별도의 기반을 마련한 별도 창농은 47.3%로 나타남(강동우 외, 2025).
- 신규·별도 창농 형태로 진입하는 청년농은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영농기반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자신의 목표와 여건에 따라 지역·품목·농지·영농방식 등 영농의 핵심 요소들을 스스로 탐색하고 구체화해야 함.

❍ 지역과 품목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 자체로 중요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이후 필요한 농지·자금·교육 등 후속 영농준비의 내용과 수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선행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함.

- 예를 들어 동일한 목표소득을 설정하더라도 선택한 품목에 따라 필요한 영농규모와 경영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선택한 지역에 따라 농지 확보 가능성과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농지·자금·교육 등 후속 준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자신의 목표와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과 품목을 탐색·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영농진입 단계의 사전준비 범위 역시 실제 영농을 실행하기 위한 자원 확보 및 교육·훈련에 한정하지 않고, 이에 선행하는 탐색과 의사결정 과정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창농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창업에서도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사업기회를 탐색·평가하고 상권을 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한 사전준비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음(김양기, 2024; 이지안·안영식, 2018).

- 따라서 영농진입 단계의 사전준비를 ① 자신의 영농목표와 여건 점검 → ② 지역·품목 등 영농 기본방향의 탐색·의사결정 → ③ 결정된 영농방향에 부합하는 농지·자금·교육 등 후속 실행준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1.1.3. 지역×품목 연계 기반의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청년농이 자신의 목표와 여건에 따라 지역과 품목을 합리적으로 탐색·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함.

○ 현재 농업 분야에는 품목별 소득, 농지 매매 및 임대정보, 작물별 토양적성도, 지역별 지원정책, 주거 및 정착 여건 등 지역과 품목의 선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구축·제공되고 있음. 또한 정보의 분산·파편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그린대로, 탄탄대로, 농업ON 등 여러 플랫폼에서 영농진입 및 정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개별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것, 분산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를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연계·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관련 정보는 특정 지역이나 품목에 대한 현황과 통계 등을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형태가 많아, 청년농이 자신의 목표와 여건을 적용하여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고 후보 간 차이를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청년농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개별 데이터 자체라기보다, 자신의 조건을 고려할 때 '어떤 지역과 품목이 가능한가', '후보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선택한 대안을 실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농지와 자금이 필요한가'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보임.

❍ 따라서 영농진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보를 단순히 집적하여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농이 실제로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개별 데이터를 연계·가공하여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품목별 10a당 농업소득이라는 개별 정보는 청년농이 설정한 목표소득과 연계함으로써 목표소득 달성에 필요한 영농규모를 판단하는 정보로 전환할 수 있음.
- 이를 다시 지역별 농지가격 및 농지 확보 여건과 연계하면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를 구체화할 수 있음.
- 이처럼 동일한 데이터라도 사용자의 목표·여건 및 다른 데이터와의 관계 속에서 연계·가공될 때 실제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특히 실제 영농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품목을 경영하는 '지역×품목'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역과 품목에 관한 정보를 각각 독립적으로 제공하기보다 상호 연계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농의 영농진입 의사결정 특성과 정보수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체계의 기본구조와 작동방식을 설계하며,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주요 정보의 구축·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음.

❍ 이를 통해 향후 청년농이 영농진입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탐색과 비교를 통해 지역과 품목을 구체화하고, 그 결정에 부합하는 후속 준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제 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활용을 통해 영농진입 과정의 시행착오와 실패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용어 정의 및 연구 범위

❍ 영농 진입단계

- 이 연구에서 '영농 진입단계'는 영농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본격적인 영농활동을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이 기간에 청년농이 자신의 영농목표와 여건을 파악하고 지역·품목 등 영농의 기본방향을 탐색·비교하여 구체화하는 의사결정 과정과 결정된 영농계획에 따라 농지·자금·교육 등 실제 영농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실행준비 과정이 모두 포함됨.

❍ 의사결정 지원체계

- 이 연구에서 '의사결정 지원체계'는 청년농이 자신의 영농목표와 여건에 따라 지역과 품목을 탐색·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체계를 의미함.

❍ 공간적 범위

- 이 연구는 9개 도의 192개 시군구를 기본적인 자료 구축 범위로 설정함.
- 지역 관련 정보는 시군구 단위의 구축을 기본으로 하되, 원자료를 활용하

여 보다 세분화된 공간단위의 정보 구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3,544개 읍면동까지 자료를 구축함.

- 지역 간 자료 연계 및 행정구역 식별에는 법정동 코드를 활용하였으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법정동 코드를 적용함.

○ 품목의 범위

- 이 연구는 경종 및 시설재배 품목을 중심으로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를 구축하며, 축산 분야는 연구 범위에서 제외함.
- 축산 분야는 「축산법」에 따른 허가 요건, 가축사육 제한에 따른 입지 규제,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 비용 수반 등 경종 농업과는 다른 특수성과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영농 진입의 보편성과 정보 가용성을 고려해 축산 분야를 연구 범위에서 제외함.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1. 선행연구 검토

3.1.1. 청년농에 관한 연구

○ 청년농에 관한 연구는 크게 1) 청년농의 영농 특성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지원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와 2) 청년농의 영농정착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음.

❍ 청년농의 영농 특성과 정책 수요에 관한 연구에서는 청년농의 영농기반과 진입여건, 정책 이용실태 및 수요 등을 분석하고, 청년농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단계별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함.

- 배균기 외(2021)는 전라북도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영농진입 준비과정과 영농·정착 실태, 정책 평가 및 수요를 조사함. 조사 결과 창업농·후계농, 승계농·비승계농 등에 따라 영농기반과 정책수요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지원대상별 맞춤형 정책 재설계를 제안함.

- 석다솜 외(2022)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영농현황, 영농정착 단계별 장애요인, 지원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함. 영농 초기에는 경영자금 확보, 농장경영 단계에서는 시설투자 자본 부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창업농과 후계농을 구분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자금 상환기간 조정, 농지 임대·취득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함. 특히 기존 농지은행이 청년농의 실제 농지확보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지역 내 임대·매매 물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농지 정보·거래지원 플랫폼 기능 강화를 제시함.

- 김진진·이소영(2022)은 청년농을 대상으로 주요 육성지원사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기존 지원제도를 평가함. 분석 결과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사업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의 지속·확대를 제안함. 또한 기존 지원이 자금·농지·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장기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택·문화·복지까지 지원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함.

- 이향미·김종하(2024)는 전남 무안군 청년농을 대상으로 영농 및 지역생활 여건을 조사하고, 경작면적, 영농경력, 농가소득, 영농형태, 스마트팜 수요 등을 이용하여 청년농을 세 유형으로 구분함. 분석 결과 기존의 승계농·창

업농이라는 단순 구분만으로는 청년농의 다양한 영농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유형별 영농기반과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을 제시함. 또한 전국 단위의 일률적 정책보다 시·군 단위의 영농·생활여건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청년농 정책 발굴이 필요함을 강조함.

❍ 청년농의 영농정착 및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영농정착의향, 영농만족도, 이농의향 등을 주요 성과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경제적·사회적 요인을 분석해 왔음.

- 이소영 외(2022)는 청년농의 영농정착 영향요인을 개인적·경제적·사회적·정책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영농정착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분석 결과 연령과 교육수준, 농업소득만으로 생활 가능 여부는 영농정착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승계농 여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조합 가입 및 청년농 정책 활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음. 특히 농업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 영농정착의향이 있을 확률이 11.8%p 높게 나타나, 안정적인 농업소득 확보가 청년농의 지속적인 영농정착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제시함.

- 안다섬 외(2022)는 청년농의 스트레스를 가족·사회·경제적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영농만족과 이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분석 결과 가족 및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농의향이 높아지고, 영농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농만족도가 높을수록 이농의향은 낮게 나타남. 또한 부모 동거, 지역사회 활동, 농가소득 등에 따라 영농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 청년농의 정착에는 경제적 여건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지역사회 관계 등 사회적 여건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줌.

- 최정신 외(2020)는 2030세대 청년농의 농촌 유입유형과 정착과정을 분석하고, 농촌생활과 지역사회 관계, 정주환경 및 농업경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특히 청년층의 농촌 유입경로에 따른 정착과정의 차이와 지

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 및 역할을 분석하고,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입유형별 지원, 지역사회 관계 형성, 정주환경 개선, 지역농업 리더 육성 등을 연계한 지원 필요성을 제시함.

- 허태웅 외(2025)는 45세 이하 청년농 5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면접을 실시하여 영농진입 환경, 정보 습득과 교육, 농지 취득 및 운영, 생활비용, 영농자금 조달, 영농진입 초기 애로사항 등을 분석함. 분석 결과 연고지 여부와 승계 여부 등 진입환경뿐 아니라 농지확보와 자금조달, 정보·교육 여건 등이 정착과정의 주요 애로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청년농의 진입여건에 따른 맞춤형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함. 특히 농지가격과 시설투자비 상승을 고려한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농지은행을 활용한 임대·구입 활성화, 실수요 중심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안함.

3.1.2. 귀농·귀촌에 관한 연구

❍ 귀농·귀촌에 관한 연구는 크게 1) 귀농·귀촌 의향 및 동기와 그 결정요인을 규명한 연구와 2) 귀농·귀촌 이후의 정착실태 및 성과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음.

❍ 귀농·귀촌 의향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농촌에 대한 인식과 경험, 경제적 여건 및 생애주기 등 다양한 요인이 귀농·귀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함.

- 김유하 외(2023)는 기존 연구가 소득, 농촌 경험 등 개별 요인이 귀농·귀촌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귀농·귀촌 의향이 사회경제적 조건과 심리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 분석 결과, 소득·거주형태·농촌과의 관계 등 객관적 요인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스트레스, 농촌에 대한 심리적

거리 등 주관적 요인을 매개하여 귀농·귀촌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귀농·귀촌 의사결정은 단일한 조건보다는 개인의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됨을 제시함.

- 장형진·마강래(2026)는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여건과 귀농·귀촌 의향 간의 관계를 분석함. 소득을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사적 이전소득 등으로 세분화하고, 주택·비주택부동산·금융자산과 부채, 생활비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함. 분석 결과, 동일한 경제적 조건이라도 1·2차 베이비부머 등 세대와 생애주기, 수도권 자가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귀농·귀촌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함.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기보다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함.

❍ 귀농·귀촌 이후의 정착 및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농촌생활 만족도, 귀농·귀촌 성취, 지속적 정착 등을 주요 성과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요인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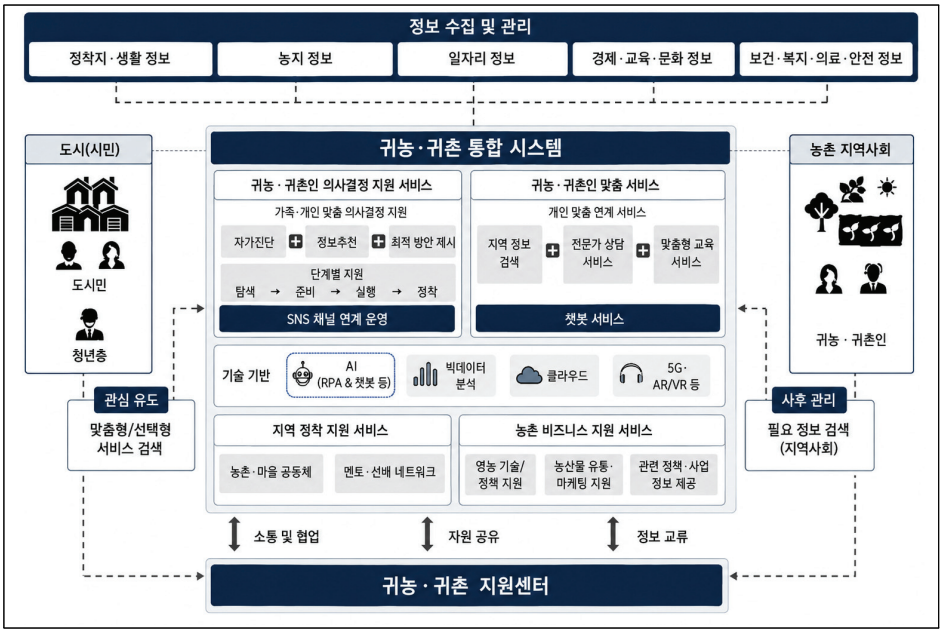
- 마상진 외(2018)는 귀농·귀촌인을 장기간 추적하여 귀농·귀촌 동기와 장소 선택, 준비 및 이주과정, 정착기반 확보와 정착 이후의 경제·사회활동 및 성취를 종합적으로 분석함. 분석 결과 귀농·귀촌 이후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귀농·귀촌 동기와 지역주민과의 갈등, 지역사회 참여 및 동화 정도 등이 정착성과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역귀농·귀촌 사례에서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농지 확보 및 영농여건, 생활여건 등이 재이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김경호·정성호(2018)는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 만족도를 정착성과의 지표로 설정하고,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민관계 및 지역사회 활동이 생활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 가운데 월소득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민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민관계 및 지역사회 관련 변수를 추가할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증가하여, 안정적인 정착에는 경제적 기반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및 참여가 중요함을 제시함.

❍ 한편, 이원석 외(2021)는 귀농·귀촌 희망자의 이주지역 선택에 필요한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선택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의사결정 지원방안을 제시함.

- 이원석 외(2021)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이주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AHP 분석을 통해 이주지역 선택 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함.
- 분석 결과 주택 및 토지가격, 대도시 접근성 및 교통, 주거정보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정요인을 향후 귀농·귀촌 희망자의 지역선택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에 반영할 필요성을 제시함.
-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민간 등의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함.

〈그림 1-1〉 귀농·귀촌지원 통합시스템(가칭) 개념도



자료: 이원석 외(2021: 89)의 〈그림 9〉를 OpenAI(2026) 활용하여 재구성.

3.1.3. 데이터 기반 농업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연구

○ 농업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작물의 생육관리, 환경제어 및 생산성 향상 등 영농 이후의 생산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영농진입 이전 단계에서 지역·품목 등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다만 관련 사례로 귀농인의 시설재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김국종·조용윤(2022)의 연구가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귀어·귀촌 희망자의 정착지역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의 특허출원 사례가 존재함.

○ 김국종·조용윤(2022)은 귀농인의 시설재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의사결정 지원 인터페이스를 설계함.

- 이 연구는 최근 귀농 희망자 중에는 시설재배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데 반해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 구체적으로,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재배지역, 재배작목 및 재배형태 등을 입력·선택하면, 해당 입력정보에 따라 토양 및 작물 적합성, 토지가격, 작목별 예상소득 및 경영비, 시설 구축비 등 영농 초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산출됨.
- 이를 통해 시설재배를 희망하는 귀농인이 원하는 대상지에서 시설재배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초기 의사결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시설재배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표 1-2〉 사용자 입력 정보, 연계 데이터 및 시스템 제공 정보

구분	사용자 입력	시스템이 연계·활용하는 데이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재배지역	• 지번을 포함한 상세주소	• 부동산 공시가격 정보(공시지가·지목) • 토양정보시스템의 작물별 토양적성도	• 선택 지역·작목의 토양적합도 시각화 • 재배지역·지목·면적·공시지가
재배작목	• 재배작목 검색 및 선택	•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 추계자료 • 농사로 농업기술자료	• 작목별 영농기술길잡이·영농기술 동영상 • 선택 작목의 1작기 기준 예상소득·경영비
재배형태	• 노지/시설재배 선택 • 희망면적 입력 • 시설재배 시 온실유형 선택	• 표준온실 공사비 및 표준온실 설계도(한국농업시설협회 제공)	• 재배면적 • 표준온실 설계도 • 예상 시설 구축비

자료: 김국종·조용윤(2022), "작물 시설재배 초기 의사결정 지원 인터페이스 설계",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8(2): 73, 〈표 1〉 발췌·번역함.

○ 학술연구는 아니지만, 데이터에 기반하여 어촌·농촌 진입자의 정착지역 선택을 지원하려는 사례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귀어·귀촌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및 방법' 특허출원 사례[3]가 있음.

3)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귀어·귀촌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및 방법",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603888호.

- 해당 시스템은 통계청 DB와 GIS 자료를 활용하여 마을현황, 소득, 주거, 환경 및 행정·복지 등 지역 특성을 구축하고, 요인분석·주성분분석·군집분석 등을 통해 지역을 유형화한 후 귀어·귀촌 희망자의 요구조건과 전문가 가중치를 반영하여 적합한 후보 지역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설계됨.

3.1.4. 창업 과정 및 창업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창업 관련 연구에서는 창업준비를 자금 등 사업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기회를 탐색·평가하고 업종 및 사업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까지 포함하여 접근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사전준비와 의사결정 과정이 이후 사업의 지속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음.

❍ 김남중·권세용(2025)은 창업 준비활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창업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사업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이 연구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장조사, 동종업종 종사 경험, 창업교육 등을 창업 준비활동에 포함하고, 창업과정에서 업종 선택·행정절차·경영방법 등 다양한 의사결정과 준비가 요구된다고 봄.

- 분석 결과 창업 준비활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사업 지속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업종 선택·행정절차·경영방법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사업 지속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연구결과에서 업종 선택의 간접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저자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시장·상권·경쟁구조 분석과 업종의 성장가능성 및 개인-업종 적합성 등을 고려한 업종 선택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또한 창업 준비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창업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탐색과 학습이 잠재적인 위험 및 장애요인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김양기(2024)는 자영업자의 창업준비과정을 ① 사업계획·기회 파악, ② 전문가 상담, ③ 자본금 확보 능력 및 자기자본 비율로 구분하고, 이러한 창업준비가 재무적·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이 연구는 창업준비를 자금 등 실행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분석과 사업기회 파악,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의 기본방향을 탐색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접근함.
- 분석 결과 창업준비과정은 재무적·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사업계획·기회 파악이 두 성과 모두에 가장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토대로 창업자가 창업준비 단계부터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전문가 상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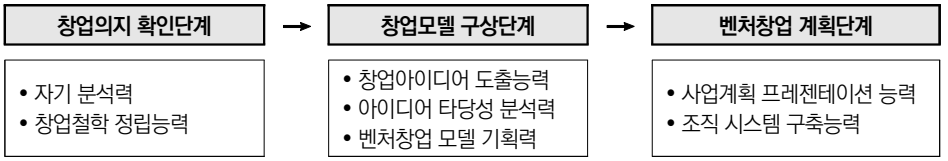
❍ 이지안·안영식(2018)은 청년 창업자 및 예비 청년 창업자가 창업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창업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창업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함.

- 문헌연구, 전문가 FGI 및 검증, 창업자 설문과 요인분석 등을 거쳐 창업과정을 '창업의지 확인 → 창업모델 구상 → 벤처창업 계획'의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7개 창업역량을 제시함.
- 창업의지 확인단계에서는 자기분석력과 창업철학 정립능력, 창업모델 구상단계에서는 창업아이디어 도출 능력,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력 및 벤처창

업 모델 기획력, 벤처창업 계획단계에서는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능력과 조직 시스템 구축 능력을 제시함.

- 이 연구는 창업을 곧바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보기보다, 창업자의 자기분석을 출발점으로 사업아이디어를 탐색·평가하고 사업모델을 구체화한 이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적 과정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림 1-2〉 청년 창업자 창업과정 단계화



자료: 이지안·안영식(2018),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역량 측정도구 개발", 벤처창업연구, 13(4): 197-209, 〈표 11〉을 일부 발췌함.

○ 이상의 연구들은 창업을 사업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행위에 한정하기보다, 자신의 여건과 사업기회를 탐색·평가하고 사업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한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함.

- 특히 사업계획 수립, 시장 및 사업기회 탐색, 업종 선택 등 사업 실행에 선행하는 정보탐색과 의사결정이 창업준비의 중요한 일부이며, 이러한 준비가 이후 경영성과 및 사업 지속성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관점은 영농진입 준비 역시 농지·자금·교육 등 영농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한정하기보다, 이에 앞서 자신의 목표와 여건을 파악하고 지역·품목 등 영농의 핵심 요소를 탐색·비교하고 구체화하는 의사결정 과정까지 포함하여 접근할 필요성을 뒷받침함.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이 연구는 ① 영농진입 이전의 의사결정 단계에 주목하고, ② 지역과 품목을 상호 연계하여 탐색·비교하며, 그 결과를 농지·자금·교육 등 후속 영농준비와 연계하는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3.2.1. 영농진입 준비의 범위를 사전 의사결정 단계로 확장

❍ 이 연구는 영농진입을 고려하는 청년이 자신의 목표와 여건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 어떤 품목으로 어떠한 영농을 시작할 것인가'를 탐색·비교하고 구체화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주목함.

❍ 이를 통해 영농진입 준비를 농지·자금·교육 등 영농 실행을 위한 준비에 한정하지 않고, 이에 선행하여 지역·품목 등 영농의 기본방향을 탐색하고 구체화하는 의사결정 단계까지 포함하는 과정으로 확장하여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3.2.2. 지역×품목 의사결정과 후속 영농준비를 연계한 지원체계 설계

❍ 기존 연구에서도 지역과 품목 선택을 지원하려는 시도가 일부 이루어짐. 귀농·귀촌 연구에서는 이주지역 선택에 필요한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김국종·조용윤(2022)은 사용자가 재배지역·재배작목·재배형태를 입력·선택하면 해당 조건에 따른 토양적합성, 토지가격, 예상소득 및 경영비, 시설 구축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제시함.

○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지역과 품목을 사전에 결정된 조건으로 두지 않고, 영농진입 단계에서 사용자의 목표와 여건에 따라 지역과 품목을 상호 연계하여 탐색·비교하는 핵심 의사결정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또한, 지역과 품목의 선택 자체에 그치지 않고, '영농계획 수준 진단 → 지역·품목 조건부 축소 → 지역×품목 후보조합 도출·비교 → 영농규모 및 필요자원 구체화 → 후속 영농준비 정보 제공'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4.1. 주요 연구내용

○ 2장에서는 청년농의 영농 진입단계에서의 사전준비 범위를 확장하고, 의사결정 정보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음.

- 기존의 영농진입 준비가 농지·자금·교육 등 실제 영농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이에 선행하여 자신의 영농목표와 여건에 따라 지역·품목을 탐색하고 구체화하는 의사결정 과정까지 사전준비의 범위에 포함하여 살펴보았음.
- 청년농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사전준비의 범위'와 '영농목표-사전준비 간 정합성'이 각각 영농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을 포함한 폭넓은 사전준비와 개인의 영농목표에 부합하는 준비가 일부 영농성과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영농진입 관련 정보와 정보제공체계를 검토하여, 다양한 정보가 구축·제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청년농이 실제 지역과 품목을 선택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를 토대로 기존 정보의 연계·가공, 개인의 조건에 따른 정보 세분화 및 미구축 정보의 추가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3장에서는 청년농과 예비농의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농진입 의사결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기본구조를 설계하였음.

- 지역·품목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과 그 중요도가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품목 선택요인과 조건을 직접 설정하고 이를 탐색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의사결정 지원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지원체계 기본구조를 '사용자 진단 → 지역·품목 조건부 축소 → 지역×품목 후보조합 도출 및 구체화 → 맞춤형 영농준비 정보제공'의 단계로 설계하였음.

❍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지표를 구체화하고, 활용 가능한 통계·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였음.

- 정보의 구축·갱신 방식과 자료 가용성을 고려하여 지역 및 품목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①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구축할 정보, ② 기존 공공정보 및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정보, ③ 향후 추가 구축이 필요한 정보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재배가 확인된 지역×품목 기반

DB를 구축하고, 이 DB를 지역 및 품목 관련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기준 DB로 활용하였음.

- 지역 선택 시 필요한 농지 매매·임대 가격 및 물량에 관한 정보, 품목 선택 시 필요한 기대수익성, 소득 안정성, 노동 투입 특성 등에 관한 정보지표를 정의하고, 정보DB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5장에서는 앞서 설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와 정보체계를 토대로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를 제시하였음.

- 실용화를 위한 과제로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사 항목 확대와 표본 확충, 객관적·표준화된 정보 구축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를 통한 정보기반 확충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에서 구축 가능성을 검토한 정보체계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의사결정 목적과 영농계획 수준에 따라 보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 선택형, 품목 선택형, 목표소득 역산형, 자금·농지 제약형, 영농계획 검토형 등으로 모듈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4.2. 연구방법

4.2.1. 통계·행정 자료 분석 및 영농 관련 정보제공 현황 검토

❍ 청년농의 영농진입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의 구축 가능성과 기존 정보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행정자료를 분석하고 영농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를 검토함.

- 국가데이터처 MDIS를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목록과 원자료의 제공 범위 및 주요 변수를 검토하여 영농진입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구

축 가능성을 파악함.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그린대로, 탄탄대로, 농업ON, 농사로, 흙토람 등 주요 영농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를 검토함.
- 각 기관 담당자 문의를 통해 농지 매매 및 임대 현황 자료, 농산물소득조사 자료, 충청남도 지역별 재배가능 품목 정보, 2026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정보 등 관련 원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와 제공 범위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함.

4.2.2. 설문조사

❍ 청년농의 영농진입 과정과 예비농의 의사결정 및 정보수요를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설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은 영농진입 이전 단계의 '예비농'과 영농진입 5년 이내의 '청년농'으로 구분함.
- 예비농을 대상으로 영농계획 및 결정 정도, 영농목표, 지역·품목 선택 시 고려요인, 필요한 정보와 정보접근성 등을 조사함.
- 청년농을 대상으로 영농진입 당시의 영농목표 및 사전준비 항목, 영농진입 당시의 지역·품목 선택 시 고려요인, 현재 영농성과 등을 조사함.

4.2.3. 회귀분석

❍ 청년농의 ① 영농진입 사전준비 범위에 따른 유형과 영농성과와의 관계, ② 영농목표-사전준비 정합성과 영농성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함.

4.2.4. 면담조사

❍ 설문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영농진입 의사결정 과정과 지역·품목 선택 과정, 정보탐색 및 이용상의 애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청년농과 예비농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함.

- 청년농은 KREI 현지통신원 중 45세 미만 청년농 대상으로 지역, 품목, 승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면담 대상자를 선정함.
- 예비농은 설문조사 대상자 중 인터뷰 의향을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사업 예비농 과정 참여 여부,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영농창업특성화대학 재학생 등의 유형을 고려하여 면담 대상자를 선정함.

〈표 1-3〉 면담조사 내역

구분	시기	주요 조사내용	연구 활용
청년농 (13명)	2026. 3. 12. ~ 4. 8.	• 영농진입 계기 및 과정 • 영농진입 당시 지역·품목 등의 결정 정도 및 결정 순서 • 지역 및 품목 선택 시 주요 고려요인	• 청년농의 영농진입 의사결정 과정 및 주요 선택요인 파악 • 설문조사 문항 구성에 반영
예비농 (13명)	2026. 7. 22. ~ 7. 24.	• 영농진입 목표 및 계획 • 지역·품목·목표소득·농지·자금 등의 주요 의사결정 정도 및 결정 순서 • 영농진입 관련 정보 탐색 및 취득 과정과 애로사항	• 예비농의 영농진입 의사결정 구조 및 탐색과정 파악 • 지역·품목 선택에 필요한 정보수요 및 기존 정보제공의 한계 파악 • 의사결정 지원체계 설계에 반영

자료: 저자 작성.

4.2.5. 전문가 의견수렴

❍ 연구내용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설계의 타당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함.

- 예비농·청년농 대상 설문조사지의 문항 구성 및 조사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의견을 설문조사 설계에 반영함.

- 스마트팜 시설·장비 구축 수준에 따른 비용 표준화 가능성과 정보 구축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 청년농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기본구조와 지역·품목 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구조와 세부 설계에 반영함.

2 청년농의 영농진입 사전준비와 의사결정 정보지원의 필요성

1. 영농진입 사전준비의 구성과 범위

1.1. 청년농의 영농진입 특성과 사전준비 범위 확장의 필요성

❍ 기존의 청년농 영농진입 관련 정책에서는 영농진입 및 초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지원과 준비 항목으로 농지·자금 등 영농기반의 확보와 교육·훈련 및 영농경험을 통한 역량 축적 등을 주로 다루어 왔음.

❍ 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탐색하고 구체화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먼저 고려할 점은 농지·자금·교육 등 영농진입을 위한 실행준비의 내용과 수준이 지역·품목 등의 의사결정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임. 따라서 농지·자금·교육 등의 실행준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어떠한 지역에서 어떤 품목으로 영농할 것인지에 대한 탐색과 의사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에는 부모의 영농기반을 그대로 승계하기보다 영농진입 과정에서 스스로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영농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는 청년농의 비중이 상당해, 지역과 품목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중 독립경영예정자의 비율은 2018년 44.8%에서 2024년 78.3%로 증가하여, 사업 선발 당시 아직 독립경영을 시작하지 않은 청년농이 다수를 차지함.
- 영농기반 마련 방법에서도 2024년 기준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받은 승계는 16.7%인 반면, 부모의 영농기반 없이 새롭게 기반을 마련한 신규창농은 36.0%, 부모의 영농기반이 있음에도 별도의 기반을 마련한 별도창농은 47.3%로 나타남.

〈표 2-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영농진입 특성

단위: %

구분		독립경영 예정자	독립경영 1~3년차
독립경영 여부	2018	44.8	55.2
	2019	59.3	40.7
	2020	65.7	34.3
	2021	67.5	32.5
	2022	70.4	29.6
	2023	71.0	29.0
	2024	78.3	21.7

(계속)

구분		신규 창농	별도 창농	승계
영농 기반 마련 방법	2018	33.2	49.6	17.2
	2019	28.2	51.2	20.6
	2020	30.0	49.5	20.5
	2021	30.4	49.2	20.4
	2022	33.5	46.0	20.5
	2023	35.3	44.3	20.7
	2024	36.0	47.3	16.7

주 1) 영농 기반 마련 방법에서 '신규 창농=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별도 창농=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승계=부모의 기반 증여·상속'을 의미함.
2) 2018~2024년 연도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수는 1,600명, 1,600명, 1,600명, 1,800명, 2,000명, 4,000명, 5,000명임.
3)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항목의 합이 10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강동우 외(2025: 3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표 2-11〉 일부 발췌.

❍ 실제 예비농 및 청년농 면담조사에서도 영농진입은 개인의 관심·가치관, 영농목표를 토대로 품목과 지역을 탐색·구체화하고, 이후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례가 확인됨.

- 한 청년농은 서울에서 생활할 당시부터 전통주 제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귀농 이후 누룩의 원료인 밀을 직접 재배하기로 결정하고, 밀 재배를 위한 농지를 임차함.

- 한 예비농은 어릴 때부터 고양이를 좋아했던 개인적 관심에서 출발하여 고양이가 선호하는 식물을 직접 키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원예학과에 진학하여 개박하와 개다래를 연구함. 코로나19 이후 반려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보며 해당 품목의 사업 가능성도 함께 발견하였고, 개박하와 개다래를 영농품목으로 결정함. 이후에는 개박하·개다래와 유사한 작물이 재배 가능한 지역을 탐색하여 경산, 구미, 대구, 영천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농지가격과 농업 정책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착지역을 선택함.

- 또 다른 예비농은 자신의 의사결정 순서를 '꿈 → 품목 → 지역 → 자금·농

지 → 목표소득'으로 설명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품목으로 밀을 선택함. 현재는 기상정보와 흙토람[4] 정보 등을 활용하여 밀 재배에 적합한 지역을 탐색 중임.

❍ 이러한 사례는 영농진입 과정에서 개인의 관심·가치관 및 영농목표가 품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선택된 품목이 다시 지역 탐색과 필요한 농지·자금·기술 등 후속 준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흐름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줌. 즉, 지역·품목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후의 실행준비는 서로 분리된 과정이라기보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진입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은 창업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창업 관련 연구에서는 창업준비를 자금·시설 등 사업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자신의 특성과 목표를 확인하고 사업기회를 탐색·평가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한 후 이를 실행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접근하고 있음(김양기, 2024; 이지안·안영식, 2018).

1.2. 영농진입 사전준비의 범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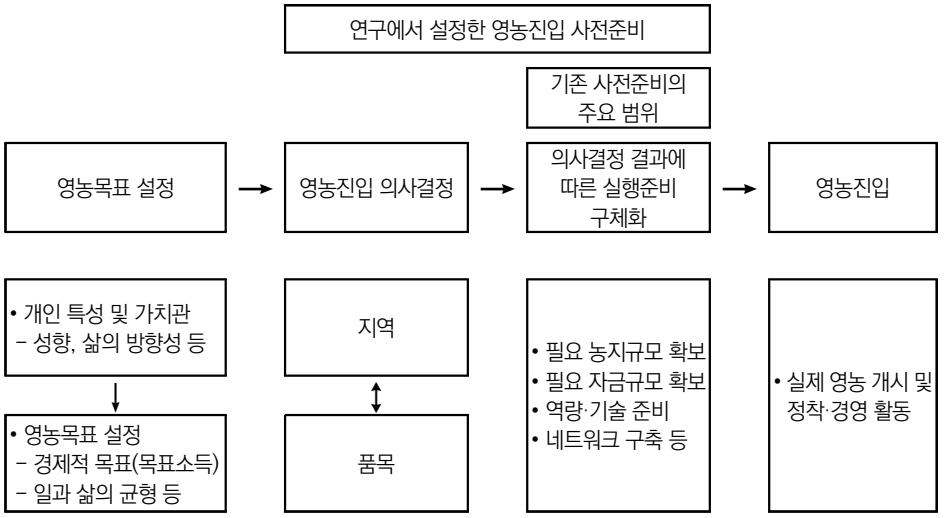
❍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영농진입 사전준비'의 범위를 영농진입 과정에서의 지역·품목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실행준비로 설정함.

- 개인의 특성과 가치관 등에 따른 영농목표 설정은 사전준비의 선행단계로 간주함.

4) 농촌진흥청이 운영하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으로, 작물별 토양적성도, 농경지화학성, 토양특성, 정밀농업기후도, 생물상분포, 농업환경변동정보 등을 제공함(흙토람, 검색일: 2026. 7. 14.).

- 이에 따라 영농진입 전체 과정을 개인 특성 및 가치관 → 영농목표 설정(경제적 목표·일과 삶의 균형 등) → 지역·품목에 대한 탐색 및 의사결정 → 의사결정 결과에 따른 실행준비 구체화 → 영농진입의 흐름으로 봄.

〈그림 2-1〉 연구에서 설정한 영농진입 사전준비의 범위



자료: 저자 작성.

2. 영농진입 사전준비의 범위와 영농성과의 관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지역·품목에 대한 탐색과 의사결정을 영농진입 사전준비의 일부로 파악함. 이 절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포함한 사전준비가 실제 영농성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살펴봄.

2.1. 영농진입 사전준비 실태

❍ 청년농의 영농진입 사전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농진입 당시 실제로 준비한 내용과 각 항목의 준비 정도를 조사함.

- 사전준비 항목은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 자원 확보, 영농 역량 및 경험 축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착 준비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함.
- 영농진입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한 항목은 최대 5개까지 선택 가능하고,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인식하는 준비 정도를 기입하도록 하였음.
- 준비된 정도는 1~3으로 측정하였으며, 숫자가 클수록 준비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함.

❍ 청년농 영농진입 시 준비하는 내용으로는 '농업 관련 교육 이수(학교 수업 제외)'가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배작목 관련 정보 수집(수익성, 기술 등)'과 '정부 지원사업 및 정책 정보 확인'이 각각 41.2%로 나타남.

- 그다음으로, '농지 확보(매입 또는 임차)(36.2%)', '대출 또는 정책자금 확보(32.0%)', '초기 자금 마련(저축, 가족 지원 등)(26.6%)' 순으로 나타남.

〈표 2-2〉 청년농 영농진입 관련 사전준비 내용 및 준비 정도

단위: %

대분류	세부항목	비율	준비도			
			1	2	3	계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	① 재배작목 관련 정보 수집(수익성, 기술 등)	41.2	23.3	46.1	30.6	100.0
	② 지역 정보 탐색(농지, 정주여건, 정책 등)	18.4	25.0	53.3	21.7	100.0
	③ 정부 지원사업 및 정책 정보 확인	41.2	24.3	51.0	24.8	100.0
	④ 농외소득 병행 계획 수립	13.0	18.5	49.2	32.3	100.0
	⑤ 단계적 확장 계획 수립	7.0	5.7	71.4	22.9	100.0
	⑥ 선택한 재배작목의 판로·유통망 확보	8.0	25.0	42.5	32.5	100.0

(계속)

대분류	세부항목	비율	준비도			
			1	2	3	계
자원 확보	⑦ 초기 자금 마련(저축, 가족 지원 등)	26.6	29.3	47.4	23.3	100.0
	⑧ 대출 또는 정책자금 확보	32.0	24.4	55.0	20.6	100.0
	⑨ 농지 확보(매입 또는 임차)	36.2	24.3	42.5	33.1	100.0
	⑩ 농기계·시설 등 생산수단 확보	9.6	16.7	56.3	27.1	100.0
영농 역량 및 경험 축적	⑪ 농업 관련 교육 이수(학교 수업 제외)	42.8	20.6	50.0	29.4	100.0
	⑫ 단기 실습·체험	8.8	31.8	40.9	27.3	100.0
	⑬ 장기 실습, 체험(청년 귀농학교, 농협 청년 농민사관학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등)	19.4	12.4	55.7	32.0	100.0
	⑭ 농업법인농장 취업 등을 통한 현장 경험	9.2	19.6	47.8	32.6	100.0
	⑮ 선도농·멘토와의 교류 및 지도 경험	15.6	14.1	47.4	38.5	100.0
	⑯ 소규모 시험 재배 또는 사전 실험	7.8	17.9	46.2	35.9	100.0
	⑰ 경영 마케팅 관련 교육	5.8	13.8	55.2	31.0	100.0
	⑱ 농산물 품질관리 교육	4.2	9.5	61.9	28.6	100.0
네트워크 구축 및 정착 준비	⑲ 지역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20.2	17.8	51.5	30.7	100.0
	⑳ 가족과의 협의 및 생활 기반 준비	21.4	12.1	47.7	40.2	100.0
	㉑ 거주지 이전 또는 주거 확보	13.2	19.7	43.9	36.4	100.0

주 1) 청년농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500명임. 설문조사에서는 영농진입 사전준비를 4개 대분류별로 구분하고, 각 대분류에 해당하는 세부항목별로 준비 여부와 수준을 조사함.
2) 준비도 1~3은 1. 관련 정보를 일부 확인하거나 경험해 본 수준, 2. 실제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수준, 3. 실제 영농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한 수준을 의미함.
3)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항목의 합이 10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2. 영농진입 사전준비 범위와 영농성과의 관계

2.2.1. 영농진입 사전준비 범위에 따른 유형 구분

❍ 영농진입 관련 사전준비 범위와 영농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사전준비 구성요소와 설문조사의 사전준비 항목을 연계함.

〈표 2-3〉 영농진입 사전준비 구성요소와 설문조사 항목의 연계

영농진입 사전준비	설문조사 항목
영농진입 의사결정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① ~ ⑥)
의사결정 결과에 따른 실행준비 구체화	자원 확보(⑦ ~ ⑩)
	영농 역량 및 경험 축적(⑪ ~ ⑱)
	네트워크 구축 및 정착 준비(⑲ ~ ㉑)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 2-2〉에 제시된 세부 사전준비 항목의 번호임.
자료: 저자 작성.

○ 〈표 2-3〉의 연계를 활용하여, 영농진입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 영역의 준비 여부와 의사결정 이후 실행준비 영역의 준비 여부를 기준으로 사전준비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함.

- 유형1. 의사결정·실행준비 포괄형: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과 실행준비에 해당하는 '자원 확보', '영농 역량 및 경험 축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착 준비'의 4개 영역 모두에서 하나 이상의 세부항목을 준비한 경우로 정의함.
- 유형2. 의사결정 포함·실행준비 부분형: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세부항목을 준비하였으나, 실행준비에 해당하는 나머지 3개 영역 중 일부 영역만 준비하였거나 모두 준비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함.
- 유형3. 의사결정 미포함형: 실행준비에 해당하는 나머지 3개 영역의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 영역에서 준비한 항목이 없는 경우로 정의함.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서는 21개 사전준비 항목 중 중요하게 고려한 항목을 최대 5개까지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청년농 응답자의 56.2%가 5개 항목을 모두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실제로 6개 이상의 항목을 중요하게 고려한 응답자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추가적인 준비영역이 있더라도 설문조사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준비한 영역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일부 응답자의

사전준비 범위와 유형 구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본 분석에서 구분한 유형은 응답자의 실제 사전준비 전체 범위라기보다, 중요하게 고려한 최대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파악한 사전준비 범위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표 2-4〉 사전준비 범위에 따른 유형 구분

구분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	자원 확보, 영농 역량 및 경험 축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착 준비 여부
의사결정·실행준비 포괄형	○	3개 영역에서 모두 준비
의사결정 포함·실행준비 부분형	○	3개 영역에서 일부 준비 또는 미준비
의사결정 미포함형	×	3개 영역의 준비 여부와 관계없음

주: '○'는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세부항목을 준비한 경우, '×'는 준비한 세부항목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각 준비영역은 〈표 2-2〉의 세부항목 중 하나 이상을 준비한 경우 해당 영역을 준비한 것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2.2.2. 분석방법

○ 청년농의 사전준비 범위와 영농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순위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함. 종속변수로 활용한 영농성과 지표가 순서를 갖는 범주형 변수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순위형 로짓 모형을 적용함.

$$P(Y_i \leq j \mid X_i) = \frac{\exp(\tau_j - X_i\beta)}{1 + \exp(\tau_j - X_i\beta)}, \quad j = 1, 2, ..., J-1$$

○ 종속변수인 영농성과는 경제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로 구분하여 구성함.[5)]

- 경제적 영농성과를 현재 연간 영농소득(11개 범주)으로 측정함.

5) 분석변수의 기초통계는 부록2의 〈부표 2〉를 참조.

- 주관적 영농성과를 당초 기대 대비 현재 영농소득 수준(7개 범주), 영농만족도(5개 범주), 향후 영농지속 의향(5개 범주)으로 측정함.

❍ 주요 설명변수는 사전준비 범위에 따른 유형(이하 '사전준비 유형')이며, 유형3인 '의사결정 미포함형'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함.

- 유형3과 유형1·유형2의 비교를 통해, 지역·품목 등에 대한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을 포함하여 사전준비를 수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영농성과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봄. 이를 통해 지역·품목에 대한 탐색 및 의사결정까지를 영농진입 사전준비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을 검토함.
- 유형1과 유형2 간 비교를 통해,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을 수행한 청년농 가운데 실행준비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여 준비한 경우와 일부 영역만 준비한 경우 영농성과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봄. 이를 통해 실행준비의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지, 또는 개인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간접적으로 검토함.

❍ 통제변수는 성별, 나이, 영농경력, 학력, 영농진입 당시 가족 부양 여부, 성인 이전 농촌 거주 경험, 승계농 여부, 영농진입 계기, 위험 선호 성향, 영농형태를 활용함.[6)]

6) 현재 연간 영농소득과 농지규모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농지규모를 통제변수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다만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농지규모가 아닌 영농진입 당시 확보한 농지규모를 조사하였으며, 해당 문항의 결측치도 전체 청년농 응답자 500명 중 289명으로 많았음. 결측 응답의 경우 영농진입 당시 확보한 농지가 없었던 것인지 또는 단순 미응답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본 분석에서는 농지규모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농지규모를 직접 통제하지 못한 데 따른 영향을 일부 고려하기 위해 영농소득 및 농지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농형태와 승계농 여부를 통제변수에 포함함.

2.2.3. 분석결과[7]

○ 분석 결과, 사전준비 유형에 따른 현재 영농소득, 당초 기대 대비 영농소득 및 영농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반면, 영농진입 의사결정 단계(정보탐색 및 계획수립)를 포함하여 사전준비를 수행한 청년농(유형1과 유형2)은 그렇지 않은 청년농(유형3)에 비해 향후 영농지속 의향이 더 높은 범주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 결과는 영농진입 사전준비의 범위를 농지·자금·역량 확보 등 실행준비에 한정하기보다 이에 선행하는 탐색 및 의사결정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8]

- 현재 영농소득이나 영농만족도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영농지속 의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영농진입 의사결정 단계(정보탐색과 계획수립)를 포함한 사전준비를 수행한 청년농은 영농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영농지속 의향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음.

---

7) 자세한 분석결과는 부록2의 〈부표 3〉을 참조.

8) 사전준비 유형을 활용한 분석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4개 사전준비 영역별 준비 여부를 각각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동일 모형에 함께 투입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함. 분석 결과,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 영역의 준비 여부는 향후 영농지속 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현재 영농소득, 당초 기대 대비 영농소득 및 영농만족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 이 결과는 본문의 사전준비 유형을 활용한 분석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며, 영농진입 이전의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을 사전준비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을 추가로 뒷받침함. 해당 분석에서 자원 확보와 영농 역량 및 경험 축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착 준비'는 향후 영농지속 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음. 다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착 준비는 기존 영농·생활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농에게 더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결과를 해당 준비 자체와 향후 영농지속 의향 간의 부정적 관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분석결과는 부록2의 〈부표 4〉를 참조).

- 다만, 영농진입 이전부터 영농에 대한 장기적인 의지가 강한 청년농이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 등 사전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사전준비와 향후 영농지속 의향 간의 관계를 해석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을 수행한 유형1과 유형2를 비교한 결과, 현재 영농소득, 당초 기대 대비 영농소득 및 현재 영농만족도에서는 두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반면, 향후 영농지속 의향에서는 실행준비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 유형1에 비해 일부 영역만 준비한 유형2가 더 높은 범주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영농진입 의사결정 이후 실행준비의 모든 영역을 일률적으로 포괄하는 것이 반드시 더 나은 영농성과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청년농 개인의 목표와 여건에 따라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여 준비하는 방식이 오히려 적절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 다만 유형2가 일부 실행준비 영역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개인의 필요에 따른 선택인지, 또는 시간·자원 등의 제약에 따른 것인지는 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2-5〉 영농진입 사전준비 유형과 영농성과의 관계

구분		현재 연간 영농소득	당초 기대 대비 현재 영농소득 수준	현재 영농만족도	향후 영농지속 의향
유형1. 의사결정·실행준비 포괄형	오즈비 (s.e)	0.895 (0.256)	0.928 (0.274)	1.241 (0.397)	**1.746*** (0.551)
	p-value	0.697	0.801	0.500	**0.077**
유형2. 의사결정 포함·실행준비 부분형	오즈비 (s.e)	0.895 (0.234)	0.849 (0.223)	1.489 (0.423)	**2.599***** (0.740)
	p-value	0.672	0.535	0.161	**0.001**

(계속)

구분		현재 연간 영농소득	당초 기대 대비 현재 영농소득 수준	현재 영농만족도	향후 영농지속 의향
유형1-유형2 검정	두 유형 간 오즈비 비율 (s.e)	0.999 (0.208)	1.093 (0.226)	0.833 (0.177)	**0.672*** (0.140)
	p-value	0.997	0.667	0.391	**0.057**

주 1) 기준 유형은 정보탐색·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준비영역을 모두 또는 일부 준비한 경우임.
2)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유형1 101명, 유형2 264명, 유형3(기준 유형) 88명임.
3) 유형1과 유형2의 회귀계수는 지수변환하여 오즈비(Odds Ratio)로 제시함.
4) 유형1-유형2 검정은 동일 모형 내에서 두 유형의 회귀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한 결과로, 회귀계수의 차이를 지수변환하여 오즈비(Odds Ratio)로 제시함.
5) 괄호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6) * p<0.10, ** p<0.05, *** p<0.0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영농목표-사전준비 정합성과 영농성과의 관계

○ 앞 절에서는 영농진입을 위한 사전준비의 범위를 지역·품목 등을 선택하는 의사결정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봄.

○ 이 절에서는 청년농이 추구하는 영농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전준비가 이루어졌는지와 해당 준비가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영농목표와 사전준비 간 정합성이 영농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분석함.

3.1. 영농목표와 사전준비의 연계

3.1.1. 청년농의 영농목표

○ 청년농의 영농목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의 '영농진입 당시 중요하게 고려했던 항목'을 활용함.

- 응답자는 14개 항목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최대 5개까지 선택하고, 선택한 항목의 우선순위를 응답함.

- 전체 응답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한 항목은 '농업을 통해 일반 직장인 이상의 소득 수준 확보(55.2%)'였으며, 그다음으로 '농촌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생활(47.6%)', '스마트팜, 자동화, 데이터 활용 등 ICT 기반 첨단농업 추구(42.6%)', '월별, 연도별 꾸준하고 일정한 농업소득 확보(39.4%)', '일과 삶의 균형 유지(3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농업을 통해 일반 직장인 이상의 소득 수준 확보'와 '월별, 연도별 꾸준하고 일정한 농업소득 확보'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3.2%와 2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6〉 청년농의 영농목표

단위: %

대분류	세부항목	전체	1순위
소득 확보 및 경제적 자립	① 월별, 연도별 꾸준하고 일정한 농업소득 확보	39.4	21.6
	② 농업을 통해 일반 직장인 이상의 소득 수준 확보	55.2	33.2
	③ 농업소득만으로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확보	24	8.2
	④ 농업과 농외 활동을 병행한 생계 유지	17.8	6.4
본인의 영농 방식 실현	⑤ 스마트팜, 자동화, 데이터 활용 등 ICT 기반 첨단농업 추구	42.6	5.8
	⑥ 신품종 도입, 고품질 생산, 재배기술 개선 등 작목·재배 방식 혁신 추구	26.4	1.6
	⑦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노지 형태의 전통적 재배 방식	22	2.0
	⑧ 친환경, 유기농, 저탄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중시	13.4	0.6
	⑨ 본인의 경험이나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방식	30	2.8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정착	⑩ 농촌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생활	47.6	4.8
	⑪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의 생활	16.6	2.6
	⑫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 기반 마련	29.6	4.8
	⑬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참여	21.6	0.2
	⑭ 일과 삶의 균형 유지	38.6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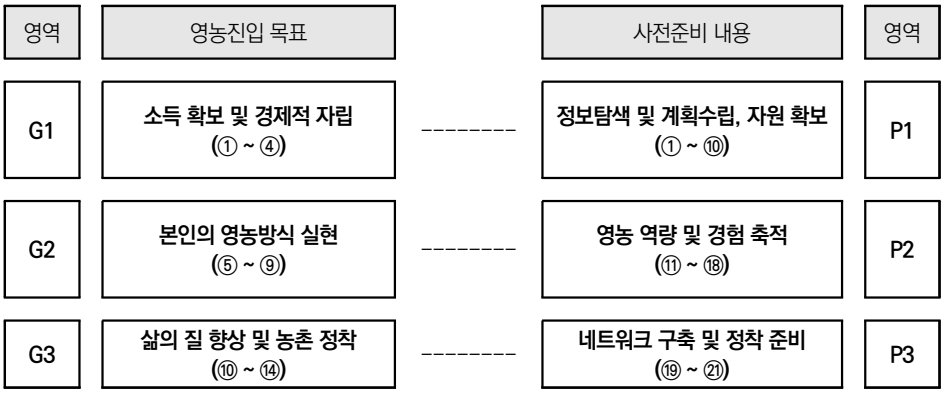
주: 청년농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500명임. 설문조사에서는 영농진입 목표를 대분류로 구분하고, 각 대분류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을 제시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1.2. 영농목표와 사전준비의 연계

○ 청년농이 선택한 영농목표와 실제 수행한 사전준비 간의 정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21개 사전준비 세부항목 전체를 내용적 관련성에 따라 G1~G3의 영농목표 영역과 연계함〈그림 2-2 참조〉.

- 영농목표는 크게 ① 소득 확보 및 경제적 자립(G1), ② 본인의 영농방식 실현(G2), ③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정착(G3)의 세 영역으로 구분함〈표 2-6 참조〉.
- 사전준비는 ①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자원 확보, ② 영농 역량 및 경험 축적, ③ 네트워크 구축 및 정착 준비의 세 영역으로 구분함〈표 2-2 참조〉.

〈그림 2-2〉 영농진입 목표와 사전준비 내용의 연계



주: 영농진입 목표의 괄호 안 숫자는 〈표 2-6〉의 세부항목 번호를, 사전준비 내용의 괄호 안 숫자는 〈표 2-2〉의 세부항목 번호를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내용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이러한 연계는 청년농의 영농목표와 실제 수행한 준비가 어느 정도 같은 방향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적 분류로, 특정 영농목표를 가진 청년농에게 특정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지역 정보탐색'은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정착과도 관련될 수 있으나, 본 분

석에서는 지역이 고정된 승계농을 제외하고 정착지역을 탐색하는 청년농의 경우 단순한 정주지역 탐색보다 농지가격, 관심 품목의 재배여건, 판로, 정책지원 등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 확보 및 경제적 자립'과 연계함.

3.2. 영농목표와 사전준비의 정합성 지표의 구성

❍ 영농목표에 부합하는 사전준비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연계한 내용을 기준으로 개별 청년농이 선택한 영농목표 영역(G1~G3)과 실제 준비한 영역(P1~P3)을 비교하여 정합성 지표를 구성함.[9)]

- 먼저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 정합성'은 청년농이 선택한 목표 영역과 관련된 사전준비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산출함.
-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질 정합성'은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 정합성'에 해당 영역의 세부 사전준비 항목별 준비 수준을 추가로 반영하여, 목표에 부합하는 준비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함.

9) 이 연구에서 구성한 정합성 지표는 영농목표와 사전준비 간 관계를 단순화하여 측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첫째, 영농목표와 사전준비 간 대응관계는 각 항목의 주된 내용적 관련성을 바탕으로 설정한 분석적 분류로, 하나의 사전준비가 복수의 영농목표와 관련될 가능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함. 둘째, 내용·질 정합성은 실제 수행한 사전준비 영역의 평균 준비도를 활용하므로, 특정 사전준비 영역에서 수행한 준비항목의 수나 범위 자체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셋째, 선택한 영농목표 영역을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함에 따라 영농목표 간 우선순위의 차이는 고려하지 못함. 향후 영농목표와 사전준비 간 대응관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준비의 범위와 목표의 중요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지표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3.2.1.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 정합성

○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 정합성'은 청년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영농목표와 실제 수행한 사전준비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나타냄.

- 영농목표는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 목표항목을 하나 이상 선택한 경우 해당 영역을 영농목표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함.
- 사전준비는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 사전준비 항목을 하나 이상 수행한 경우 해당 영역에서 사전준비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함.
-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 정합성'은 '영농목표와 사전준비가 일치한 영역 수÷선택한 영농목표 영역 수×100'으로 정의함.
- 〈표 2-7〉에서 청년농 A는 영농 세부목표로 ①과 ⑤를 선택하였으며, 이는 각각 영농목표 G1(소득 확보 및 경제적 자립)과 G2(본인의 영농방식 실현)에 해당함.
- 또한, 청년농 A가 수행한 세부 사전준비는 ①, ②, ⑧, ⑬, ⑮이며, 이 가운데 ①, ②, ⑧은 P1, ⑬, ⑮는 P2에 해당함.
- 청년농 A가 선택한 영농목표 영역은 G1과 G2의 2개이며, 실제 수행한 사전준비 영역은 각각 이에 대응하는 P1과 P2임. 이에 따라 'G1-P1'과 'G2-P2'의 2개 영역에서 영농목표와 사전준비가 일치함.
- 따라서 청년농 A의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 정합성'은 '2÷2×100=100%'로 산출됨.

3.2.2.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질 정합성

○ 내용 정합성은 선택한 영농목표 영역과 관련된 사전준비를 수행했는지는 보여주지만, 실제로 준비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반영하지 못함.

❍ 이에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질 정합성'은 목표와 준비의 내용적 일치 여부와 함께 각 영역에서의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구성함.

- 특정 영역의 '준비영역 준비도 평균'은 해당 영역에서 '수행한 세부 사전준비 항목의 준비도 합÷수행한 세부 사전준비 항목 수'로 정의함.
-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질 정합성'은 G1-P1, G2-P2, G3-P3의 연계관계를 바탕으로, 청년농이 선택한 영농목표 영역에 대응하는 사전준비 영역의 준비도 평균을 다시 평균하여 산출함. 즉, '선택한 영농목표 영역에 대응하는 사전준비 영역별 준비도 평균의 합÷선택한 영농목표 영역 수'로 정의함.
- 선택한 영농목표 영역에 대응하는 사전준비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영역의 준비도 평균에 0점을 부여하며, 선택하지 않은 영농목표 영역은 내용·질 정합성 산출에서 제외함.
- 예를 들면, 〈표 2-7〉에서 청년농 A는 영농 세부목표로 ①과 ⑤를 선택하였으며, 이는 각각 G1과 G2에 해당함. 따라서 청년농 A가 '선택한 영농목표 영역 수'는 2개임.
- 또한, 청년농 A가 수행한 세부 사전준비는 ①, ②, ⑧, ⑬, ⑮이며, 이 항목에 대한 사전준비 정도는 1, 3, 2, 2, 3임. 세부 사전준비 항목 ①, ②, ⑧은 P1에, ⑬, ⑮는 P2에 해당하므로, P1 영역의 준비도 평균은 (1+3+2)÷3= 2점, P2 영역의 준비도 평균은 (2+3)÷2= 2.5점으로 산출됨.
- 따라서 청년농 A의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질 정합성'은 G1과 G2에 각각 대응하는 P1과 P2의 준비도 평균을 활용하여 '(2+2.5)÷2= 2.25점(≈ 2.3점)'으로 산출됨.

〈표 2-7〉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 및 내용·질 정합성 산출 예시

구분	청년농 A			청년농 B			청년농 C		
영농목표 세부항목 응답	①	⑤		②	⑥	⑩, ⑭	①	⑤	
	⋮	⋮		⋮	⋮	⋮	⋮	⋮	
영농목표 영역	G1	G2		G1	G2	G3	G1	G2	
사전준비 세부항목 응답	①	②	⑧	⑬	⑮	①	②	⑦	⑪	⑯	①	②	⑧	⑬	⑮
사전준비 세부항목 준비도	1	3	2	2	3	2	3	3	3	2	2	1	1	1	2
	⋮			⋮		⋮			⋮		⋮			⋮	
사전준비 영역	P1			P2		P1			P2		P1			P2	
목표와 준비가 일치한 영역 수	2개					2개					2개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 정합성	2÷2×100=100%					2÷3×100=66.7%					2÷2×100=100%				
P1 영역 준비도 평균	6점÷3=2점					8점÷3=2.7점					4점÷3=1.3점				
P2 영역 준비도 평균	5점÷2=2.5점					5점÷2=2.5점					3점÷2=1.5점				
P3 영역 준비도 평균	영농목표 영역 아님					0점(미준비)					영농목표 영역 아님				
영농목표 영역 수	2개					3개					2개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질 정합성	(2+2.5)÷2=2.3점					(2.7+2.5+0)÷3=1.7점					(1.3+1.5)÷2=1.4점				

주: 점수는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설문조사 내용 활용하여 저자 작성.

3.3. 영농목표-사전준비 정합성과 영농성과의 관계

3.3.1. 분석방법

○ 청년농의 영농목표-사전준비 정합성과 영농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순위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함. 종속변수로 활용한 영농성과 지표가 순서를 갖는 범주형 변수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순위형 로짓 모형을 적용함.

$$P(Y_i \leq j \mid X_i) = \frac{\exp(\tau_j - X_i\beta)}{1 + \exp(\tau_j - X_i\beta)}, \quad j = 1, 2, ..., J-1$$

❍ 종속변수인 영농성과는 경제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로 구분하여 구성함.

- 경제적 영농성과를 현재 연간 영농소득(11개 범주)으로 측정함.
- 주관적 영농성과를 현재 당초 기대 대비 현재 영농소득 수준(7개 범주), 영농만족도(5개 범주), 향후 영농지속 의향(5개 범주)으로 측정함.

❍ 주요 설명변수는 앞서 도출한 ①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 정합성과 ②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질 정합성임.[10]

-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내용·질 정합성은 원래 최대 3점 척도이나 회귀분석에서는 100점 척도로 환산하여 분석함.

❍ 통제변수는 성별, 나이, 영농경력, 학력, 영농진입 당시 가족 부양 여부, 성인 이전 농촌 거주 경험, 승계농 여부, 영농진입 계기, 위험 선호 성향, 영농형태를 활용함.

3.3.2. 분석결과[11]

❍ 분석 결과, 영농목표와 사전준비의 내용적 일치 여부만을 고려한 정합성은 영농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 이는 내용 정합성 지표가 단순히 목표와 준비의 방향적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측정한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준비의 수준이나 구체성을 충분히 반영하

10) 해당 변수의 기초통계는 부록3의 〈부표 5〉를 참조.

11) 자세한 분석결과는 부록3의 〈부표 6〉과 〈부표 7〉을 참조.

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내용 정합성은 0.0%, 33.3%, 50.0%, 66.7%, 100%의 다섯 개 값으로 구성되고, 전체 응답자의 약 77%가 66.7% 이상에 분포하여 지표의 변별력이 제한적이었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정합성을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여 추가 분석한 경우에도 영농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 반면, 영농목표와 준비의 내용적 일치뿐만 아니라 실제 준비 수준까지 고려한 내용·질 정합성은 일부 영농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남.

-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질 정합성이 1점 증가할 경우, 현재 연간 영농소득이 더 높은 범주에 속할 승산은 0.7%, 당초 기대 대비 영농소득과 현재 영농만족도가 더 높은 범주에 속할 승산은 각각 0.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12)]
- 안다섬 외(2022)에 따르면 영농만족도가 높을수록 청년농이 이농의향을 가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영농목표에 부합하는 사전준비가 향후 청년농의 영농지속 및 정착과도 긍정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 이러한 결과는 영농목표에 부합하는 사전준비가 객관적인 소득 성과와 청년농이 기대하거나 추구했던 영농의 모습과 실제 영농결과 간의 부합 정도 모두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 2절과 3절의 결과를 종합하면, 영농진입 사전준비는 준비의 범위와 목표 부합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12) 내용·질 정합성은 원래 최대 3점 척도이나 회귀분석에서는 100점 척도로 환산하여 분석함. 따라서 승산비 1.007은 100점 척도로 환산한 내용·질 정합성이 1점 증가할 때의 승산비를 의미함.

- 준비의 범위 측면에서는 농지·자금·교육 등 실행준비뿐만 아니라 지역·품목에 대한 정보탐색과 계획수립 등 영농진입 의사결정 과정까지 사전준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준비의 내용 측면에서는 다양한 준비를 일률적으로 수행하기보다, 청년농이 추구하는 영농목표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준비의 내용과 수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함.

〈표 2-8〉 영농목표-사전준비 정합성과 영농성과의 관계

구분		현재 연간 영농소득	당초 기대 대비 현재 영농 소득 수준	현재 영농만족도	향후 영농 지속 의향
목표-사전준비 내용 정합성	내용 정합성 (s.e)	0.999 (0.003)	1.000 (0.003)	1.000 (0.003)	0.999 (0.003)
	p-value	0.681	0.936	0.914	0.745
목표-사전준비 내용·질 정합성	내용·질 정합성 (s.e)	1.007* (0.004)	1.008* (0.004)	1.008** (0.004)	1.005 (0.004)
	p-value	0.099	0.067	0.035	0.172

주 1) 목표-사전준비 내용·질 정합도는 0~100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함.
2) 영농진입 목표-사전준비 내용 정합성 및 내용·질 정합성 추정치는 오즈비(Odds Ratio)로 제시함.
3) 괄호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4) * p<0.10,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4. 영농진입 단계의 정보제공 현황과 한계

4.1. 영농진입 단계의 정보제공 현황

❍ 앞서 살펴본 영농진입 사전준비의 범위를 고려할 때, 영농진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크게 ① 지역·품목 등을 선택하기 위한 의사결정 정보와 ② 의사결

정 결과에 따라 실제 영농진입에 필요한 조건을 구체화하고 준비하기 위한 후속 준비정보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재 영농진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기관과 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 '그린대로'[13]나 '탄탄대로'[14] 등은 영농진입 및 정착에 필요한 정책·교육·지역 관련 정보 등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통합 정보플랫폼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그린대로의 '귀농 자가진단'은 일정 부분 의사결정 지원의 성격을 가짐. 귀농 희망자가 농지 취득 단계, 교육 이수 정도, 관련 정보의 습득 정도, 귀농의지, 농촌생활 경험 및 개인 성향 등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면 귀농 적합도를 진단하고 영역별 준비수준을 제시함.
- 농지은행[15]과 농업교육포털[16] 등은 농지 확보나 교육 등 특정한 영농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음.
- 농산물소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은 품목별 소득이나 지역별·품목별 재배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에 해당함.
-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17]의 농지 실거래자료와 같이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구축된 자료는 아니지만, 가공·연계하는 경우 지역·품목 탐색 및 비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자료도 존재함.

13) 그린대로(https://www.greendaero.go.kr/), 검색일: 2026. 8. 7. 참조.
14) 탄탄대로(https://youngfarmer.greendaero.go.kr/), 검색일: 2026. 8. 7. 참조.
15) 농지은행(https://www.fbo.or.kr/index.do), 검색일: 2026. 8. 5. 참조.
16)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검색일: 2026. 8. 7. 참조.
17)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 검색일: 2026. 6. 24. 참조.

〈표 2-9〉 청년농 영농진입 관련 주요 정보 및 자료 현황

구분	주요 정보·자료	주요 제공처	정보·자료의 성격	현재 활용 형태
지역·품목 선택을 위한 탐색 정보	품목별 총수입, 경영비, 소득	농산물소득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통계 기초자료	품목별 소득, 경영비 등 조회
	지역별·품목별 재배면적, 농가 수	농림어업총조사	통계 기초자료	지역별(시도 단위)·품목별 재배현황 조회
	농지 실거래가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거래 기초자료	개별 농지의 실거래가격 조회
	농식품 생산·소득·가격 통계 및 분석정보	농업ON	농식품 데이터 연계·분석 플랫폼	지역·품목별 생산·소득·가격 등 조회 및 분석정보 활용
영농계획 구체화 및 실행준비를 위한 정보	정책자금·융자 및 지원사업	탄탄대로, 농업e지, 농식품부 등	통합 정보플랫폼·정책 정보	지원사업 및 신청요건 조회
	현재 농지 매매·임대 가능한 물량 및 가격	농지은행	전문 지원시스템	희망 지역의 매매·임대 농지 조회
	농업교육, 품목별 재배기술	농업교육포털, 농사로, 도 농업기술원 등	전문 정보서비스	필요한 교육·재배기술 조회
	지역별 지원사업	지자체, 그린대로, 탄탄대로 등	통합 정보플랫폼·정책 정보	관심 지역의 지원사업 조회
	주거·정착 관련 정보	그린대로, 탄탄대로 등	통합 정보플랫폼	관심 지역의 주거·정착정보 조회

주 1) 주요 정보 제공 기관 및 플랫폼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으로, 모든 정보 제공처를 포함한 것은 아님.
2) 지역·품목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자료에는 청년농의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직접 제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가공·연계할 경우 지역·품목 탐색 및 비교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존 통계·거래자료를 포함함.
자료: 저자 작성.

○ 그러나 개별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과 청년농이 이를 자신의 영농목표와 조건에 맞게 비교·종합하여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 예비농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비농 67.0%가 영농 관련 정보를 비교·종합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함. 또한, 65.5%는 관련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본인의 자본, 노동력, 지역, 선호 등에 맞게 적용하거나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함.

〈표 2-10〉 예비농의 영농진입 의사결정 정보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단위: %

의사결정 지원체계 부족 정도	전혀 부족하지 않음	부족하지 않음	부족함	매우 부족함
	5.0	28.0	59.5	7.5
맞춤형 정보 활용 어려움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어려움**	**매우 어려움**
	5.0	29.5	54.0	11.5

주 1) 의사결정 지원체계 부족 정도는 '귀하는 영농 관련 정보를 비교·종합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설문 결과를 활용함. 이에 대한 설문 응답 보기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였으며, 표에 적절하게 응답 내용을 수정함.

2) 맞춤형 정보 활용 어려움은 '귀하는 관련 정보가 있어도 본인의 조건(자본, 노동력, 지역, 선호 등)에 맞게 적용하거나 선택하기 어렵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설문 결과를 활용함. 이에 대한 설문 응답 보기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였으며, 표에 적절하게 응답 내용을 수정함.

3) 예비농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이러한 결과는 현행 정보제공의 한계가 단순히 정보의 절대적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① 기존 정보가 분산·분절되어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②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더라도 개별 청년농의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의 세분화·보강이 필요한 문제, ③ 의사결정에 필요하지만 관련 정보 자체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문제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4.2. 현행 정보제공의 한계

4.2.1. 정보의 분산 및 의사결정 활용 형태로의 가공 미흡

○ 현재 영농진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개별 기관과 플랫폼에 분산되어 있고 원자료·통계자료·개별 조회정보 등 서로 다른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지역·품목 선택에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

는 관련 자료를 연계·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품목별 소득은 농산물소득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 농지 물량과 가격은 농지은행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자료, 지역·품목별 재배현황은 농림어업총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원자료 또는 대량의 통계자료는 다양한 세부정보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일반 이용자가 자료를 직접 가공하여 활용하기 어렵고, 집계·가공된 통계자료는 이용이 편리한 반면 원자료의 세부정보가 축약되어 활용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영농진입 전 단계의 청년농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 있는 지역이나 품목의 개별 정보를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표와 조건을 바탕으로 가능한 지역·품목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보임.

- 현재는 특정 품목의 소득이나 특정 지역의 농지가격 등 개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나, 일정 농업소득 이상, 일정 평당 농지가격 이하 등 자신의 조건을 적용하여 이에 부합하는 지역이나 품목을 탐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실제 영농은 궁극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품목을 재배하는 '지역×품목'의 조합으로 구체화 되기 때문에 지역과 품목을 각각 탐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재배 가능 품목 또는 품목별 적합 지역을 양방향으로 탐색하고, 도출된 지역×품목 조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농업ON'[18] 등은 여러 농업 관련 데이터와 통계·분석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

18) 농업ON 홈페이지(https://www.agrion.kr/portal/fsa/bdp/selectFamDecMakSuptList.do.), 검색일: 2026. 8. 7.

로써 분산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나, 이를 지역·품목 선택에 직접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여러 데이터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해당 데이터를 지역·품목 선택을 위한 판단기준으로 가공·연계하여 대안을 탐색·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

❍ 따라서 기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서 나아가, 분산된 자료를 지역·품목과 연계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표로 가공하여, 청년농이 자신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품목 대안을 탐색·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4.2.2. 기존 정보의 표본 부족 및 세분화 한계

❍ 영농진입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 제공되고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개별 청년농의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보를 세분화하기에는 기존 실태조사 표본 규모에 한계가 있음.

❍ 면담조사에 따르면, 농산물소득조사 등 기존 소득정보가 품목 선택과 목표소득 설정에 활용되고 있으나, 개별 예비농이 실제 영농진입 이후 기대할 수 있는 소득수준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특히 기존 표본 농가에는 영농경력이 길거나 경영규모가 큰 농가가 포함되어 있어, 신규 진입자가 영농 초기 단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확인됨.
- 또한 지역별 또는 토경·수경 등 재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경우 개별 집단의 표본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자신의 기대소득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사과의 경우에도 다축·밀식·방추형 등 동일 품목 내에서 다양한 재배방식이 존재하므로, 품목과 재배방식을 연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표 2-11〉 농산물소득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표본 현황

단위: 명

구분		표본수	구분		표본수
식량·특용 작물	논벼	955	노지채소	고추	159
	콩	141		마늘	125
	고구마	127		양파	138
	들깨	61		가을배추	124
	봄감자	132		대파	86
	참깨	54		생강	55
시설채소	딸기	63		수박	51
	딸기(수경)	158		쪽파	75
	멜론	58	과수	배	162
	방울토마토	68		복숭아	164
	방울토마토(수경)	64		사과	207
	상추	50			
	오이	172			
	토마토	88			
	토마토(수경)	70			
	파프리카	56			
	호박	95			

주: 2024년 기준, 농산물소득조사 조사 품목 51개 중 23개 품목과 농산물생산비조사 5개 품목(논벼, 콩,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한 표본 현황임.
자료: 저자 작성.

○ 면담 결과를 고려할 때, 기존 품목별 평균소득 정보는 지역, 영농경력, 재배방식 및 경영규모에 따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보강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진입자의 현실적인 기대소득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초기 영농경력 농가의 경영성과를 별도로 파악하고, 지역별 생산여건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

록 관련 표본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동일 품목이라도 토경·수경, 관행·밀식·다축 등 재배방식에 따라 생산성과 비용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배방식별 총수입·경영비·농업소득 및 초기 투자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경영규모에 따라 비용구조와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영규모별 경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본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4.2.3. 영농진입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부재

❍ 청년농의 영농진입 의사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 존재함.

❍ 면담조사 결과, 대표적으로 시설재배 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설 형태와 수준에 따른 초기 구축비용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시설 구축비용은 가용자금 내에서 진입 가능한 시설 형태와 영농규모 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 시설 형태·규격, 설치 장비 및 스마트화 수준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청년농이 시설 형태와 스마트화 수준 등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을 사전에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시설 유형과 수준을 표준화하고 이에 따른 구축비용 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과 품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현재의 재배 가능성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재배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수요도 확인됨.

- ‘흙토람’의 작물별 토양적성도는 토양특성과 환경요인에 따라 농경지를 구분하여 농경지별로 적합한 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지역별 작목 재배현황을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존재하나, 기후변화에 따른 향후 작물별 재배적지의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한 정보는 제한적임.
- 농지 확보와 시설투자는 상당한 초기비용이 소요되고 입지 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장기간 영농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재배 가능성뿐만 아니라 향후 재배여건의 변화 가능성을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따라서 청년농의 영농진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료의 연계·가공이나 세분화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정보수요를 파악하고, 지역·품목 선택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연구·구축할 필요가 있음.

5. 소결

❍ 이 장에서는 청년농의 영농진입 사전준비를 농지·자금·교육 등 영농 실행을 위한 준비에 한정하지 않고, 이에 선행하여 자신의 영농목표와 조건에 따라 지역·품목 등 영농의 기본방향을 탐색하고 구체화하는 의사결정 단계까지 포함하는 과정으로 확장하여 살펴보았음.

- 최근 독립경영 예정자와 신규 또는 별도의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청년농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영농진입 이전에 스스로 지역·품목 등 영농의 기본방향을 탐색하고 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영농진입 사전준비의 범위 및 영농목표-사전준비 정합성과 영농성과 간의 관계를 각각 분석한 결과, 지역·품목에 대한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 등 영농진입 의사결정을 포함하여 준비를 폭넓게 수행하는 것과 개인의 영농목표에 부합하는 준비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모두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영농진입 준비에서 '준비의 범위'와 '준비의 맞춤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청년농이 자신의 영농목표와 조건을 바탕으로 지역·품목 등 영농의 핵심 요소를 먼저 결정하고, 그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준비의 내용과 수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영농진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청년농이 이를 자신의 목표와 조건에 맞게 비교·종합하여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정보제공을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예비농 설문조사에서도 67.0%가 영농 관련 정보를 비교·종합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5.5%는 관련 정보가 있더라도 자신의 조건에 맞게 적용하거나 선택하기 어렵다고 응답함.
- 구체적으로는 ① 분산된 기존 정보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연계·가공하고, ② 개인의 조건에 따른 정보의 세분화를 위해 기존 조사의 표본을 보강하며, ③ 현재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의사결정 정보는 추가로 조사·연구·구축할 필요가 있음.

3 청년농 영농진입 특성을 반영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설계

1. 예비농·청년농 영농진입 의사결정 특성[19)]

1.1. 지역·품목 선택요인과 요인별 중요도의 다양성

1.1.1. 지역 선택 시 고려요인과 중요도

가) 지역 선택 시 복수 요인의 종합적 고려

❍ 예비농과 청년농 200명 및 500명을 대상으로, 정착지역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는 요인 22개를 나열하고, 그중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을 최대 5개까지 선택하라는 설문을 수행함.

19) 예비농 조사대상 200명 중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이 50.0%, 영농창업특성화대학 재학생이 27.5%로 농업계 대학 및 창농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 재학생의 비율이 높음. 따라서 예비농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전체 예비농의 특성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설문조사 대상자의 세부 특성은 부록 1을 참조.

❍ 예비농·청년농의 지역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의 선택률을 살펴보면, 예비농과 청년농이 선택한 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위 5개 요인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① 농지 구입 및 임차 가능성(농지 가격 및 공급 규모 고려), ② 주거 확보 가능성(공유 주택 등 포함), ③ 가족, 지인 등 기존 인간관계와의 접근성, ④ 부모, 가족의 농업 기반 존재 여부, ⑤ 지자체 지원정책 수준임.

〈표 3-1〉 예비농·청년농 지역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

단위: %

구분		예비농	청년농
생산 영농 여건	**1. 농지 구입 및 임차 가능성(농지 가격 및 공급 규모 고려)**	**57.5**	**62.4**
	2. 농기계, 공동선별장(APC) 등 농업 관련 공동장비 및 시설 활용 가능성	11.0	9.8
	3. 노동력 확보 가능성	22.0	15.2
	4. 다양한 재배작목 선택 및 생산 가능 여부	17.0	15.0
	5. 물류 및 유통 시설 존재 여부	19.0	10.4
생활 정주 여건	**6. 주거 확보 가능성(공유 주택 등 포함)**	**31.0**	**42.6**
	7. 교통 여건(대중교통, 도로 접근성 등)	24.5	21.2
	8. 의료시설 접근성	11.0	6.2
	9.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19.5	16.0
	10. 자녀 교육 여건	4.5	9.4
	11. 생활비 수준	16.0	11.4
사회 관계 여건	**12. 가족, 지인 등 기존 인간관계와의 접근성**	**29.5**	**32.0**
	13. 고향 또는 기존 연고 여부(초중고 졸업 지역, 아는 사람 정착지 등)	15.5	22.6
	14. 부모, 가족의 농업 기반 존재 여부	**26.0**	**35.0**
	15. 귀농, 귀촌 경험 지역 여부	7.5	6.2
	16. 지역 내 농업인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	19.0	16.4
	17. 귀농, 귀촌인 등 외부인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6.5	4.8
정책 기회 여건	**18. 지자체 지원정책 수준**	**44.0**	**41.2**
	19. 농업 관련 행정, 지원 서비스 이용 편의성	12.0	14.4
	20. 교육, 실습, 멘토링 기회	13.5	13.4
	21. 귀농, 창업 관련 지원기관 존재 여부	13.5	13.8
	22. 향후 겸업 또는 농외소득 기회	9.0	7.8

주: 설문조사는 22개의 요인 중 지역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하는) 요인을 최대 5개까지 응답하는 형태로 수행됨.
자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조사 결과, 5개 미만의 요인을 선택한 예비농의 비율은 38.5%, 청년농의 비율은 42.9%로 나타났으며, 5개 요인을 선택한 예비농 비율은 61.5%, 청년농 비율은 57.1%로 나타남. 이는 예비농과 청년농 모두 지역 선택 시 특정 요인 하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보다, 복수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표 3-2〉 예비농·청년농 지역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 선택 개수

단위: %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 선택 개수	예비농	청년농
1	5.0	4.0
2	5.0	4.4
3	7.5	8.2
4	21.0	26.3
5	61.5	57.1

주: 설문조사는 22개의 요인 중 지역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하는) 요인을 최대 5개까지 응답하는 형태로 수행됨.
자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지역 선택 시 고려요인 조합의 다양성

○ 예비농과 청년농이 지역 선택 시 고려하는 선택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할 때, 고유한 선택요인 조합의 수는 예비농 190개, 청년농 433개로 나타남. 이는 극히 일부 예비농 및 청년농만이 동일한 조합을 선택했음을 나타내며, 대부분의 예비농과 청년농은 지역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의 조합이 제각기 다름을 시사함.

- 실제로 예비농은 183명이, 청년농은 393명이 본인 고유의 지역 선택 시 고려한 요인의 조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3〉 예비농·청년농이 지역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의 조합과 빈도

구분	선택요인의 조합	해당 조합을 선택한 예비농 수
예비농	1	4
	14	3
	1, 12, 13, 14, 16	2
	1, 3, 6, 12, 18	2
	1, 14	2
	1, 3, 6, 18	2
	7, 18, 19, 20, 21	2
	구분	**특정 1개 조합을 선택한 예비농 수**
	선택 빈도가 1개인 조합의 수	183
구분	**선택요인의 조합**	**해당 조합을 선택한 청년농 수**
청년농	1, 6, 12, 18	9
	1	8
	14	7
	1, 6, 12, 13, 14	6
	구분	**특정 1개 조합을 선택한 청년농 수**
	선택 빈도가 3개인 조합의 수	5
	선택 빈도가 2개인 조합의 수	31
	선택 빈도가 1개인 조합의 수	393

주 1) 설문조사는 22개의 요인 중 지역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하는) 요인을 최대 5개까지 응답하는 형태로 수행됨.
2) '선택요인의 조합'에서 제시된 숫자는 〈표 3-1〉에서 각 고려요인에 부여한 번호를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지역 선택 시 고려요인별 중요도 차이

○ 선택률이 상위 5개인 요인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별로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요도는 설문조사 응답자가 선택한 요인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도를 1~5까지 선택하는 형태로 조사함. 값이 5에 가까울수록 해당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의미함. 선택한 요인을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요인에 모두 5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예비농과 청년농 모두에서 가장 높은 선택률을 보인 농지 구입 및 임차 가능성(농지 가격 및 공급 규모 고려)의 중요도는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 예비농은 보통을 선택한 비율이 13.0%, 중요함은 33.0%, 매우 중요함은 53.0%임.
- 청년농은 보통을 선택한 비율이 13.8%, 중요함은 25.6%, 매우 중요함은 58.0%임.

〈표 3-4〉 예비농·청년농 지역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 중 상위 선택요인의 중요도 분포

단위: %

구분		중요도					계
		1	2	3	4	5	
예비농	농지 구입 및 임차 가능성(농지 가격 및 공급 규모 고려)	0.9	0.0	13.0	33.0	53.0	100.0
	주거 확보 가능성(공유 주택 등 포함)	0.0	1.6	25.8	46.8	25.8	100.0
	가족, 지인 등 기존 인간관계와의 접근성	1.7	3.4	20.3	40.7	33.9	100.0
	부모, 가족의 농업 기반 존재 여부	1.9	1.9	13.5	38.5	44.2	100.0
	지자체 지원정책 수준	0.0	1.1	12.5	35.2	51.1	100.0
청년농	농지 구입 및 임차 가능성(농지 가격 및 공급 규모 고려)	1.0	1.6	13.8	25.6	58.0	100.0
	주거 확보 가능성(공유 주택 등 포함)	1.4	2.8	19.7	30.5	45.5	100.0
	가족, 지인 등 기존 인간관계와의 접근성	0.6	3.1	18.1	31.3	46.9	100.0
	부모, 가족의 농업 기반 존재 여부	0.6	3.4	15.4	14.9	65.7	100.0
	지자체 지원정책 수준	0.0	1.5	12.6	28.2	57.8	100.0

주 1) 중요도는 설문조사 응답자가 선택한 요인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도를 1~5까지 선택하는 형태로 조사함. 값이 5로 갈수록 중요도가 더 큼을 의미하며,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선택한 요인의 중요도가 모두 똑같이 매우 중요할 경우, 각 선택요인에 대한 중요도 값이 모두 5로 입력되어 있음.

2)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항목의 합이 10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1.2. 품목 선택 시 고려요인과 중요도

가) 품목 선택 시 복수 요인의 종합적 고려

❍ 예비농과 청년농 200명 및 500명을 대상으로, 품목(재배작목)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는 요인 25개를 나열하고, 그중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을 최대 5개까지 선택해 달라는 설문을 조사함.

❍ 예비농·청년농의 품목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의 선택률을 살펴보면, 예비농과 청년농이 선택한 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위 7개 요인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① 기대수익성, ② 초기 투자 비용(시설 vs 노지), ③ 노동 강도(얼마나 힘든지), ④ 경영비 부담(인건비, 자재비, 난방비 등의 부담이 큰 작목인지 여부), ⑤ 판로 확보 용이성, ⑥ 단일 재배작목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성, ⑦ 재배 기술 습득 및 운영의 난이도임.

〈표 3-5〉 예비농·청년농 품목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

단위: %

구분		예비농	청년농
수익·경제성	**1. 기대수익성**	**65.0**	**60.6**
	2. 단일 재배작목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성	**29.0**	**34.0**
	3. 여러 재배작목 조합을 통한 소득 안정화 가능성	14.0	13.2
	4. 가격 변동성	15.5	13.4
	5. 재배 후 소득 발생까지 걸리는 기간	19.0	18.0
비용·자본	**6. 초기 투자 비용(시설 vs 노지)**	**48.5**	**49.4**
	7. 경영비 부담(인건비, 자재비, 난방비 등의 부담이 큰 작목인지 여부)	**33.5**	**32.4**
	8. 가용 자금 수준 대비 적합한 작목인지 여부	3.0	6.0
	9. 농기계 구입이 필수적인 작목인지 여부	5.5	5.4
노동·운영	**10. 노동 강도(얼마나 힘든지)**	**34.0**	**29.8**
	11. 실제 노동 투입량(연중 작업 기간 등)	16.5	18.2
	12. 해당 지역 내 필요한 시기의 일손 확보 가능성	7.0	7.8

(계속)

구분		예비농	청년농
생산·기술	**13. 재배 기술 습득 및 운영의 난이도**	**24.5**	**29.4**
	14. 해당 지역과의 기후·재배 적합성	9.0	10.6
시장·판로	**15. 판로 확보 용이성**	**29.5**	**32.2**
	16. 유통 및 판매망 접근성(대형 유통망과의 지리적 거리 등)	14.5	15.8
	17. 수요의 안정성	16.0	13.0
	18. 체험 및 직거래 등 6차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	12.0	11.2
지역 네트워크	19. 해당 지역의 주된 재배작목인지 여부	6.0	11.2
	20. 농업인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	8.0	7.6
	21. 기술·자재·정보 접근성	5.0	5.0
리스크	22. 기후 및 재해 위험에 대한 취약성	11.5	9.2
	23. 병해충 관리 난이도	10.0	8.8
개인 적합성	24. 개인의 선호(시설 vs 노지, 단기 vs 장기 등)	9.0	9.4
	25. 노동 투입 시기 및 작업 형태가 원하는 생활 방식과 맞는지 여부	9.0	10.8

자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조사 결과, 5개 미만의 요인을 선택한 예비농의 비율은 25.0%, 청년농의 비율은 20.6%로 나타났으며, 5개 요인을 선택한 예비농 비율은 75.0%, 청년농 비율은 79.4%로 나타남. 이는 지역 선택과 마찬가지로 품목 선택 또한 복수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표 3-6〉 예비농·청년농 품목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 선택 개수

단위: %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 선택 개수	예비농	청년농
1	2.5	2.2
2	3.5	2.6
3	6.0	4.2
4	13.0	11.6
5	75.0	79.4

주: 설문조사는 25개의 요인 중 품목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하는) 요인을 최대 5개까지 응답하는 형태로 수행됨.
자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품목 선택 시 고려요인 조합의 다양성

❍ 예비농과 청년농이 품목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 고유한 선택요인 조합의 수는 예비농 189개, 청년농 452개로 나타남. 즉, 대부분의 예비농과 청년농이 품목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의 조합이 제각기 다름을 알 수 있음.

- 실제로 예비농은 182명이, 청년농은 418명이 본인 고유의 품목 선택 시 고려한 요인의 조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7〉 예비농·청년농이 품목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의 조합과 빈도

구분	선택요인의 조합	해당 조합을 선택한 예비농 수
예비농	1	4
	1, 2, 3, 4, 5	3
	1, 2, 6, 7, 16,	3
	1, 2, 5, 6, 7	2
	1, 4, 6, 7, 10	2
	1, 4, 6, 10, 15	2
	2, 6, 10, 13, 15	2
	구분	**특정 1개 조합을 선택한 예비농 수**
	선택 빈도가 1개인 조합의 수	182
구분	**선택요인의 조합**	**해당 조합을 선택한 청년농 수**
청년농	1, 6, 10, 13, 15	6
	1	5
	1, 2, 5, 6, 7	4
	구분	**특정 1개 조합을 선택한 청년농 수**
	선택 빈도가 3개인 조합의 수	5
	선택 빈도가 2개인 조합의 수	26
	선택 빈도가 1개인 조합의 수	418

주 1) 설문조사는 25개의 요인 중 품목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하는) 요인을 최대 5개까지 응답하는 형태로 수행됨.
2) '선택요인의 조합'에서 제시된 숫자는 〈표 3-5〉에서 각 고려요인에 부여한 번호를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품목 선택 시 고려요인별 중요도 차이

❍ 선택률이 상위 7개인 요인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지역 선택요인과 마찬가지로 응답자별로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20]

○ 예를 들어, 예비농과 청년농 모두에서 가장 높은 선택률을 보인 기대수익성의 중요도는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 예비농은 보통을 선택한 비율이 6.9%, 중요함은 29.2%, 매우 중요함은 63.9%임.
- 청년농은 보통을 선택한 비율이 8.3%, 중요함은 21.8%, 매우 중요함은 68.3%임.

〈표 3-8〉 예비농·청년농 품목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 중 상위 선택요인의 중요도 분포

단위: %

구분		중요도					계
		1	2	3	4	5	
예비농	기대수익성	0.0	0.0	6.9	29.2	63.9	100.0
	단일 재배작목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성	1.7	0.0	6.9	27.6	63.8	100.0
	초기 투자 비용(시설 vs 노지)	0.0	1.0	9.3	32.0	57.7	100.0
	경영비 부담(인건비, 자재비, 난방비 등의 부담이 큰 작목인지 여부)	0.0	1.5	14.9	26.9	56.7	100.0
	노동 강도(얼마나 힘든지)	0.0	0.0	19.1	47.1	33.8	100.0
	재배기술 습득 및 운영의 난이도	0.0	2.0	18.4	46.9	32.7	100.0
	판로 확보 용이성	0.0	0.0	10.2	30.5	59.3	100.0
청년농	기대수익성	0.7	1.0	8.3	21.8	68.3	100.0
	단일 재배작목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성	1.2	1.2	9.4	27.1	61.2	100.0
	초기 투자 비용(시설 vs 노지)	0.0	0.0	13.0	21.1	66.0	100.0
	경영비 부담(인건비, 자재비, 난방비 등의 부담이 큰 작목인지 여부)	0.6	1.9	16.7	22.2	58.6	100.0
	노동 강도(얼마나 힘든지)	0.0	2.7	17.5	27.5	52.4	100.0
	재배기술 습득 및 운영의 난이도	0.0	2.0	13.6	32.7	51.7	100.0
	판로 확보 용이성	0.6	0.0	12.4	24.8	62.1	100.0

주 1) 중요도는 설문조사 응답자가 선택한 요인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도를 1~5까지 선택하는 형태로 조사함. 값이 5로 갈수록 중요도가 더 큼을 의미하며,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선택한 요인의 중요도가 모두 똑같이 매우 중요할 경우, 각 선택 요인에 대한 중요도 값이 모두 5로 입력되어 있음.

2)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항목의 합이 10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 중요도 부여 방식은 지역 선택요인에 대한 중요도 부여 방식과 동일함.

1.1.3. 요약

❍ 예비농과 청년농 설문조사 결과, 지역과 품목 선택 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 존재하기는 하나, 개별 예비농과 청년농이 고려하는 요인의 조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 또한 동일한 고려요인을 선택한 경우에도 해당 요인에 부여하는 중요도에는 개인별 차이가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청년농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가 개별 정보를 단편적으로 제공하기보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다만, 제공된 정보 중 어떤 정보를 실제 지역·품목 선택의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와 각 기준의 적용 우선순위는 청년농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1.2. 지역 특성·영농형태별 영농 초기 자금 및 농지 규모

1.2.1. 정착지역 특성별 초기 자금 및 농지 규모

❍ 정착지역 특성별로 영농진입 당시 초기 자금과 농지 규모를 비교한 결과, 정착지역에 따라 실제 투입된 초기 자금과 확보한 농지 규모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첫째, 영농진입 당시 초기 자금 규모는 도농복합도시가 평균 1억 9,669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군 단위 읍소재지 외 지역 1억 6,127만 원, 군 단위

읍소재지 1억 4,848만 원순으로 나타남.

- 둘째, 농지 규모는 도농복합도시보다 군 지역에서 크게 나타남. 평균 농지 규모는 도농복합도시 1,660평, 군 단위 읍소재지 2,237평, 군 단위 읍소재지 외 지역 3,364평으로 나타남.

〈표 3-9〉 정착지역 특성별 영농 초기 자금 규모 및 농지 규모

단위: 만 원, 평

정착지역 특성	자금 규모			농지 규모		
	평균	중앙값	표본수	평균	중앙값	표본수
도농복합도시	19,669	10,000	272	1,660	877	102
군 단위 읍 소재지	14,848	5,000	66	2,237	1,175	30
군 단위 읍 소재지 외 지역	16,127	10,000	162	3,364	1,000	79

주 1) 자금 규모는 영농진입 당시 본인 자산 규모(범주형)와 대출 규모(범주형) 값을 중앙값으로 환산한 후, 두 변수를 더하여 도출함. 예를 들어, 본인 자산 규모를 5천만 원 미만, 대출 규모를 2억 5천만 원 이상~3억 원 미만으로 응답한 경우, 두 값을 각각 2,500만 원과 2억 7,500만 원으로 간주함. 다만, 마지막 변수인 3억 원 이상과 5억 원 이상은 각각 3억 원과 5억 원을 입력함.

2) 농지 규모는 원자료 값을 사용하였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2.2. 영농형태별 초기 자금 및 농지 규모

❍ 영농형태별로 영농진입 당시 초기 자금과 농지 규모를 비교한 결과, 영농형태에 따라 실제 투입된 초기 자금과 확보한 농지 규모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첫째, 초기 자금 규모는 시설채소가 평균 2억 728만 원, 특용작물이 2억 125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식량작물은 1억 3,042만 원, 논벼는 1억 3,245만 원, 노지채소는 1억 3,659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둘째, 농지 규모는 논벼가 평균 5,873평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시설채소는 1,127평으로 가장 작게 나타남. 식량작물은 3,350평, 과수는 2,360평, 특용작물은 2,005평, 노지채소는 1,794평으로 조사됨.

〈표 3-10〉 영농형태별 영농 초기 자금 규모 및 농지 규모

단위: 만 원, 평

영농형태	자금 규모			농지 규모		
	평균	중앙값	표본수	평균	중앙값	표본수
논벼	13,245	7,500	47	5,873	1,000	21
식량작물	13,042	5,000	60	3,350	1,186	24
시설채소	20,728	15,000	158	1,127	800	55
노지채소	13,659	5,000	41	1,794	1,080	19
과수	18,047	10,000	137	2,360	1,200	69
특용작물	20,125	11,250	40	2,005	605	17

주 1) 자금 규모 도출 방법은 〈표 3-9〉와 동일함.
2) 영농형태는 조사시점의 현재 영농형태를 기준으로 함. 영농형태는 재배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로의 존적인 특성을 가지며, 조사대상 청년농의 영농경력이 5년 이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서는 현재 영농형태를 영농진입 초기 영농형태의 대리변수로 간주하였음.
3) 영농형태 중 '기타'는 제외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상기 결과는 정착지역과 영농형태에 따라 영농에 필요한 농지 규모와 초기 투자비용 등 영농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영농진입 준비과정에서는 지역·품목 등 영농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행되고, 그 선택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농지·자금 등 후속 준비의 내용과 수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다만 활용 가능한 설문자료의 한계로 정착지역은 읍면동 등 세부 지역 단위가 아닌 지역 특성별로, 품목은 개별 재배품목이 아닌 영농형태별로 구분하여 분석함.

- 따라서 분석결과는 특정 지역·품목별로 필요한 농지와 자금 규모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 영농의 핵심 요소인 지역과 품목의 선택에 따라 후속 준비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특성은 예비농 면담조사에서도 확인됨. 면담 대상자들은 농지 규모와 자금 규모를 사전에 독립적으로 확정하기보다 지역·품목 등 영농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함께 조정하는 경향을 보였음.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청년농의 영농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① 개인별 고려요인과 중요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청년농이 필터링 조건과 적용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선택한 지역과 품목을 토대로 필요한 농지·자금 등 후속 준비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2. 지역 및 품목 선택을 위한 지원정보의 구성

2.1. 지역 선택을 위한 지원정보의 구성

2.1.1. 지역 선택을 위한 주요 정보의 검토

❍ 앞서 1.1절에서 살펴본 지역 선택 고려요인 중 예비농의 선택률이 20% 이상인 요인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설정함. 이에 따라 다음 요인에 대한 정보지원 체계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 농지 구입·임차 가능성
- 지자체 지원정책 수준
- 주거 확보 가능성
- 가족·지인 등 기존 인간관계와의 접근성
- 부모·가족의 농업기반 존재 여부
- 교통여건
- 노동력 확보 가능성

❍ 예비농 선택률 20% 이상이라는 기준은 이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진입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의미하지 않음. 다만 이 연구는 청년농의 영농진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기본구조를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연구기간과 가용자료 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게 나타난 정보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함.

-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농 개인의 지역 및 품목 선택 시 고려요인의 조합과 각 요인에 부여하는 중요도는 다양하게 나타남. 이는 선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요인이라도 특정 청년농에게는 지역과 품목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실제 시스템으로 구축·고도화하는 과정에서는 청년농의 다양한 의사결정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선택률이 높다는 것만으로 해당 요인을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필터링 정보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각 요인에 대해 ① 객관적인 정보지표의 구축 가능성, ② 지역 단위에서의 독립적인 적용 가능성, ③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정보제공 시점을 함께 검토하여 필터링 정보로의 활용 여부를 판단함.

2.1.2. 지역 선택 지원정보의 선정 및 활용방식

가) 지역 단위 필터링 정보의 선정

❍ ‘농지 구입·임차 가능성’은 지역별 농지의 매매·임대 물량과 가격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정보 구축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을 적용하여 후보지역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지역 선택을 위한 필터링 정보로 활용함.

❍ ‘주거 확보 가능성’ 역시 지역별 주거 및 빈집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간 여건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필터링 정보로 활용함.

❍ ‘교통여건’은 설문조사에서는 대중교통 및 도로 접근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나, 정보지원체계에서는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서비스 중심지역까지의 접근성을 포괄하는 ‘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함.

- 설문조사에서는 교통여건 외에도 의료시설 접근성,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자녀 교육여건 등을 개별적으로 조사함.
- 이들 정보는 개별 시설의 존재 여부보다는 영농 정착지역에서 필요한 교통·생활서비스를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접근성 정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짐.
- 따라서 관련 요인을 ‘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으로 재구성하여 지역 선택을 위한 필터링 정보로 활용함.

나) 후보 지역 도출 이후 제공하는 추가정보

❍ ‘지자체 지원정책 수준’은 지역별 사업 수나 예산을 단순 비교하여 객관적인 수준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청년농의 연령, 품목, 시설 구축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활용 가능한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

- 예비농 면담에서도 지자체 지원정책은 지역을 처음 탐색하는 기준이라기보다 복수의 후보 지역이 도출된 이후 최종 정착지역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정보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함.
- 따라서 해당 정보는 초기 지역 필터링 정보보다는 후보 지역 도출 이후 사용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추가정보로 활용함.

다) 지역×품목 후보조합 도출 이후 제공하는 추가정보

❍ '노동력 확보 가능성'은 지역과 품목이 결합되어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지역×품목 후보조합이 도출된 이후 추가정보로 제공함.

- 동일한 지역에서도 품목별로 필요한 노동력의 규모와 투입시기가 다르므로, 지역의 노동공급 여건만으로 노동력 확보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후보조합별 품목의 노동수요와 해당 지역의 노동공급 여건을 연계하여 노동력 확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라) 개인여건 정보의 활용 한계와 대안정보

❍ '가족·지인 등 기존 인간관계와의 접근성'과 '부모·가족의 농업기반 존재 여부'는 지역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이므로 일반화된 객관적 정보지표로 구축하기 어려움.

❍ 다만 설문조사 결과는 예비농이 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나 영농기반 등 지역 정착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에 개인의 가족·지인 관계나 부모의 농업기반을 직접 정보화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영농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확보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안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지역 내 청년농·신규농의 수와 비율 등은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지역 단위 정보로 구축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청년농이 해당 지역의 청년농 정착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정보가 실제 농업인 간 관계 형성이나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후보 지역을 축소하기 위한 필터링 정보보다는 후보 지역 도출 이후 제공하는 참고·추가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향후에는 농업인 조직·공동체 활동, 신규 진입농의 네트워크 참여 및 정착 지원 기반 등 실제 관계 형성 여건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보의 구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품목 선택을 위한 지원정보의 구성

2.2.1. 품목 선택을 위한 주요 정보의 검토

❍ 품목 선택 고려요인 중 예비농의 선택률이 20% 이상인 요인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함. 이에 따라 다음 요인에 대한 정보지원체계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 기대수익성
- 초기 투자 비용
- 노동 강도
- 경영비 부담
- 판로 확보 용이성
- 단일 재배작목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성
- 재배기술 습득 및 운영의 난이도

❍ 지역 필터링 정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① 객관적인 정보지표의 구축 가능성, ② 품목 단위에서의 독립적인 적용 가능성, ③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정보제공 시점을 검토하여 품목 필터링 정보로의 활용 여부를 판단함.

2.2.2. 품목 선택 지원정보의 선정 및 활용방식

가) 품목 단위 필터링 정보의 선정

❍ '기대수익성'은 품목 선택 시 가장 높은 정보 수요를 보인 요인으로, 품목별 단위면적당 농업소득을 활용하여 품목 간 수익성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초기 후보 품목 도출을 위한 필터링 정보로 활용함.

❍ '단일 재배작목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성'은 품목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기대수익성과는 별도로, 소득이 연도별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 구성함.

- 이에 최근 연도별 농업소득의 변동 정도를 활용하여 품목별 소득 변동성을 산출하고, 이를 초기 후보 품목도출을 위한 필터링 정보로 활용함.

❍ '노동 강도'는 노동 강도 자체를 지표화하기보다, 현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축 가능한 '월평균 노동투입시간'과 '외부노동 의존도'를 '노동 투입 특성'으로 재구성하여 품목 필터링 정보로 활용함.

- 노동 강도는 농작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체적 부담의 정도를 의미하므로, 이를 객관적인 지표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작업공정 분석과 작업별 신체부담 평가가 필요함. 따라서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만으로 직접적인 지표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면담조사 결과, 청년농이 노동 강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품목에 평상시 어느 정도의 노동이 필요한지, 외부 노동력을 어느 정도 활용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노동의 신체적 강도를 직접 평가하기보다 실제 영농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노동투입 수준과 외부노동 필요 정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함.

나) 후보 품목 도출 이후 제공하는 추가정보

❍ ‘경영비 부담’은 별도의 품목 필터링 정보로 활용하기보다, 후보 품목 도출 이후 경영비의 세부 구성정보를 추가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함.

- 품목의 기대수익성을 나타내는 농업소득은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므로, 경영비는 이미 기대수익성 정보에 반영되어 있음. 따라서 이를 별도의 필터링 정보로 활용하는 경우 정보가 중복될 수 있음.
- 다만 동일한 농업소득 수준이라도 비료비, 농약비, 수도광열비, 고용노동비 등 비용구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보 품목 도출 이후 세부 경영비 정보를 제공하여 품목 간 비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배기술 습득 및 운영의 난이도’는 개인의 영농경험과 기술수준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품목 간에 일률적인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필터링하기 어려운 정보에 해당함.

- 면담조사에서도 청년농은 모든 품목의 재배 난이도를 파악하기보다, 본인이 고려하는 후보 품목 간 재배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초기 품목 필터링 정보로 활용하기보다, 후보 품목 도출 이후 해당 품목의 재배기술 정보와 교육·현장실습·멘토링 등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추가정보로 활용함.

다) 지역×품목 후보조합 도출 이후 제공하는 추가정보

❍ ‘판로 확보 용이성’은 품목 자체의 특성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품목을 어느 지역에서 재배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이므로, 초기 품목 필터링 정보보다는 지역×품목 후보조합이 도출된 이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함.

- 면담조사 결과, 청년농은 주산지에서 영농하는 경우 공판장, 공동선별·공

동출하 조직, 지역 브랜드 등 기존 유통기반을 활용할 수 있어 판로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재배지역에 따라 유통·판매 여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로 확보 용이성을 품목 단위의 독립적인 필터링 정보로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판로 확보 용이성과 노동력 확보 가능성은 지역×품목 조합에 따라 상충할 가능성이 있음.

- 특정 품목의 생산이 집중된 지역은 기존 유통기반을 활용할 수 있어 판로 확보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동일 품목의 노동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지역 내 노동수요 역시 동시에 증가하여 필요한 외부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는 특정 지역 또는 품목의 적합성을 하나의 조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지역과 품목이 결합된 이후 복수의 여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판로 확보 용이성과 노동력 확보 가능성은 지역×품목 후보조합이 도출된 이후 최종 후보를 비교하기 위한 추가정보로 활용함.

라) 초기 투자 비용 정보의 활용과 향후 구축 필요성

❍ ‘초기 투자 비용’은 영농진입 시 정보 수요가 높은 요인이지만,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에 따라 현재 정보 구축 및 활용 가능성에 차이가 있음.

- 초기 투자 비용은 농지 확보 비용과 시설재배 시 추가로 필요한 시설 구축 비용 등으로 구성됨.
- 이 중 농지 확보 비용은 목표소득 달성에 필요한 농지면적과 후보 지역의 농지가격을 연계하여 예상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지역×품목 후보조합과 영농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후속 준비정보로 제공할 수 있음.

❍ 반면, 시설 구축비용은 현 단계에서 객관적인 정보지표를 구축하거나 사용자 맞춤형 비용정보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전문가 면담 결과, 시설 구축비용은 시설의 유형·규모·자재·설비 수준 및 스마트화 정도뿐만 아니라 지역별 기후여건, 부지 및 시공조건, 작기 운영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작물별·시설형태별 표준규격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시설이라도 시공시점과 사용 자재, 시설규모 등에 따라 실제 구축비용의 편차가 커 일관된 면적당 단가를 설정하기 어려움.
- 또한 실제 시설 구축비용은 구체적인 시설 사양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시공업체의 견적을 통해서야 파악할 수 있어, 후보 지역×품목이 도출되더라도 시스템에서 개별 청년농의 예상 시설 구축비용을 산출하여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표 3-11〉 시설 구축비용 표준화의 제약 요인

시설 구축비용 표준화의 제약요인	주요 내용
표준규격 부재	• 작물별·시설형태별 표준 온실 및 필수 설비 규격 부재
지역·영농방식별 차이	• 기후여건, 작기 운영방식, 농업인 요구 수준 등에 따라 시설 사양 상이
시공조건 및 규모별 차이	• 부지여건, 착공시점, 자재·부속품, 시설규모 등에 따라 공사비 상이
실제 계약가격의 변동성	• 보조사업 여부, 자부담 여부 및 업체별 견적 등에 따라 실제 시공비용 상이

자료: 전문가 자문 의견을 정리함.

❍ 그럼에도 초기 투자 비용은 예비농의 48.5%가 품목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등 정보 수요가 높은 영역임. 면담조사에서도 시설 구축비용에 관한 정보의 부족과 접근의 어려움이 확인됨. 따라서 현재 정보 구축의 어려

움을 이유로 정보지원체계에서 제외하기보다는 향후 정보지원체계 고도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정보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3. 지역 및 품목 선택 지원정보의 최종 구성

❍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 및 품목 선택을 위한 지원정보를 ① 필터링 정보와 ② 맞춤형 정보로 구분하여 구성함. 이와 함께 정보 수요는 높으나 현재 객관적인 정보 구축에 한계가 있는 정보는 향후 구축 필요정보로 별도 구분함.

- 이 연구에서 '맞춤형 정보'는 사용자 맞춤형 지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품목 후보조합 도출 이후 해당 후보의 비교·검토와 영농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후속 정보를 의미함.

❍ 필터링 정보는 지역 또는 품목별로 객관적인 지표를 구축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자신의 여건과 선호에 따라 조건을 설정하여 초기 후보 지역 또는 후보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구성함.

- 지역 선택을 위한 필터링 정보는 농지 구입·임차 가능성, 주거 확보 가능성, 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으로 구성함.
- 품목 선택을 위한 필터링 정보는 기대수익성,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성, 노동 투입 특성으로 구성함.
- 청년농은 이들 정보 중 자신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세부 조건과 적용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시스템은 이를 바탕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 지역 또는 후보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함.

❍ 맞춤형 정보는 초기 후보군을 축소하기 위한 조건으로 활용하기보다, 지역·품목 후보가 구체화된 이후 후보 간 비교와 최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로 구성함.

❍ 향후 구축 필요정보는 영농진입 과정에서 정보수요가 높으나 현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구축에 한계가 있는 정보로 구성함.

- 시설 구축비용이 이에 해당하며, 현 단계의 의사결정 지원체계에서는 제외하되 향후 시설 유형·규모·설비 수준 등에 대한 표준화와 실제 구축사례 및 비용자료의 축적을 통해 해당 정보를 우선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3-12〉 지역 및 품목 선택 지원정보의 최종 구성

정보 구분	주요 지원정보 내용	정보의 성격
필터링 정보	• **지역**: 농지 구입 및 임차 가능성, 주거 확보 가능성, 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 • **품목**: 기대수익성,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성, 노동 투입 특성	• 지역 또는 품목별 객관적 지표를 구축하여 사용자 선택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정보
맞춤형 정보 (추가정보)	• **지역**: 지자체 지원정책 • **품목**: 경영비 세부 정보, 재배 기술 및 관련 교육 정보 • **지역×품목**: 노동력 확보 가능성, 판로 확보 용이성	• 후보 도출 이후 지역·품목 및 사용자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
향후 구축 필요 정보	• **지역×품목×시설유형**: 시설 구축비용	• 지역·품목뿐 아니라 시설 유형·규모·설비 수준, 지역별 기후·시공여건 등에 따라 비용 편차가 커 현재 표준화된 정보 구축에 한계가 있는 정보

주: 필터링 정보는 지역 또는 품목별로 객관적인 지표를 구축하여 사용자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군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며, 맞춤형 정보는 후보 도출 이후 지역·품목 조합 및 사용자의 영농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공함. 향후 구축 필요정보는 정보수요는 높으나 현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구축에 한계가 있어 향후 정보지원체계 고도화 과정에서 구축이 필요한 정보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3. 청년농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체계 설계(안)

3.1.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기본구조와 작동원리

❍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청년농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체계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의사결정 순서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의 현재 영농계획 수준과 이미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용자 맞춤형 구조로 설계함.

- 영농진입 단계에서는 사용자에 따라 지역, 품목, 목표소득 등의 결정 정도가 상이하므로, 이미 결정된 사항은 초기조건으로 반영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함.

❍ 지역과 품목은 상호 연계된 의사결정 변수이기 때문에 지역 또는 품목 중 어느 항목에서 탐색을 시작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역×품목 단위의 후보조합으로 연계되는 양방향 탐색구조를 설계함.

- 청년농은 지역 또는 품목 중 자신의 영농계획에서 보다 구체화된 항목을 기준으로 탐색을 시작할 수 있음.
- 지역과 품목의 탐색 과정에서는 청년농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필터링 정보를 선택하고 세부 조건과 적용 우선순위를 직접 설정하며, 시스템은 이를 바탕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군을 단계적으로 축소함.
- 이때 필터링 정보의 세부지표는 의사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조건과 사용자의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선택조건으로 구분하여 적용함.[21]

---

21) 여기서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의 구분은 사용자가 지역 및 품목 선택요인 중 필요한 필터링 정보를 선택한 이후, 해당 필터링 정보의 세부지표를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한다는 의미임. 즉, ① 사용자가 여러 지역·품목 선택요인 중 적용할 필터링 정보를 선택 →

- 최종적으로는 지역과 품목을 결합한 후보조합을 기준으로 영농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설계함.

❍ 지역×품목 후보조합이 도출된 이후에는 청년농의 최소 목표소득과 품목별 농업소득을 연계하여 필요한 재배면적을 산출하고, 후보 지역의 농지가격을 적용하여 농지 확보비용을 제시하는 등 선택 결과를 실제 영농규모와 필요자원으로 구체화함.

❍ 이후에는 지자체 지원정책, 노동력 확보 관련 정보, 경영비 세부정보, 재배기술 및 교육정보, 판로 관련 정보 등 후보별 맞춤형 영농준비 정보를 제공하여 최종적인 비교·검토와 영농준비를 지원함.

❍ 마지막으로 도출된 후보조합이 사용자의 기대나 실제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선택을 확정적인 결과로 간주하지 않고, 선택조건을 수정하여 지역·품목을 다시 탐색하거나 다른 후보조합을 선택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재탐색 구조를 적용함.

❍ 이상의 설계 방향에 따라 청년농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체계는 ① 사용자 진단 → ② 정착 지역 탐색 → ③ 재배 품목 탐색 → ④ 지역×품목 후보조합 도출 및 구체화 → ⑤ (맞춤형) 영농준비 정보 제공의 5단계로 구성함.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영농계획 수준과 여건에 따라 지역과 품목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실제 영농계획과 준비로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과 품목은 상호 연계된 의사결정 변수이며, 지역×품목 기반 DB를 토대로 탐색이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필터링 조건과

② 선택한 필터링 정보에 포함된 세부지표 중 필수적으로 적용할 조건과 선택적으로 적용할 조건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설정함.

적용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경우 지역→품목 또는 품목→지역 중 어느 방향으로 탐색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동일한 지역×품목 후보조합이 도출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탐색경로로 지역→품목의 순서를 제시함.
- 지역-품목 연계 기반 DB의 구축 방식은 4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함.

3.2. 의사결정 단계별 정보지원 방식

3.2.1. 1단계: 사용자 현 상황 진단

❍ 1단계에서는 사용자의 현재 영농계획 수준을 진단하고, 지역·품목·목표소득 등 주요 의사결정 항목의 결정 여부를 확인함.

- 지역과 품목은 각각 '결정됨', '후보 있음', '미결정' 등으로 구분하여 현재의 결정 상태를 파악하고, 이미 결정된 사항은 이후 탐색과정의 초기조건으로 활용함.
- 목표소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값을 이후 필요 재배면적 및 농지 확보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함.
- 이를 통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하고, 사용자가 지역 또는 품목 중 어느 항목에서 탐색을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함.

3.2.2. 2·3단계: 지역·품목 탐색

❍ 2·3단계에서는 사용자의 결정 상태에 따라 지역 또는 품목에 대한 필터링 조건을 적용하여 후보군을 단계적으로 축소함.

- 다만 해당 정보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 또는 품목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하지 않고, 관련 정보가 없음을 별도로 표시한 상태에서 후보군에 유지하도록 함.
- 예를 들어 지역×품목 기준 DB에는 실제 재배가 확인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품목별 농업소득 정보가 구축된 품목은 일부에 한함. 따라서 농업소득 정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품목을 후보에서 제외하기보다, '농업소득 정보 없음'으로 표시하여 청년농이 다른 가용정보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현재 구축된 정보의 범위에 따라 후보가 임의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가용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탐색의 경우 농지 구입·임차 가능성, 주거 확보 가능성, 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 가운데 사용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각 항목의 세부 기준과 적용 우선순위를 설정함.

- 예를 들어 농지 구입·임차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최대 농지 가격, 최소 매물 수 등의 조건을 설정하고, 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는 경우 주요 교통거점까지의 이동시간 등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

❍ 품목 탐색의 경우 기대수익성,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성, 노동 투입 특성 가운데 사용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세부 기준과 적용 우선순위를 설정함.

- 예를 들어 기대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10a당 최소 농업소득을 설정하고, 노동 투입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 월평균 노동투입 수준이나 외부노동 의존도 등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

❍ 사용자가 필터링 정보의 의미와 활용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 기준, 기준연도·기준시점 및 적용 지역단위 등을 함께 표시함.

- 예를 들어 농지가격은 과거 실거래자료를 이용한 값인지, 농지 물량은 현재 농지은행에 게시된 매물인지 등 각 정보가 의미하는 범위를 명확히 표시함.
- 또한 거래자료에는 산출기간과 거래건수, 표본조사 자료에는 조사연도와 표본 수 등을 함께 제시하여 이용자가 정보의 대표성과 활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시스템은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을 적용하여 후보 지역 또는 후보품목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며, 이를 통해 개인별로 상이한 고려요인과 우선순위가 실제 탐색 과정에 반영되도록 함.

3.2.3. 4단계: 지역×품목 후보조합 도출 및 구체화

❍ 4단계에서는 지역 및 품목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품목 후보조합을 도출하고, 후보별 영농규모와 필요자원을 구체화함.

- 품목별 단위면적당 농업소득을 활용하여 최소 목표소득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배면적을 산출하고, 후보 지역의 농지가격을 연계하여 예상 농지 구입·임차비용을 제시함.
- 필요 재배면적과 농지 확보비용은 하나의 확정값만 제시하기보다 활용자료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후보 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지역×품목 후보조합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조합을 선택할 경우 어느 정도의 농지와 자금이 필요한지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함.

3.2.4. 5단계: 맞춤형 영농준비 정보 연계 및 제공

○ 5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하거나 비교하고 있는 지역×품목 후보조합을 기준으로 실제 영농진입과 준비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

- 지역 관련 정보로는 지자체 지원정책 등을 제공함.
- 품목 관련 정보로는 경영비 세부정보와 재배기술 및 관련 교육 정보 등을 제공함.
- 노동력 확보 가능성과 판로 확보 용이성은 지역과 품목의 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품목 조합을 기준으로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함.

○ 이 단계의 정보는 도출된 후보조합이 실제 영농진입에 적합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준비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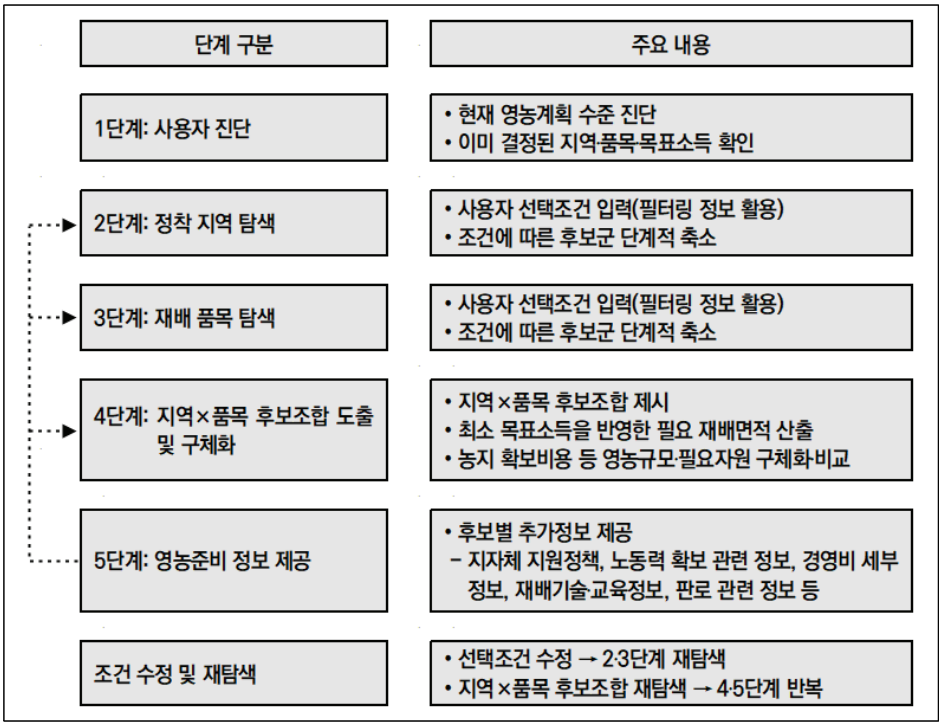
○ 특히 여러 기관과 자료에 분산되어 있는 지역·품목 관련 정보를 후보조합을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선택한 후보에 필요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다시 탐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3.2.5. 조건 수정 및 재탐색

○ 시스템에서 도출된 후보조합과 맞춤형 정보가 사용자의 기대나 실제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역·품목의 선택조건이나 적용 우선순위를 수정하여 후보군을 재탐색하거나 다른 지역×품목 후보조합을 선택하여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이를 통해 사용자가 조건과 결과를 반복적으로 비교·조정하면서 자신의 영농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

〈그림 3-1〉 청년농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의 작동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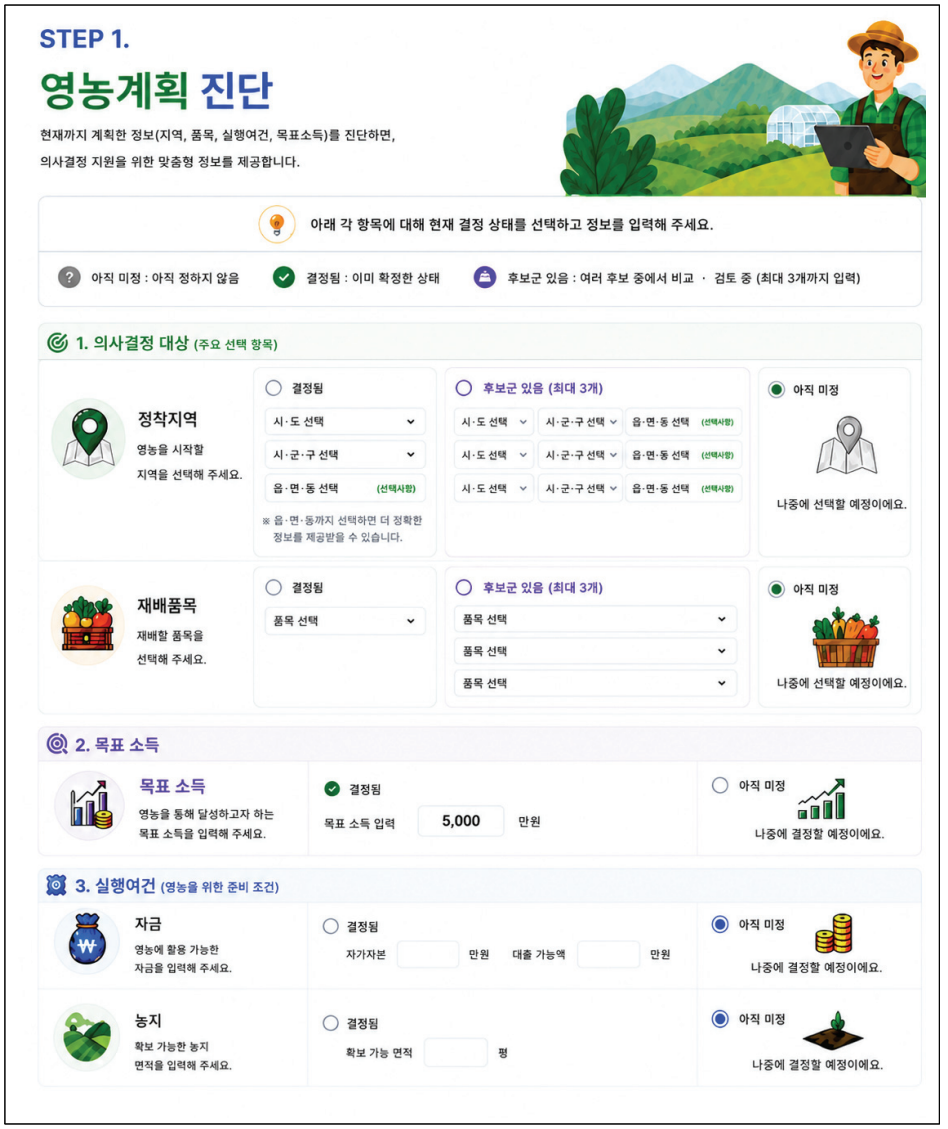


주: 2·3단계는 순서를 바꾸어도 무방함.
자료: 저자 작성.

3.3. 의사결정 지원체계 화면 구성 예시

○ 〈그림 3-1〉의 작동원리 및 의사결정 단계별 정보지원 방식을 토대로 구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화면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음.

〈그림 3-2〉 의사결정 지원체계 화면 구성 예시: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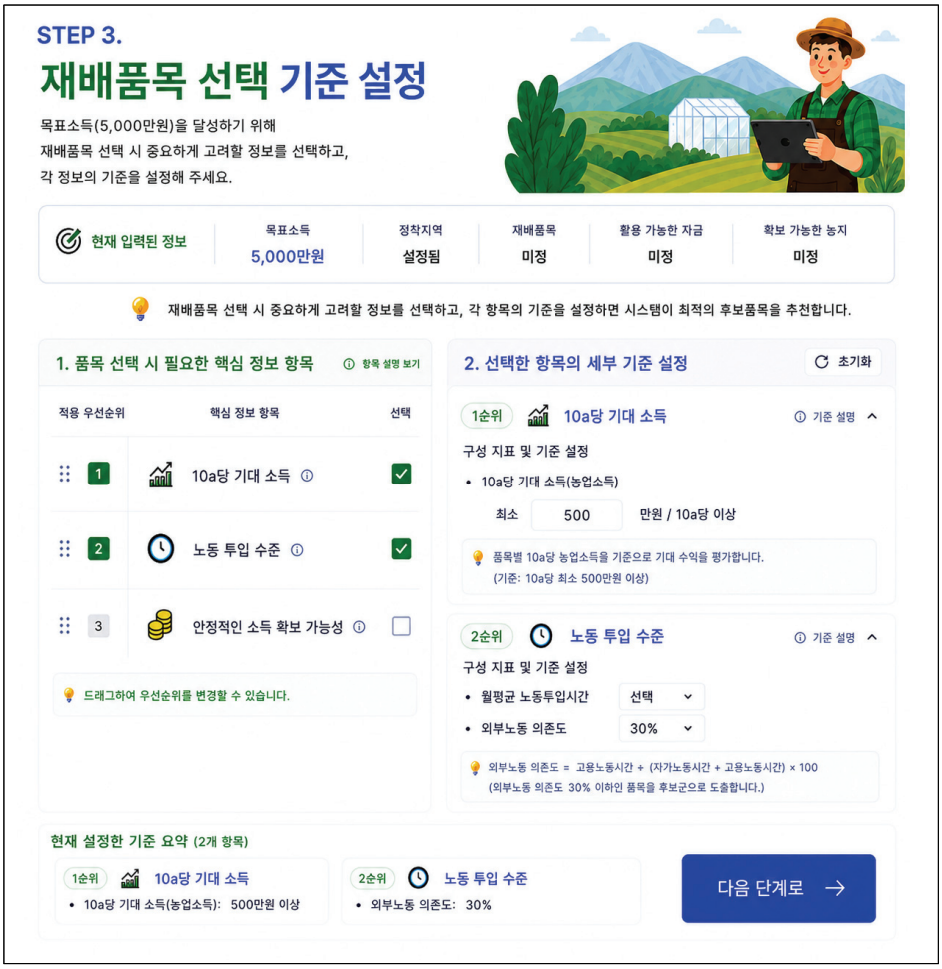
자료: OpenAI(2026)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3〉 의사결정 지원체계 화면 구성 예시: 2단계



자료: OpenAI(2026)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4〉 의사결정 지원체계 화면 구성 예시: 3단계



자료: OpenAI(2026)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5〉 의사결정 지원체계 화면 구성 예시: 4단계



자료: OpenAI(2026)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6〉 의사결정 지원체계 화면 구성 예시: 5단계



자료: OpenAI(2026)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청년농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1. 정보지표 구축의 기본방향

○ 제3장에서는 청년농의 영농진입 의사결정 특성과 지역·품목 선택 시 주요 고려요인을 바탕으로 의사결정 단계별로 필요한 핵심 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설계함.

○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핵심 정보를 실제 의사결정 지원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정보지표로 구체화하고, 활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표의 구축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 다만, 의사결정 지원에 필요한 정보는 자료의 구축·갱신 방식과 이용 가능성이 상이하므로, 모든 정보를 별도의 DB로 직접 구축하기보다 정보의 특성에 따라 ①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구축하는 방식, ② 기존 공공정보 또는 외

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식, ③ 현재 자료의 제약으로 추가적인 자료 구축이 필요한 방식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2. 지역-품목 연계 기반 DB 구축

2.1. 구축 목적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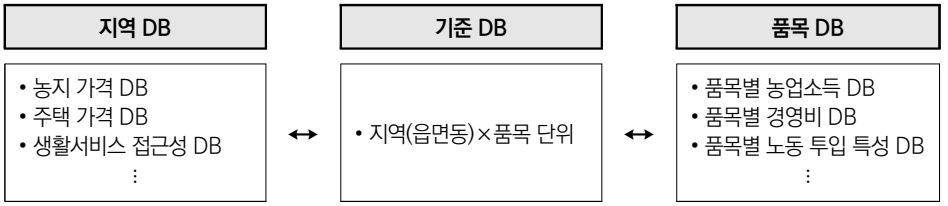
❍ 청년농의 영농진입 의사결정에서는 지역과 품목을 각각 탐색·선택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품목을 결합한 지역×품목 후보조합이 도출되어야 함.

- 청년농이 입력한 지역 또는 품목 선택조건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재배가 확인된 지역×품목 조합을 기준으로 후보군을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지역과 품목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계된 상태에서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품목 기반 DB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 및 품목 관련 정보를 연결하는 기준 DB로 활용함.

- 지역×품목 기반 DB에 농지 가격, 주택 가격, 생활서비스 접근성 등 지역 단위 DB와 품목별 농업소득, 경영비, 노동 투입 특성 등 품목 단위 DB를 연계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

〈그림 4-1〉 지역×품목 기반 정보 DB 연계 구조



자료: 저자 작성.

2.2. 지역-품목 연계 DB 구축 방법

2.2.1. 활용자료 선정

❍ 지역-품목 연계 DB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함.

-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는 동일 농가를 가구키값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농가별 재배작목과 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정보를 함께 제공함.
- 따라서 농가 단위의 재배작목과 지역 정보를 연계하여 '지역(읍면동)×품목' 단위의 실제 재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지역-품목 연계 DB 구축에 활용도가 높은 자료로 판단함.

❍ 지역과 품목을 연계할 수 있는 유사 자료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토양환경지도 등이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림어업총조사에 비해 정보가 상대적으로 자주 갱신되므로 최신의 지역별 재배품목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해당 원자료의 이용이 어려워 실제 지역과 품목의 연계 가능성과 자료 활용 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어려웠음.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용 가능한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지역-품목 연계 DB의

구축 가능성을 우선 검토함.

- 다만, 충청남도 데이터포털 올담의 도 내 농업환경분석[22]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계하여 읍면동 단위의 작물현황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충청남도 담당자 전화조사, 2026. 7. 20.). 따라서 향후 실제 청년농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정보의 갱신 주기를 고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토양환경지도는 토성, 배수등급, 자갈 함량 등의 토양특성과 환경요인에 따라 토양을 작물의 최적지,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로 구분하여 '지역(읍면동)×작물(100개)' 정보인 작물의 토양적성등급 정보를 제공함.

- 그러나 이 연구는 토양조건상 재배가 가능한 작물을 판별하는 것보다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 품목을 바탕으로 영농진입 후보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역-품목 연계 기반 DB에는 실제 재배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함.
- 토양적성등급은 향후 지역-품목 후보조합이 도출된 이후 해당 조합의 토양 재배 적합성을 추가로 확인하는 보조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2.2.2. 원자료 전처리 및 분석대상 설정

❍ 농림어업총조사의 가구사항, 작물 및 가축 관련 원자료를 연계하고, 지역-품목 DB 구축 목적에 부합하도록 분석대상을 단계적으로 정제함.

---

22) 충청남도데이터포털 올담(https://alldam.chungnam.go.kr/index.chungnam?menuCd=DOM_000000207010000000), 검색일: 2026. 7. 20.

❍ 먼저 비공개 처리된 자료와 분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함.

- 조사에 응답한 농가 수가 적어 개별 농가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데이터처의 마스킹 기준에 따라 해당 정보가 '***'으로 제공됨. 이에 비공개 처리된 농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함(국가데이터처 농어업통계과 농림어업총조사 담당자 전화조사, 2026. 8. 4.).
- 또한 담당자 확인을 거쳐 시군구 작물정보를 제외함.
- 축산의 경우 이 연구의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품목코드가 가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함.
- 이와 함께 품목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품목 재배농가를 제외함.

❍ 특히 농림어업총조사의 '작물 및 가축' 원자료에 포함된 행정구역은 농가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이므로 실제 영농지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이 연구에서는 거주지역과 영농지역이 동일한 농가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함.

- 이 연구의 지역-품목 연계 DB는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가구사항 정보와 연계하여 거주지역과 영농지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
- 전체 농가 중 거주지역과 영농지역이 동일한 농가는 801,642농가로 77.4%였으며, 비공개 자료, 시군구 작물, 축산 및 '기타' 품목 등에 해당하는 농가를 제외하여 최종 769,689농가의 재배작목 정보를 DB 구축에 활용함.

2.2.3. 지역-품목 연계 DB 구축

❍ 정제된 농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시도×시군구×읍면동×품목(재배작목) 단위로 재배정보를 집계하여 지역-품목 연계 DB를 구축함.

❍ 최종적으로 17개 시도, 249개 시군구, 2,935개 읍면동 및 118개 작목을 대상으로 총 101,647개의 지역×품목 조합정보를 구축함.

- 이 중 9개 광역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9개 도, 175개 시군구, 2,246개 읍면동 및 118개 작목을 대상으로 총 89,846개의 지역×품목 조합정보가 구축됨.
- 다만, 구축된 DB에 포함된 시군구 및 읍면동 수는 전체 행정구역 수보다 적음. 전국을 기준으로 전체 268개 시군구 중 249개, 5,067개 읍면동 중 2,935개가 DB에 포함되었으며, 9개 광역도의 경우 전체 192개 시군구 중 175개, 3,544개 읍면동 중 2,246개가 포함됨.
- 이는 전체 행정구역에 품목을 임의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실제 재배가 확인되고 앞서 설정한 자료 정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의 지역과 품목을 기준으로 DB를 구축하였기 때문임. 이에 따라 농가 또는 재배작목이 확인되지 않거나, 거주지역과 영농지역의 불일치 등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만 존재하는 지역은 DB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본 DB는 전국의 모든 행정구역을 포괄하는 DB라기보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기준으로 실제 재배가 확인된 지역-품목 조합을 중심으로 구축한 기반 DB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구축된 DB를 활용하는 경우, 지역 선택 기준을 적용하여 후보 지역을 축소한 후, 해당 후보 지역에서 실제 재배가 확인된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 선택 기준을 적용함.

〈표 4-1〉 지역-품목 연계 DB의 행정구역별 구축 범위

단위: 개

구분	전국		광역도	
	전체 행정구역 수	DB 구축 지역 수	전체 행정구역 수	DB 구축 지역 수
시도	17	17	9	9
시군구	268	249	192	175
읍면동	5,067	2,935	3,544	2,246

주: 행정구역 수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법정동 코드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 이전 법정동 코드를 적용함.
자료: 저자 작성.

3. 지역 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지표 구축

3.1. 농지 구입 및 임차 가능성

3.1.1. 지표 정의

○ 농지 구입 및 임차 가능성은 영농을 희망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농지를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설정함.

○ 농지 확보 가능성은 가격 수준뿐만 아니라 현재 확보가 가능한 물량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격과 물량 정보를 동시에 제공함.

3.1.2. 구성 지표

○ 구성 지표는 총 4개로, 농지 매매 가격, 농지 매매 물량, 농지 임대 가격, 농지 임대 물량으로 구성함.

〈표 4-2〉 농지 구입 및 임차 가능성 구성 지표

구성 지표	설명
농지 매매 가격	• 읍면동 단위 평당 농지 매매 가격: 읍면동 단위 평당 농지 매매 가격(최근 1년 중앙값)
농지 매매 물량	• 읍면동 단위 농지 매매 건수: 읍면동 단위 현재 매도 매물 건수
농지 임대 가격	• 읍면동 단위 평당 농지 임대 가격: 읍면동 단위 평당 농지 임대 가격(최근 1년 중앙값)
농지 임대 물량	• 읍면동 단위 농지 임대 건수: 읍면동 단위 현재 임대 매물 건수

자료: 저자 작성.

3.1.3. 지표 산출 기준

○ 정보 구축 단위

- 농지 가격 및 물량 지표는 지역×품목 연계 DB의 지역 기본단위에 맞추어 읍면동 단위로 구축함.

○ 농지 매매 및 임대 가격

- 농지 매매 및 임대 가격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충분한 거래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의 실거래가격을 활용함.
- 실거래가격은 실제 계약이 성사된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반면, 현재 매물의 희망가격은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지역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정보로 실거래가격을 활용함.
- 농지가격은 필지의 위치, 형상, 도로 접근성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므로, 평균보다 극단값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중앙값을 활용함.

○ 농지 매매 및 임대 물량

- 농지 매매 및 임대 물량은 현재 게시된 매매 및 임대 매물 건수를 활용함.
- 최근 거래건수는 과거 시장의 거래활동을 보여주는 정보인 반면, 현재 게

시된 매물은 영농진입자가 현재 확보 가능한 농지의 공급현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므로 현재 매매 및 임대 매물 건수를 활용함.

3.1.4. 자료 활용 및 DB 구축

가) 농지 매매 가격 DB 구축

❍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자료를 공개하고 있음.[23)]
- 계약일 기준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전국 토지 거래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 DB 구축 방법

- 최근 1년간(2025. 6. 25.~2026. 6. 24., 계약일 기준) 거래된 토지 중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자료를 추출함.
- 계약이 해제된 거래와 공동지분 거래는 자료 구축 대상에서 제외함.
- 거래금액과 거래면적을 이용하여 평당 매매 실거래가격을 산출함.
- 실거래자료의 주소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법정동 코드[24)] 및 주소 정보를 매칭하여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 코드를 추출함.
- 읍면동별 평당 매매 실거래가격의 중앙값을 산출하여 최근 1년간 읍면동 단위 농지 매매가격 DB를 구축함.[25)]

---

2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함.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은 이러한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구축·운영되며,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24)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기 이전 법정동 코드를 사용함.

❍ DB 시범 구축 결과

- 9개 광역자치도를 대상으로 정보를 시범 구축한 결과, 농지 실거래가 DB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읍면동 단위의 법정동 코드는 3,544개임.
- 이 중 최근 1년간 해당 지목의 농지 매매 실거래가 확인된 읍면동은 논 2,349개(66.3%), 밭 2,494개(70.4%), 과수원 611개(17.2%)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 농지 매매가격 정보를 구축함.

나) 농지 임대 가격 및 매매·임대 물량 DB 구축방안

❍ 자료 출처

- 농지은행 포털 '농지구하기'는 농지은행, 농협, 농지직거래장터 매물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함.
- 시스템 운영자 확인 결과(2026. 8. 5.), 현재 게시 중인 매물뿐만 아니라 과거 게시자료도 DB로 보유하고 있으며, 자료 이용 목적과 제공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자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25)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리 단위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어 하나의 읍면동 내에 여러 리의 실거래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

〈그림 4-2〉 농지은행 농지구하기: 충청남도 청양군 검색 결과



구분	소재지	면적	희망가
	목면 본의리 163-3 외 3	3,989 ㎡	1,000,000 원
	목면 본의리 163-3	1,335 ㎡	400,000 원
임대	목면 본의리 211-0	469 ㎡	100,000 원
	목면 본의리 213-0	1,038 ㎡	200,000 원
	목면 본의리 11-1	1,147 ㎡	300,000 원
매도	장평면 관현리 659-14	1,497 ㎡	47,913,600 원
임대	비봉면 양사리 366-1	1,255 ㎡	200,000 원

자료: 농지은행(https://www.fbo.or.kr/index.do), 검색일: 2026. 8. 5.

❍ DB 구축 가능성

- 현재 농지은행에 게시된 자료에는 매물의 소재지, 면적, 희망가격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계약이 완료된 매매·임대 DB에는 거래 농지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읍면동 단위의 농지 임대가격 및 매매·임대 물량 정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임대가격은 계약이 완료된 매도·임대 DB에서 임대 거래를 추출한 후 면적과 실제 임대가격을 이용하여 평당 임대가격을 산출하고, 읍면동별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매매·임대 물량은 현재 게시 중인 매물을 매도와 임대로 구분하여 읍면동별 매물 건수를 산출함으로써 현재 농지 확보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및 활용 가능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승인통계인 '농지임차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농지임차료 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 정보 중 임차농지이면서 실제 지목이 논·밭인 농지를 조사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분석한 자료임.[26]
- 다만, 현재 공개되는 농지임차료 정보는 진흥지역 여부 및 광역자치도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읍면동 단위의 농지 임대가격 정보로 직접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향후 농지임차료 정보의 원자료 활용이 가능할 경우, 농지은행의 매물정보와 함께 활용하여 읍면동 단위 농지 임대가격 정보의 보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3.1.5. 시스템 적용 방식

❍ 청년농은 전체 지역에서 후보 지역을 좁히기 위한 필터링 조건으로 희망하는 농지 확보 방식, 농지 유형, 최대 지불 가능 가격 및 최소 매물 건수를 직접 입력함.

- 농지 확보 방식: 구입 또는 임차
- 농지 유형: 논, 밭, 과수원, 또는 미정
- 최대 지불 가능 가격: (예시) 평당 15만 원
- 최소 매물 건수: (예시) 3개

---

26)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s://www.fbo.or.kr/fmtd/flri/FlriList.do?menuId=060070), 검색일: 2026. 8. 5.

❍ 시스템은 청년농이 입력한 조건을 읍면동별 농지가격 및 현재 매매·임대 물량 정보와 비교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후보 지역으로 도출함. 이를 통해 청년농은 전체 지역에서 농지 확보 여건이 자신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탐색 범위를 축소할 수 있음.

❍ 최종 지역-품목 후보조합이 도출된 이후에는 해당 품목의 단위면적당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목표 농업소득 달성에 필요한 재배면적을 산출하고, 해당 지역의 농지가격을 적용하여 예상 농지 구입비 또는 임차비를 제공함.

3.2. 주거 확보 가능성

3.2.1. 지표 정의

❍ 주거 확보 가능성은 청년농이 영농 정착을 희망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 가능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

- 농촌지역의 주거 확보 가능성은 단순히 주택 재고가 많은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주택시장에서 매매·임대 거래가 이루어지는지와 주택 가격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거 확보 가능성은 지역별 주택 매매·임대 가격과 거래량 정보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시장을 통한 주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청년농촌보금자리 등 정책적 주거지원 수단은 후보 지역 도출 이후 추가정보로 제공함.

3.2.2. 구성 지표

○ 구성 지표는 총 6개로, 주택 매매 가격, 주택 매매 건수, 주택 전세 가격, 주택 전세 건수, 주택 월세 가격, 주택 월세 건수로 구성함.

- 주택 확보 가능성 측면에서 주택 공급 현황은 현재 시장에 등록된 매물 건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나, 읍면동 단위의 전국 주택 매물정보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공공 DB가 부재함.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실제 매매, 전세, 월세 거래 건수를 활용함.
- 최근 1년간 거래건수는 현재 시장에 등록된 매물량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해당 지역에서 실제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표 4-3〉 주택 확보 가능성 구성 지표

구성 지표	설명
주택 매매 가격	• 읍면동 단위 주택 매매 가격: 읍면동 단위 최근 1년 주택 매매 실거래가의 중앙값
주택 매매 건수	• 읍면동 단위 주택 매매 건수: 읍면동 단위 최근 1년 주택 매매 거래 건수
주택 전세 가격	• 읍면동 단위 주택 전세 가격: 읍면동 단위 최근 1년 전세보증금의 중앙값
주택 전세 건수	• 읍면동 단위 주택 전세 건수: 읍면동 단위 최근 1년 주택 전세 거래 건수
주택 월세 가격	• 읍면동 단위 주택 월세 가격: 읍면동 단위 최근 1년 월세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중앙값
주택 월세 건수	• 읍면동 단위 주택 월세 건수: 읍면동 단위 최근 1년 주택 월세 거래 건수

자료: 저자 작성.

3.2.3. 지표 산출 기준

○ 정보 구축 단위

- 주택 거래 및 가격정보는 지역-품목 연계 DB의 지역 기본단위에 맞추어 읍면동 단위로 구축함.

❍ 주택 및 거래 유형

- 주택 유형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로 구분함.
- 거래 유형은 매매, 전세, 월세로 구분함.
- 주택 유형과 거래 유형을 구분하여 읍면동별 거래 건수 및 가격정보를 산출함.

❍ 정보 산출기간

- 최근 1년간의 실거래자료를 활용하여 거래 건수 및 가격정보를 산출함.

❍ 가격 산출 기준

- 매매가격은 매매 실거래가격, 전세가격은 전세보증금, 월세가격은 월세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 읍면동별 가격의 대표값은 중앙값을 적용함.

3.2.4. 자료 활용 및 DB 구축

가)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활용함.

- 활용 정보: 소재지, 거래금액, 보증금, 월 임대료, 면적 등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는 실제 신고된 주택 거래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읍면동별 최근 주택 거래 건수 및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나) DB 구축 방법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1년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의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확보함.

❍ 개별 거래자료의 소재지 정보를 행정구역 코드와 연계하여 읍면동 단위로 통합함.

❍ 주택 유형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읍면동별 거래 건수와 가격정보를 산출함.

- 매매: 읍면동별 최근 1년간 거래 건수 및 매매 실거래가격 중앙값
- 전세: 읍면동별 최근 1년간 거래 건수 및 전세보증금 중앙값
- 월세: 읍면동별 최근 1년간 거래 건수, 월세보증금과 월 임대료 중앙값

❍ 최종적으로 읍면동×주택유형×거래유형을 기준으로 주택 거래 건수 및 가격정보를 연계한 DB를 구축함.

다) DB 시범 구축 결과

❍ 9개 광역도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DB를 시범 구축함. 9개 광역도의 읍면동 단위 법정동 코드는 총 3,544개임.

〈표 4-4〉 주택 유형 및 거래 유형별 실거래정보 확인 읍면동 수

단위: 개

주택 유형	매매	전세	월세
아파트	1,733	1,494	1,643
연립	1,178	716	1,023
다세대	1,350	930	1,287
단독	2,791	1,615	2,285
다가구	951	1,253	1,823
오피스텔	624	543	736

주: 각 수치는 2025. 6. 25.~2026. 6. 24. 기간 중 해당 주택 유형 및 거래 유형의 실거래정보가 확인된 읍면동 수임(계약일 기준).
자료: 저자 작성.

❍ 시범 구축 결과, 주택 유형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실거래정보가 확인되는 지역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지역별 주택 거래 여부와 가격수준을 파악하고 청년농의 주거조건에 부합하는 후보 지역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주택 유형별 매매·전세·월세 실거래정보가 확인되는 지역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필터링 정보의 세부지표를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자료의 제약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주택 유형을 선택조건으로 설정하여 사용자가 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주택 유형의 실거래정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을 후보에서 제외하지 않고 다른 가용한 주거 실거래정보를 활용하여 후보 지역을 탐색할 수 있음.

❍ 다만, 이 연구에서 활용한 최근 1년간 주택 거래건수는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주택 거래가 이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실제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시에는 부동산 매물정보 등과 연계하여 읍면동별 현재 매매·전세·월세 매물 건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구축·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2.5. 시스템 적용 방식

❍ 청년농은 지역 후보군을 좁히기 위해 희망하는 주택 유형과 확보 형태를 선택하고, 부담 가능한 주거비 수준을 입력함.

- 주거 형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 확보 형태: 매매, 전세, 월세

- 매매 선택 시: 최대 주택 매입가격, 최근 1년 최소 매매건수
- 전세 선택 시: 최대 전세보증금, 최근 1년 최소 전세건수
- 월세 선택 시: 최대 월 임대료 및 보증금, 최근 1년 최소 월세건수

❍ 시스템은 청년농이 선택한 주택 유형 및 확보 형태에 해당하는 최근 1년간 거래건수와 가격정보를 동시에 적용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 지역을 도출함.

- (예시) 아파트 매매 선택+최대 매입가격 1억 5천만 원+최근 1년 최소 거래건수 3건 → 최근 1년간 아파트 매매가 3건 이상 존재하면서 매매가격 중앙값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지역
- (예시) 단독주택 월세 선택+최대 월세보증금 500만 원+월세 50만 원+최근 1년 최소 거래건수 3건 → 최근 1년간 단독주택 월세거래가 3건 이상 존재하면서 월세보증금과 월 임대료 중앙값이 각각 500만 원 및 50만 원 이하인 지역

❍ 주거조건을 충족하는 후보 지역이 도출된 이후에는 청년농촌보금자리 등 해당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적 주거지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

- 청년농촌보금자리가 조성·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보금자리 위치, 공급규모,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제공함.
- 이를 통해 일반 주택시장을 통한 주거 확보 가능성과 함께 정책적 주거지원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정착지역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함.

3.3. 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

3.3.1. 지표 정의

○ 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은 청년농이 영농 및 농촌생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서비스가 집적된 중심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

- 청년농의 정착지역 선택에서 교통여건은 농산물 출하·유통, 영농자재 구입 등을 위한 외부지역 이동뿐만 아니라 교육·의료·복지·문화·상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과도 밀접하게 관련됨.
- 특히 농촌지역은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생활서비스가 개별 읍면 내에 충분히 갖추어지기 어려우므로, 해당 지역 내부의 시설 보유 여부만으로 정주여건을 판단하기보다 필요한 생활서비스가 집적된 인근 중심지역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개별 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의 수를 각각 필터링 지표로 구축하기보다, 주요 교통거점 및 생활서비스가 집적된 인근 중심지역까지의 실제 차량 이동시간을 활용하여 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파악함.
- 다만, 인근 중심지역까지의 접근성은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개별 생활서비스의 수준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청년농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함.

3.3.2. 구성 지표

○ 청년농의 외부 지역 이동 및 생활권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함.

〈표 4-5〉 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구성 지표

구성 지표	설명
고속도로 IC까지 이동시간	• 광역 도로망을 통한 외부지역 접근성
KTX역까지 이동시간	• 주요 도시 간 광역교통 접근성
인근 생활서비스 중심지역까지 이동시간	• 생활서비스 이용을 위한 도시 접근성

자료: 저자 작성.

3.3.3. 지표 산출 기준

❍ 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은 해당 지역에서 주요 교통거점 및 생활서비스 중심지역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

- 고속도로 IC 접근성: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IC까지의 차량 이동시간
- KTX역 접근성: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KTX 정차역까지의 차량 이동시간
- 생활서비스 중심지역 접근성: 해당 지역에서 교육·의료·복지·문화·상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요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 집적된 인근 중심지역까지의 차량 이동시간

❍ 생활서비스 중심지역은 교육·의료·문화·복지 등 주요 생활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다만, 생활서비스의 분포와 집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심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역별 시설정보 구축과 중심성 기준 설정이 필요함.

-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시·군청 소재지를 생활서비스 중심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까지의 차량 이동시간을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함.

- 시·군청 소재지는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상업·의료·교육 등 주요 생활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점에서 활용함.
- 다만, 시·군청 소재지가 실제 생활서비스의 중심지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실제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시에는 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 등의 위치와 집적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서비스 중심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 간 단순 직선거리보다 실제 도로망과 이동경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기반 경로탐색 정보를 활용하여 이동시간을 산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3.3.4. 정보 연계 방안

❍ 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은 별도의 고정 DB를 구축하기보다, 지도·경로탐색 API와 고속도로 IC, KTX 정차역 및 생활서비스 중심지역의 위치정보를 연계하여 차량 이동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함.

❍ 지역 후보군의 읍면동별 기준지점에서 고속도로 IC, KTX 정차역 및 생활서비스 중심지역까지의 실제 차량 이동시간을 산출함.

❍ 도로망 및 이동여건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고정된 이동시간 DB를 구축하기보다 실제 의사결정 지원체계에서 외부 지도정보와 연계하여 최신 이동시간을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함.

3.3.5. 시스템 적용 방식

❍ 청년농은 지역 후보군을 좁히기 위해 본인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교통·생활서비스 거점과 최대 이동시간을 선택·입력함.

- 고속도로 IC: (예시) 30분 이내
- KTX역: (예시) 60분 이내
- 생활서비스 중심지역: (예시) 40분 이내

❍ 시스템은 청년농이 선택한 교통·생활서비스 거점별 최대 이동시간을 적용하여 각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후보 지역으로 도출하며, 복수의 조건을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후보군을 축소함.

〈표 4-6〉 지역 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지표 구축 및 시스템 적용 방식

선택 요인	구성 지표	산출 기준	활용 자료	시스템 적용 방식
농지 구입 및 임차 가능성	농지 매매·임대 가격	읍면동별·농지유형별 평당 가격 중앙값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농지은행 자료	확보방식·농지유형 선택, 최대 지불가능 가격 입력
	농지 매매·임대 물량	읍면동별·농지유형별 현재 매물 건수	농지은행 현재 매물정보	최소 매물건수 입력
주거 확보 가능성	주택 거래건수	최근 1년 읍면동별·주택유형별 매매·전세·월세 거래건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주택유형·확보형태 선택, 최소 거래건수 입력
	주택 가격	최근 1년 읍면동별·주택유형별 매매가격·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및 월 임대료 중앙값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최대 매입가격·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입력
교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	고속도로 IC 접근성	가장 가까운 IC까지 차량 이동시간	지도·경로탐색 API	최대 이동시간 선택
	KTX역 접근성	가장 가까운 KTX 정차역까지 차량 이동시간	지도·경로탐색 API	최대 이동시간 선택
	생활서비스 중심지역 접근성	생활서비스 중심지역까지 차량 이동시간	지도·경로탐색 API 및 시·군청 소재지 정보	최대 이동시간 선택

자료: 저자 작성.

4. 품목 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지표 구축

4.1. 기대수익성

4.1.1. 지표 정의

○ 기대수익성은 해당 품목 재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농업소득 수준을 의미함.

4.1.2. 구성 지표

○ 10a당 농업소득

4.1.3. 지표 산출 기준

○ 품목별 농업소득은 전국 단위의 10a당 농업소득으로 구축함.

- 농산물소득조사는 작목별 표본을 지역별 재배면적 및 농가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별로 배분하고 있어 원자료의 지역변수를 활용한 지역별 분석은 가능함. 다만, 지역을 별도의 층화변수로 적용한 층화표본추출 방식은 아니므로 지역별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농산물소득조사 담당자 전화조사, 2026. 6. 28.).
- 또한 품목별 자료를 시도 단위로 세분화할 경우 일부 지역은 표본 수가 적어 안정적인 대표값을 산출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 농업소득을 별도로 구축하기보다 품목 간 기대수익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10a당 농업소득을 적용함.

❍ 농업소득은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값을 활용함.

- 청년농의 품목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투입되는 전체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총수입 – 생산비)보다, 농가가 경영활동을 통해 확보하는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농업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농산물생산비조사와 같이 생산비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생산비에서 자가노동비, 자가토지용역비 및 자본용역비를 제하여 경영비를 산출함.[27)]
- 따라서 농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출함.
  - 농업소득= 총수입 – 경영비
  - 경영비= 생산비 - 자가노동비 - 자가토지용역비 - 자본용역비

❍ 영농진입 초기에는 기존 농가의 평균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은 품목별 10a당 농업소득의 25백분위수(P25)를 적용함.

- P25는 해당 품목 조사농가의 농업소득 분포에서 하위 25% 지점에 해당하는 값으로, 평균값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을 기본값으로 적용함으로써 초기 영농계획 수립 시 보다 보수적인 기대소득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임.

4.1.4. 자료 활용 및 DB 구축

가) 자료 출처

❍ 10a당 농업소득은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와 국가데이터처 농산물생산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함.

---

27) 농축산물생산비 조사통계설명자료(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cdta?statsConfmNo=101043&kosisYn=Y), 검색일: 2026. 6. 22.

❍ 농산물소득조사는 연구수행 목적으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일부 품목의 원자료를 활용함.

- 농산물소득조사는 표준적인 농업소득 산출을 목적으로 관행농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농가에 일부 단순 자동화시설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농산물소득조사 담당자 전화조사, 2026. 6. 28.).
- 따라서 이 연구에서 구축하는 농업소득 정보는 관행농가를 중심으로 한 품목별 기대수익성 정보로 활용하며, 스마트팜의 기대수익성을 나타내는 정보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농산물생산비조사 원자료는 국가데이터처 MDIS를 통해 확보함.

❍ 두 자료를 통해 10a당 농업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품목은 총 56개임.

〈표 4-7〉 농업소득 산출을 위한 기준통계 품목 현황(총 56개 품목)

구분	농산물소득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식량작물(9개)	겉보리, 쌀보리, 밀, 노지풋옥수수, 고구마, 봄감자, 가을감자	논벼, 콩
노지채소(15개)	수박, 가을무, 고랭지무, 당근, 봄배추, 가을배추, 고랭지배추, 시금치, 양배추, 대파, 쪽파, 생강	고추, 마늘, 양파
시설채소(17개)	수박, 참외, 딸기, 딸기(수경), 오이, 호박, 토마토, 토마토(수경),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수경), 가지, 파프리카, 시금치, 상추, 부추, 고추, 멜론	-
노지과수(9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키위(참다래), 블루베리, 자두	-
시설과수(1개)	포도	-
화훼(1개)	시설장미	-
특용·양용(4개)	참깨, 인삼(4년근), 오미자, 들깨	-

주: 2024년 기준, 농산물소득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에 수입, 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품목임.
자료: 저자 작성.

나) DB 구축 방법

❍ 농산물소득조사

- 농촌진흥청에서 제공받은 2024년 원자료 중 시설딸기, 시설딸기(수경), 시설방울토마토, 시설방울토마토(수경), 시설토마토, 시설토마토(수경), 시설오이 등 7개 품목의 자료를 활용함.
- 개별 농가의 10a당 농업소득을 이용하여 품목별 평균 및 분위값(P25, P50, P75)을 산출함.
- 이 중 영농진입자의 기대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스템 기본값으로 P25를 활용함.

❍ 농산물소득조사의 일부 시설채소 품목은 2023년부터 조사체계가 변경되어 연도 간 자료 활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농산물소득조사 담당자 전화조사, 2026. 6. 28.).

- 시설딸기, 시설토마토 및 시설방울토마토는 2023년부터 토경과 수경으로 구분하여 조사함에 따라 이전 연도 자료와 시계열이 단절됨.
- 2022년까지는 일부 품목을 촉성·반촉성 등 작형별로 구분하였으나, 작형별 경영성과 차이보다 토경·수경 재배방식에 따른 경영성과 차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 표본이 재설계됨.
- 시설멜론은 2023년부터 국가승인통계 조사작목에 포함되어 이전 연도의 전국 단위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 농산물생산비조사

- 국가데이터처 MDIS에서 제공하는 2024년 농산물생산비조사 원자료 중 집계 데이터셋인 ‘10a당 평가액’ 자료를 활용함.

- 총수입은 평가금액과 재배면적을 이용하여 10a 기준으로 환산함. '10a당 평가액' 자료는 생산비 항목을 10a 단위로 제공하므로, 총수입 역시 동일한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함.
- 경영비는 생산비에서 자가노동비, 자가토지용역비 및 자본용역비를 제외하여 산출함.
- 이를 이용하여 개별 농가의 10a당 농업소득(10a당 총수입-10a당 경영비)을 산출한 후, 품목별 평균 및 분위값(P25, P50, P75)을 산출함.

다) DB 시범 구축 결과

❍ 농산물소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시설채소 7개 품목의 10a당 농업소득의 평균과 P25, P50(중앙값), P75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 농업소득 DB를 시범 구축함.

- 이 연구에서는 농산물소득조사 전체 대상 품목 중 원자료를 확보한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였으며, 향후 나머지 품목의 원자료 확보 시 동일한 방식으로 확대 구축할 수 있음.

〈표 4-8〉 농산물소득조사 품목별 10a당 농업소득 DB 구축 결과

단위: 원/10a

품목	표본수	평균	P25	P50(중앙값)	P75
시설딸기	63	10,686,223	6,122,930	10,518,026	14,838,039
시설딸기(수경)	158	14,998,764	7,622,492	12,786,180	20,854,315
시설방울토마토	68	10,690,553	4,937,562	9,450,704	14,554,859
시설방울토마토(수경)	64	12,082,117	5,262,990	10,568,637	16,900,065
시설토마토	88	10,741,353	5,226,979	8,658,740	15,132,087
시설토마토(수경)	70	17,645,005	7,281,120	13,608,317	26,050,257
시설오이	172	12,883,641	5,787,708	9,830,881	17,943,909

자료: 농촌진흥청(2024) 제공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농산물생산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논벼, 콩,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의 10a당 농업소득 DB를 구축함.

- 품목별 표본을 이용하여 평균과 P25, P50(중앙값), P75를 산출하였으며, 시스템의 기대수익성 기본값으로 P25를 활용함.
- 다만, 이 연구에서 산출한 평균 농업소득은 원자료의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산술평균한 값으로, 시도별 재배면적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KOSIS 공표값과는 산출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4-9〉 농산물생산비조사 품목별 10a당 농업소득 DB 구축 결과

단위: 원/10a

품목	표본수	평균	P25	P50(중앙값)	P75
논벼	955	405,149	226,020	410,661	591,029
콩	141	347,801	68,601	369,527	603,227
고추	159	4,342,506	2,244,623	4,167,565	5,755,274
마늘	125	2,311,396	817,611	1,948,463	3,502,071
양파	138	1,467,266	241,926	1,609,760	2,519,502

주: 원자료에서는 마늘을 한지형과 난지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를 하나의 품목으로 통합하여 분석함.
자료: 국가데이터처(2024), 농산물생산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1.5. 시스템 적용 방식

○ 청년농은 품목 후보군을 좁히기 위한 조건으로 면적단위당 최소 목표 농업소득을 직접 입력함.

- 최소 목표 농업소득: (예시) 10a당 500만 원

○ 면적당 목표 농업소득을 입력한 경우, 시스템은 청년농이 입력한 목표수준과 품목별 10a당 농업소득 DB를 비교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 후보군을 도출함.

- (예시) 10a당 최소 목표 농업소득 500만 원 → 품목별 10a당 농업소득(P25)이 500만 원 이상인 품목을 후보군으로 도출

❍ 청년농이 연간 목표 농업소득을 입력한 경우, 품목별 10a당 농업소득을 이용하여 해당 목표소득 달성에 필요한 재배면적을 산출하고, 이 값을 품목 선택을 위한 비교정보로 제공함.

- (예시) 연간 목표 농업소득 5,000만 원÷해당 품목의 10a당 농업소득(P25) → 목표소득 달성에 필요한 재배면적 산출

❍ 최종 품목 후보와 지역 후보가 연계된 이후에는 산출된 필요 재배면적과 해당 지역의 농지가격 정보를 연계하여 예상 농지 구입비 또는 임차비를 제공함.

4.2.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성

4.2.1. 지표 정의

❍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성은 단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소득의 연도별 변동 정도를 통해 해당 품목에서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

❍ 본 지표는 기대수익성이 제공하는 '얼마를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 소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

4.2.2. 구성 지표

❍ 연도별 농업소득 변동성

- 최근 3년간 품목별 농업소득의 연도 간 상대적인 변동 정도

4.2.3. 지표 산출 기준

❍ 연도별 농업소득 변동성은 품목별 전국 단일 기준으로 구축함.

❍ 연도별 농업소득 변동성은 최근 3년간 품목별 10a당 농업소득의 연도 간 변동 정도를 기준으로 산출함.

- 품목별 농업소득은 '총수입 - 경영비'로 산출하며, 재배면적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10a당 농업소득으로 환산하여 활용함.
- 각 연도의 품목별 10a당 농업소득은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활용함.
- 품목별 농업소득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연도 간 상대적인 변동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변동계수(CV)를 활용함.
- 농업소득 변동계수(CV)= 최근 3년간 연도별 농업소득의 표준편차÷최근 3년간 연도별 농업소득의 평균×100
- 변동계수가 낮을수록 최근 3년간 농업소득의 연도 간 변동이 작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품목으로 해석함.

4.2.4. 자료 활용 및 DB 구축

가) 자료 출처

❍ 연도별 농업소득 변동성은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와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원자료를 활용함.

나) DB 구축 방법

❍ 품목별 최근 3년간 연도별 10a당 농업소득의 중앙값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근 3년간 연도별 대표 농업소득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동계수(CV)를 산출함.

다) DB 시범 구축 결과

❍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채소 일부 원자료 중 2022~2024년의 3개년 자료가 확보된 시설상추, 시설파프리카, 시설호박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소득 변동성 DB를 시범 구축함.

- 각 연도의 품목별 10a당 농업소득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활용하고, 최근 3년간 연도별 대표 농업소득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변동계수(CV)를 산출함.
- 시범 구축 결과, 최근 3년간 농업소득 변동계수는 시설상추 27.6%, 시설파프리카 24.5%, 시설호박 18.7%로 나타남.

❍ 향후 농산물소득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의 연도별 원자료를 확보할 경우, 농업소득 산출이 가능한 총 56개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농업소득 변동성 DB를 구축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품목(시설딸기, 시설토마토, 시설방울토마토, 시설멜론)은 조사

체계 개편으로 인해 현재 시점에서 최근 3년간 동일한 기준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들 품목을 포함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농업소득 변동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2023~2025년의 3개년 자료가 확보되는 2027년에 전체 품목에 대한 DB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0〉 품목별 농업소득 변동성

단위: 원/10a, %

품목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최근 3년간 농업소득의 표준편차	최근 3년간 농업소득 변동계수
시설상추	3,441,435	949,103	27.6
시설파프리카	10,005,362	2,449,670	24.5
시설호박	8,143,508	1,522,231	18.7

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채소 일부 자료 중, 2022~2024년 자료가 존재하는 품목 3개를 대상으로 함. 각 년도 품목의 대푯값은 10a당 농업소득 중앙값을 활용함.
자료: 농촌진흥청(2022~2024) 제공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4.2.5. 시스템 적용 방식

❍ 청년농은 품목 후보군을 좁히기 위해 허용 가능한 농업소득 변동 수준을 직접 입력함.

❍ 시스템은 청년농이 입력한 최대 농업소득 변동계수와 품목별 최근 3년간 농업소득 변동계수를 비교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 후보군을 도출함.

- (예시) 최대 농업소득 변동계수 10% 입력 → 최근 3년간 농업소득 변동계수가 10% 이하인 품목을 후보군으로 도출.

4.3. 노동 투입 특성

4.3.1. 지표 정의

○ 노동 투입 특성은 품목 재배 시 요구되는 평균적인 노동투입량과 외부 노동력 활용 정도를 통해, 해당 품목의 노동 투입 수준과 외부 인력 확보 필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의함.

○ 이를 통해 청년농은 ① 해당 품목 재배에 평상시 어느 정도의 노동시간이 필요한지, ② 필요한 노동력을 외부 인력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4.3.2. 구성 지표

○ 10a당 월평균 노동투입시간

- 10a당 월평균 노동투입시간= 10a당 총 노동투입시간(자가+고용)÷재포기간(개월)

○ 10a당 외부노동 의존도

- 외부노동 의존도= 고용노동시간÷(자가노동시간+고용노동시간)×100

4.3.3. 지표 산출 기준

○ 월평균 노동투입시간과 외부노동 의존도는 지역별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국 단일 기준으로 구축함.

❍ 개별 품목의 월평균 노동투입시간 및 외부노동 의존도는 농가별 노동투입 특성의 편차를 고려하여 중앙값을 품목별 기준값으로 적용함.

- 월평균 노동투입시간은 품목별 농가의 10a당 월평균 노동투입시간 중앙값을 적용함.
- 외부노동 의존도는 품목별 농가의 외부노동 의존도 중앙값을 적용함.

4.3.4. 자료 활용 및 DB 구축

가) 자료 출처

❍ 월평균 노동투입시간과 외부노동 의존도는 농산물소득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함.

- 농산물소득조사 원자료는 재포기간, 자가노동시간, 고용노동시간 정보를 제공함.
- 농산물생산비조사 원자료(집계-노동투입시간)는 자가노동시간, 고용노동시간 정보를 제공함.

나) DB 구축 방법

❍ 자료 전처리

- 농산물소득조사 원자료에서 고용노동시간이 결측인 경우 '0'으로 처리함. 고용노동시간에 별도의 0값이 존재하지 않는 자료 특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결측값을 고용노동이 없는 경우로 간주함.
- 농산물생산비조사에는 재포기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촌진흥청 '농사로'의 농작업일정[28]을 활용하여 품목별 대표 재포기간을 설정함.

28) 농사로(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b/psbl/workScheduleLst.ps?menuId

• 논벼(7개월, 4월~10월), 콩(7개월, 5월~11월), 고추(6개월, 5월~10월), 마늘(9개월, 10월~6월), 양파(9개월, 10월~6월)

❍ 지표 산출

- 개별 농가별 10a당 월평균 노동투입시간과 외부노동 의존도를 산출함.
- 월평균 노동투입시간은 자가노동시간과 고용노동시간을 합산한 총 노동투입시간을 재포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함.
- 외부노동 의존도는 총 노동투입시간 중 고용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함.

❍ 품목별 기준값 구축

- 개별 농가별로 산출한 월평균 노동투입시간과 외부노동 의존도를 이용하여 품목별 중앙값(P50)을 산출하고, 이를 해당 품목의 기준값으로 적용함.

다) DB 시범 구축 결과

❍ 농산물소득조사에서 원자료를 확보한 7개 품목과 농산물생산비조사의 5개 품목을 활용하여 총 12개 품목의 노동 투입 특성 DB를 시범 구축함.

- 품목별 월평균 노동투입시간과 외부노동 의존도의 평균 및 분위값(P25, P50, P75)을 산출하였으며, 시스템 적용을 위한 품목별 기준값은 중앙값(P50)을 활용함.
- 시범 구축 결과, 월평균 노동투입시간과 외부노동 의존도는 품목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 청년농이 본인의 노동투입 여건과 외부 인력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품목을 비교·선택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PS00087&code=210004), 검색일: 2026. 8. 7.

- 향후 농산물소득조사 전체 품목의 원자료를 확보할 경우, 농업소득 산출이 가능한 56개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노동 투입 특성 DB를 확대 구축할 수 있음.

〈표 4-11〉 품목별 월평균 노동투입시간 DB 시범 구축 결과

단위: 시간/10a·월

구분	표본수	평균	P25	P50(중앙값)	P75
시설딸기	63	65.8	43.8	62.6	76.2
시설딸기(수경)	158	81.1	47.0	73.0	101.7
시설방울토마토	68	54.0	36.4	47.0	64.7
시설방울토마토(수경)	64	63.3	48.6	61.6	74.3
시설오이	172	83.6	56.2	77.5	103.7
시설토마토	88	60.8	41.4	58.3	80.2
시설토마토(수경)	70	76.4	53.3	73.9	91.4
논벼	955	1.4	1.0	1.3	1.8
콩	141	3.8	2.0	2.8	4.7
고추	159	26.0	18.8	24.1	30.8
양파	138	10.3	7.0	10.0	13.3
마늘	125	14.3	10.7	14.6	17.7

자료: 농촌진흥청(2024) 제공 자료 및 국가데이터처(2024), 농산물생산비조사 원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12〉 품목별 외부노동 의존도 DB 시범 구축 결과

단위: %

구분	표본수	평균	P25	P50(중앙값)	P75
시설딸기	63	35.1	20.5	32.2	51.9
시설딸기(수경)	158	31.9	8.9	29.9	50.6
시설방울토마토	68	29.7	5.2	24.1	49.4
시설방울토마토(수경)	64	47.5	18.9	51.0	74.5
시설오이	172	30.1	6.8	23.6	49.2
시설토마토	88	25.7	0.0	17.6	44.0
시설토마토(수경)	70	45.9	27.4	50.3	61.9
논벼	955	8.4	0.0	0.0	11.2
콩	141	11.0	0.0	0.0	16.1
고추	159	14.6	0.0	5.5	22.4
양파	138	50.4	31.3	54.3	71.3
마늘	125	32.1	14.6	29.9	51.8

자료: 농촌진흥청(2024) 제공 자료 및 국가데이터처(2024), 농산물생산비조사 원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4.3.5. 시스템 적용 방식

❍ 청년농은 품목 후보군을 좁히기 위한 조건으로 허용 가능한 월평균 노동투입시간과 외부노동 의존도를 직접 입력함.

❍ 시스템은 청년농이 입력한 조건과 품목별 월평균 노동투입시간 및 외부노동 의존도 기준값을 비교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 후보군을 도출함.

- (예시) 최대 월평균 노동투입시간 50시간 입력 → 품목별 월평균 노동투입시간 중앙값이 10a당 월 50시간 이하인 품목을 후보군으로 도출
- (예시) 최대 외부노동 의존도 30% 입력 → 품목별 외부노동 의존도 중앙값이 30% 이하인 품목을 후보군으로 도출

〈표 4-13〉 품목 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지표 구축 및 시스템 적용 방식

선택 요인	구성 지표	산출 기준	활용 자료	시스템 적용 방식
기대수익성	10a당 농업소득	품목별 10a당 농업소득 25분위(P25)	농산물소득조사·농산물 생산비조사 원자료	최소 목표 농업소득 입력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성	농업소득 변동성	최근 3년간 연도별 10a당 농업소득 중앙값의 변동계수(CV)	농산물소득조사·농산물 생산비조사 원자료	최대 농업소득 변동계수 입력
노동 투입 특성	월평균 노동투입시간	품목별 10a당 월평균 노동투입시간 중앙값	농산물소득조사·농산물 생산비조사 원자료	최대 월평균 노동투입시간 입력
	외부노동 의존도	품목별 고용노동시간 비중의 중앙값	농산물소득조사·농산물 생산비조사 원자료	최대 외부노동 의존도

자료: 저자 작성.

5. 지역-품목 후보조합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

5.1. 추가정보 제공의 기본방향

❍ 지역 및 품목 필터링을 통해 후보조합이 도출된 이후에는, 각 후보조합의 실제 영농진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추가정보를 제공함.

❍ 추가정보는 지역 또는 품목만을 기준으로 독립적인 필터링 지표를 구축하기 어렵거나,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만으로 객관적·표준화된 DB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정보, 또는 기존 전문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정보를 대상으로 함.

- 지역과 품목의 조합에 따라 여건이 달라지는 정보는 지역×품목 후보조합이 도출된 이후 해당 조합의 조건을 반영하여 제공함.
- 현재 자료의 제약이나 표준화의 어려움으로 정량적인 DB 구축이 어려운 정보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참고정보를 제공하거나, 향후 관련 자료가 구축될 경우 시스템 DB로 연계·확장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 지원사업, 재배기술 및 교육정보와 같이 기존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DB를 중복 구축하기보다, 도출된 지역×품목 후보조합을 기준으로 관련 전문정보원과 연계하여 제공함.

5.2. 지자체 지원정책

❍ 후보 지역이 도출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지원사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지원사업 정보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적

용함. 이러한 외부 정보 연계 방식은 현재 그린대로, 탄탄대로 등 관련 정보서비스에서도 활용되고 있음.

❍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 지자체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수요는 높으나 관련 정보를 탐색·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6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되는 등 청년농 육성에서 지역의 역할과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지역별 지원정책 정보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향후에는 단순히 외부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후보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지원사업을 선별하고 주요 내용을 공통된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청년농의 연령, 선택 지역·품목, 영농형태 등의 사용자 조건과 각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연계하여 실제 신청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별·제공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각 지자체의 청년농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규모, 신청기간 등을 공통된 항목으로 구조화하여 DB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AI 기반 문서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한 형식의 사업 공고에서 주요 정보를 추출하고 공통된 항목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일부 자동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3. 노동력 확보 가능성

❍ 노동력 확보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는 지역×품목 후보조합이 도출된 이후, 후보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농업 노동력 공급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추가정보로 제공함.

- 농촌형 인력중개센터를 통한 내국인 인력중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등 후보 지역에서 운영되는 농업인력 공급사업의 운영 여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외부 노동력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함께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농가형 계절근로제(E-8) 및 고용허가제(E-9)의 신청요건, 절차 등 관련 제도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함.

❍ 2027년부터 농업고용실태조사를 통해 시군 단위의 농업 임금근로자 인력부족률 등 지역별 노동력 수급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지역의 노동력 확보 여건을 나타내는 필터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4. 경영비 세부 정보

❍ 경영비 세부정보는 후보 품목을 재배할 때 어떠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품목별 경영비의 세부 항목별 금액과 비중을 제공함.

❍ 경영비 세부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와 국가데이터처 농산물생산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함.

- 농산물생산비조사는 농산물소득조사와 세부 생산비 항목의 분류체계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수도광열비, 농구비, 영농시설비, 노동비, 위탁영농비 등 유사한 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두 조사에서 제공하는 세부 비용항목을 상호 대응 가능한 항목으로 재분류하여, 농산물소득조사 51개 품목과 농산물생산비조사 5개 품목 등 총 56개 품목에 대해 공통된 형태의 경영비 세부정보 DB를 구축함.

〈표 4-14〉 농산물소득조사 생산비 세부 항목

생산비	경영비	중간재비	종자·종묘비	소농구비
			보통(무기질)비료비	대농구상각비
			부산물(유기질)비료비	영농시설상각비
			농약비	수리·유지비
			수도광열비	기타비용
			기타재료비	
		농기계·시설 임차료		
		토지임차료		
		위탁영농비		
	자가노동비			
	유동자본 용역비			
	고정자본 용역비			
	토지자본 용역비			

자료: 농촌진흥청(2024) 제공 자료(농산물소득조사 원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5.5. 재배 기술 및 관련 교육 정보

❍ 재배 기술 및 관련 교육 정보는 별도의 DB를 구축하기보다, 지역×품목 후보조합이 도출된 이후 해당 품목의 재배기술 정보와 관련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교육포털 등 기존 정보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함. 이를 통해 청년농이 선택한 품목에 필요한 재배기술과 교육·실습 정보를 후보 도출 이후 바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함.

5.6. 판로 확보 용이성

❍ 판로 확보 용이성은 지역×품목 후보조합이 도출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선택한 품목의 생산 집적도와 활용 가능한 공동출하·판매 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함.

❍ 지역 내 해당 품목의 생산비중이 판로 확보 용이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님. 다만 면담조사 결과, 기존 판로가 없는 청년농의 경우 성주 참외, 나주 배와 같이 특정 품목의 생산이 집적된 지역에서는 지역 브랜드와 기존 생산·유통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역·품목 선택 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 내 해당 품목의 생산 집적도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지역·품목의 생산자협회와 농협 APC 등 산지유통시설을 통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판매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추가로 연계하여 제공함.

❍ 생산 집적도 관련 정보는 농림어업총조사의 작물정보와 농가정보를 연계하여 구축함.

- 농가의 거주지역이 아닌 실제 영농지역을 기준으로 지역정보를 재구성하되, 거주지역과 영농지역이 다른 경우 영농지역 정보가 시군구 단위까지만 제공되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품목 단위로 구축함.
- 시군구별·품목별 재배농가 수와 재배면적을 집계하여 다음 정보를 산출함.
  - 지역 전체 농가 중 해당 품목 재배농가 비율
  - 지역 전체 재배면적 중 해당 품목 재배면적 비율
  - 전국 해당 품목 재배면적 중 해당 지역 재배면적 비율
  - 전국 해당 품목 재배농가 중 해당 지역 재배농가 비율

5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실용화를 위한 과제 및 활용방안

1.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실용화를 위한 과제

1.1. 시스템 운영주체 설정 및 협력체계 마련

○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총괄할 주체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 운영주체는 지역×품목 기반 DB와 지역·품목 관련 정보, 외부 정보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관리하고,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과 개선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의사결정 지원체계는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통계 및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이므로, 시스템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료 제공 및 연계 등에 관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2. 지역×품목 기반 DB 구축 및 연계체계 마련

1.2.1. 지역×품목 기반 DB 구축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는 '지역×품목'이 연계된 가장 큰 정보 DB를 기준으로 다양한 통계·행정자료 및 외부 정보를 연계하는 구조임.

❍ 따라서 실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개별 지역정보와 품목정보를 구축·연계하기에 앞서,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품목이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품목 기반 DB가 우선하여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지역×품목 기반 DB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실제 시스템의 기반 DB로 활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음.

- 첫째,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기 때문에 조사 시점 이후의 재배품목 및 재배지역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움.
- 둘째,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읍면동 단위의 지역×품목 DB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료 마스킹, 농가의 거주지역과 실제 영농지역 간 불일치에 따른 영농지역 확인의 제약 등으로 일부 정보손실이 발생함. 따라서 모든 행정구역에 대해 실제 재배품목을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실제로 9개 광역도의 법정동 코드를 기준으로 시군구는 총 192개, 읍면동은 총 3,544개이나, 이 연구에서 구축한 농림어업총조사 기반 DB에는 시군구 175개, 읍면동 2,246개가 포함되어 차이가 나타남.
- 물론 일부 도시지역의 경우 실제 농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품목 조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모두 자료의 누락으로 볼 수는 없음.

〈표 5-1〉 지역-품목 연계 DB의 행정구역별 구축 범위(표 4-1)

단위: 개

구분	전국		광역도	
	전체 행정구역 수	DB 구축 지역 수	전체 행정구역 수	DB 구축 지역 수
시도	17	17	9	9
시군구	268	249	192	175
읍면동	5,067	2,935	3,544	2,246

주: 행정구역 수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법정동 코드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 이전 법정동 코드를 적용함.
자료: 저자 작성.

○ 실제 시스템 구축 시에는 농림어업총조사를 지역×품목 DB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보다 최신의 재배정보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DB의 포괄성을 높이고 최신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농림어업총조사를 통해 전국 농가의 지역별 재배품목과 재배면적 등 기본적인 구조를 구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활용하여 최근의 재배품목 및 재배지역 변화를 보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실제로 '농업ON'의 영농의사결정 지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재배품목 변화 추이와 충청남도 데이터포털 올담의 '도 내 농업환경분석'에서 제공하는 읍면동별 주요 재배작물 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재배현황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품목별 재배적지의 변화 전망을 지역×품목 기반 DB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품목별 재배적지 전망자료 등을 연계하여 5년, 10년, 15년 후의 지역별 재배여건 변화 가능성을 함께 제시할 경우, 청년농이 장기적인 영농계획을 고려하여 지역과 품목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2.2. 지역×품목 기반 DB-지역 DB-품목 DB 연계체계 마련

❍ 지역×품목 기반 DB가 구축된 이후에는 서로 다른 공간 단위와 품목분류로 구축된 지역 및 품목 관련 정보를 지역×품목 기반 DB와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정보는 자료에 따라 필지·주소, 읍면동, 시군구 등 제공되는 공간 단위가 상이하므로, 시스템에서 사용할 기준 지역 단위를 설정하고 자료의 가용범위에 따른 지역 단위 연계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읍면동 단위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 등 상위 지역 단위의 정보를 활용하되, 사용자가 정보의 공간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적용된 산출 단위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품목정보 역시 자료별 품목분류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품목 기반 DB와 연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림어업총조사와 농산물소득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에서 사용하는 품목분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농림어업총조사의 지역×품목 DB에는 고추가 노지 고추, 시설 고추, 수경 고추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농산물소득조사에는 시설 고추, 농산물생산비조사에는 (노지)고추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음.
- 동일한 품목이라도 재배방식과 자료별 분류수준에 따라 일대일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역×품목 기반 DB의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각 품목정보의 대응 가능 여부와 연계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정보가 구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정보 제공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 농산물소득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를 통해 소득, 경영비, 노동 투입 특성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품목은 총 56개로, 지역×품목 기반 DB에 포함된 118개 품목 모두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품목 관련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 특성, 재배방식, 생산 및 경영구조 등이 유사한 품목의 정보를 참고정보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의사결정 지원정보 및 지표의 확대·정교화

1.3.1. 의사결정 지원정보 및 지표의 확대

○ 이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기본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설문조사에서 예비농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정보를 중심으로 지역 및 품목 선택을 위한 지원정보와 지표를 구성함.

○ 그러나 청년농이 지역 및 품목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과 각 요인에 부여하는 중요도는 개인의 성향, 삶의 목표,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함. 따라서 지역과 품목 선택에 충분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4장의 지원정보 및 지표 구성에서 제외된 요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면담조사 결과, 청년농은 주된 작목의 농업소득뿐만 아니라 체험 및 직거래 등 6차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과 영농 초기의 불안정한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 내 농외소득 창출 여건 등에도 관심을 보였음.
- 초기 자금 부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기계 및 공동선별장 등 공

동이용시설의 이용 여건과 토양·용수·경사도·일사량 등 실제 재배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수요도 확인됨.

1.3.2. 정보지표 및 산출방식의 타당성 검증

○ 4장에서 제시한 지역 및 품목 선택 관련 정보지표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토대로 청년농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현재 가용한 통계·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임.

- 설문조사를 통해 예비농 및 청년농이 지역과 품목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선택률이 높은 요인을 중심으로 정보지표의 구축 가능성을 검토함.
- 다만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고려요인이 곧바로 객관적인 정보지표와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비농 및 청년농 면담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각 고려요인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미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이를 가용자료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전환함.

○ 이러한 정보지표와 산출방식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나, 실제 시스템 적용에 앞서 각 지표가 청년농의 지역·품목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산출된 값이 실제 영농여건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농업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청년농을 비롯한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지표의 구성과 산출방식, 산출 결과의 현실성 등을 추가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구축한 정보지표를 추가·수정·보완하고 산출방식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품목별 농업소득의 P25를 보수적 참고값으로 활용하는 방식, 최

근 3개년 농업소득의 변동계수를 소득 안정성 지표로 활용하는 방식, 농지 가격의 중위값을 지역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대표값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이 실제 영농여건과 의사결정에 적절한지를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 연구에서는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나타내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군청 소재지를 생활서비스 중심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을 지표로 구축함. 다만 실제 생활서비스 이용 여건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활서비스의 범위와 접근성 측정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6년 6월 개정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음. 개정 기준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분야별로 구분하고, 기존의 이용률 중심 지표를 의료 30분, 보육 10분 등 주민의 실제 서비스 접근시간을 중심으로 개편함.[29)]
- 2026년 개정 기준에 따른 자료는 2026년 9월 이후 공개될 예정이며, 일부 항목은 읍면동 단위까지 제공될 예정이므로, 향후 이를 활용하여 생활서비스 접근성 지표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농어촌서비스기준 담당자 전화조사, 2026. 8. 19.).

1.3.3. 원자료의 제약을 고려한 산출방식 정교화

❍ 일부 지표 및 산출방식의 정교화는 활용 가능한 원자료의 표본 수와 제공 단위에 의해 제약될 수 있음.

- 2024년 기준 농산물소득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를 통해 소득, 경영비, 노동 투입 특성 등의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품목은 총 56개이며, 품목별

29)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 6. 2.),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줄인다”; 농축투데이(2026. 8. 5.), “농촌 최소 생활기준 싹 바뀐다…농식품부, 농어촌서비스기준 전면 개정”.

표본 수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특히 일부 품목은 표본 수가 제한적이어서 경영규모 등 농가 특성에 따라 품목별 지표를 세분화하여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표 5-2〉 농산물소득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표본 현황(표 2-11)

단위: 명

구분		표본수	구분		표본수
식량·특용 작물	논벼	955	노지채소	고추	159
	콩	141		마늘	125
	고구마	127		양파	138
	들깨	61		가을배추	124
	봄감자	132		대파	86
	참깨	54		생강	55
시설채소	딸기	63		수박	51
	딸기(수경)	158		쪽파	75
	멜론	58	과수	배	162
	방울토마토	68		복숭아	164
	방울토마토(수경)	64		사과	207
	상추	50			
	오이	172			
	토마토	88			
	토마토(수경)	70			
	파프리카	56			
	호박	95			

주: 2024년 기준, 농산물소득조사 조사 품목 51개 중 23개 품목과 농산물생산비조사 5개 품목(논벼, 콩,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한 표본 현황임.
자료: 저자 작성.

❍ 특히 이 연구에서 기대수익성 지표로 제시한 10a당 농업소득은 활용 가능한 원자료의 표본 수와 제공 단위의 한계와 직접적으로 연계됨.

- 이 연구에서는 품목별 10a당 농업소득을 활용하여 품목의 기대수익성을 비교하고,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하였음.

- 그러나 실제 농업소득은 경영규모에 따라 기계 이용의 효율성과 자본 및 노

동 생산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정비 분산 등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10a당 농업소득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 농촌진흥청 자료는 10a당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음. 또한 원자료를 활용하더라도 품목별 표본 수가 제한되어 있어 재배면적 구간을 세분화하여 경영규모별 10a당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어려움.
- 따라서 10a당 농업소득 및 이를 활용한 산출정보는 원자료의 제약을 고려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관련 통계 및 표본의 보강을 통해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1년간 농지 매매·임대 또는 주택 매매·전세·월세 거래가 없거나 거래 건수가 적은 읍면동이 존재할 수 있음. 이 경우 최근 1년을 기본적인 정보 산출기간으로 활용하되, 거래 건수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정보의 산출기간을 확대하거나 인접 지역의 거래정보를 참고정보로 함께 제공하는 등 자료의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산출·제공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4. 의사결정 지원정보의 갱신 및 신뢰성 확보[30]

1.4.1. 정보별 갱신주기를 고려한 갱신체계 마련

❍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품목 관련 정보의 갱신주기와 변동성을 고려하여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0) 전문가 자문의견을 참조하여 정리함.

- 이 연구에서 활용한 정보는 농림어업총조사, 농산물소득조사 등 일정한 주기로 생산되는 통계자료부터 농지가격·매물, 정책사업 등 수시로 변화하는 정보까지 자료의 생산·갱신주기가 서로 다름.
- 자료별 생산·갱신주기를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정보와 수시로 갱신해야 하는 정보를 구분하고, 정보별 갱신시점과 관리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수시로 변동하는 정보 중 이미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구축·갱신하고 있는 정보는 해당 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최신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모든 정보를 자체적으로 구축·갱신하기보다 자료의 특성에 따라 자체 갱신과 외부 정보서비스 연계를 병행함으로써, 최신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시스템의 관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1.4.2. 정보 공개 및 관리기준 마련

❍ 청년농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지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구축·산출 방식의 공개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각 지표에 기준연도, 자료출처, 공간 단위 및 최종 갱신일 등을 함께 제시하고, 거래자료나 조사자료의 경우 거래건수 또는 표본 수 등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지 매매가격은 토지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읍면동별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필지의 위치·형상·도로 접근성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건수가 적은 경우 해당 중앙값이 제한된 거래정보에 기반할 수 있음.

- 따라서 시스템에서는 읍면동별 중앙값을 지역 탐색을 위한 필터링 정보로 활용하되, 해당 지역 및 지목의 최근 1년간 거래건수와 실거래가격 분포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보의 표시 및 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후보 축소 단계에서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이나 품목을 일률적으로 제외하기보다, '자료 미확보', '표본 부족', '해당 없음'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자료의 부재가 해당 지역이나 품목의 후보 제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5.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통계·정보기반 확충

1.5.1. 기존 통계·정보의 조사범위 및 표본 규모 확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산물소득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는 조사대상 품목과 품목별 표본 수가 제한되어 있어, 품목별 소득·경영비·노동투입 등의 정보를 세분화하여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청년농의 의사결정에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대상과 표본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조사대상 및 표본 규모의 확대에는 예산과 조사여건 등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되 평균적인 경영성과 정보만으로 품목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초기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영농경과 기간에 따라 농업소득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후보품목 도출 이후 추가정보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품목뿐만 아니라 재배방식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조사내용)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농촌의 노동력 확보 어려움과 함께 정부의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청년농의 영농진입 과정에서 시설 및 스마트팜 등 새로운 재배방식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음.
- 동일한 품목을 시설에서 재배하더라도 시설유형과 스마트농업 기술의 적용 수준 등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 소득·경영비 및 노동투입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품목 중심의 조사에서 나아가 주요 재배방식을 구분하여 경영성과와 노동투입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정보를 기존 농산물소득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조사하기 어렵다면, 매년 실시되는 '스마트농업 실태조사' 등 관련 조사체계를 활용하여 스마트농업의 유형 및 기술 적용 수준에 따른 경영성과와 노동투입 특성 등을 추가로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1.5.2. 부재한 의사결정 정보의 신규 구축

❍ 청년농의 영농진입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임에도 현재 객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설재배에서 초기 시설투자 규모는 영농진입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유형·재배품목 등을 반영한 시설 구축비용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전문가 자문 결과, 시설 구축비용은 품목과 온실 형태뿐만 아니라 지역별

기후여건, 내부 설비의 종류와 수준, 착공시점과 지형, 재배면적 및 작기 운영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작물별·시설형태별 표준규격도 명확하지 않아 일률적으로 표준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정부 주도의 별도 연구와 전문가·시설농업인·관련 업체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토대로 시설유형, 품목, 주요 설비수준 등 시설 구축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을 고려하여 초기 시설투자비의 수준과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2.1. 구축된 의사결정 지원정보의 활용방안

2.1.1. 의사결정 목적에 따른 기능별 모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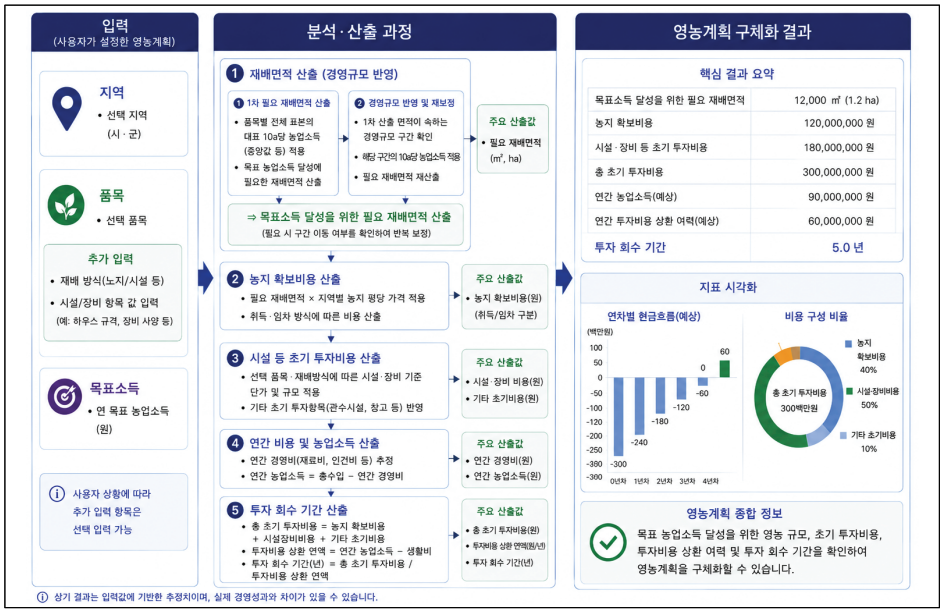
○ 이 연구에서는 지역과 품목이 모두 결정되지 않은 초기 탐색단계부터 지역×품목 후보조합 도출과 후속 영농준비까지 연계하는 전체적인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제시함. 향후 실제 활용 과정에서는 사용자의 의사결정 목적과 영농계획의 구체화 수준에 따라 구축된 지원정보의 일부를 선택·조합하여 개별 기능으로 모듈화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① 사용자의 조건에 적합한 지역을 탐색하는 지역 선택형, ② 적합한 품목을 탐색하는 품목 선택형, ③ 목표소득 달성에 필요한 영농규모를 산출하는 목표소득 역산형, ④ 보유자금이나 확보 가능한 농지의 규모

등 사용자의 자원 제약조건을 적용하여 실행 가능한 지역·품목 대안을 탐색하는 자원제약형 등으로 기능을 구분할 수 있음.

- 지역, 품목, 목표소득 등이 이미 구체화 된 사용자에게는 이를 입력값으로 하여 필요한 재배면적과 농지 확보비용, 시설 등 초기 투자비용을 산출하고, 예상 농업소득을 토대로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기간 등을 검토하는 영농계획 검토형 모듈로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그림 5-1〉 영농계획 검토형 모듈 개념도(예시)



자료: OpenAI(2026) 활용하여 저자 작성.

2.1.2. 분석·예측형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의 기반으로 활용

❍ 이 연구에서 구조화한 의사결정 단계와 단계별로 구축한 지역·품목 관련 정보는 향후 분석·예측 기능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지원체계로 고도화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음.

- 분석·예측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구축한 지역·품목 관련 정보 외에도 청년농의 영농진입 당시 여건, 실제 지역·품목 선택 결과, 이후의 영농성과 및 정착 여부 등을 연계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자료가 축적될 경우 이 연구에서 구조화한 지역·품목 선택과 영농규모 산출 등의 기능과 연계하여, 청년농 개인의 조건에 적합한 영농경로를 분석·제안하고 해당 경로에 따른 예상 성과를 예측하는 기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2.2. 시스템 구현에 따른 활용 및 기대효과

2.2.1. 청년농 및 영농진입 희망자의 영농계획 구체화 지원

❍ 실제 시스템이 구현될 경우 청년농뿐만 아니라 영농진입 희망자가 자신의 영농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역·품목 등의 선택을 구체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 영농기반이 없는 진입자는 지역·품목·소득·농지·자금 등에 관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탐색하고 결합해야 하나, 이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경우 분산된 정보를 한 체계에서 단계적으로 탐색·비교할 수 있어 정보탐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이고 영농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고·농대생 등 아직 구체적인 영농계획이 없는 잠재적 진입자도 지역·품목별 영농여건과 예상소득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관심을 실제 영농 가능성에 대한 탐색으로 연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면담조사에서도 이러한 지원체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확인됨.

- 개박하·개다래를 품목으로 영농을 준비한 사례에서는 관련 생육·소득자료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학에서 직접 생육자료를 축적하고 유사 품목의 재배정보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완함.
- 이후 자체적으로 구축한 생육자료와 기상자료를 비교하고 후보 지역을 직접 답사하여 재배 적합성을 확인한 후 정착지역을 선정함.
- 또한 수입가격, 유사 품목의 경영자료, 자체 생산량 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수집·결합하여 예상소득과 필요 농지규모를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정보탐색과 영농계획 구체화 과정에 약 6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 특수품목의 사례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단축할 수 있는 정보탐색 기간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연계되어 제공될 경우 청년농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탐색·수집하고 결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됨.

2.2.2.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진입 및 정착에 기여

❍ 의사결정 지원체계는 영농진입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탐색하고 자신의 영농계획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농이 보다 충실한 사전준비를 거쳐 영농에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2장의 분석 결과에서 살펴봤듯이, 정보탐색과 계획수립을 포함하여 사전준비를 폭넓게 수행한 청년농은 그렇지 않은 청년농에 비해 향후 영농지속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영농진입 이전에 충분한 정보탐색을 통해 지역과 품목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계획수립을 거치는 것이 이후 영농을 지속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줌.

❍ 이러한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상당수 청년농이 기존 영농기반을 그대로 승계하기보다 새로운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됨.

-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기준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받은 승계는 16.7%인 반면, 신규 창농은 36.0%, 부모의 영농기반이 있음에도 별도의 기반을 마련한 별도 창농은 47.3%로 나타남.
- 이는 상당수 청년농이 영농진입 과정에서 지역·품목 등 영농의 핵심 요소를 스스로 결정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조건에 적합한 대안을 탐색하고 영농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향후 데이터 활용환경의 변화는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더욱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 공공데이터와 행정자료의 개방·연계가 확대되고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존 통계·행정자료와 외부 정보서비스의 연계 및 축적된 데이터의 재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구축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의 수집·구축·관리 및 분석에 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이러한 데이터 활용환경의 변화는 향후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부 록

1. 예비농·청년농 영농 진입단계 의사결정 구조와 정보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1.1. 설문조사 목적

○ 예비농·청년농의 영농진입 의사결정 구조와 지역·품목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등을 파악하고, 두 집단의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영농진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 DB 구축 및 정보지원체계 설계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1.2. 설문조사 대상

○ 예비농 200명

- 예비농업인 역량강화사업 참여자,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3학년), 영농창업특성화대학교 재학생(3·4학년) 및 그 외 예비농을 대상으로 함.
- 축산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농은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 청년농 500명

- 영농진입 5년 이내 청년농을 대상으로 함.
- 축산업(복합농 포함)에 종사하는 청년농은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1.3. 설문조사 주요 내용

❍ 예비농

- 일반 및 영농진입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농업 관련 학교 졸업 여부, 승계 여부 등
- 지역·품목 선택 및 정보수요: 지역·품목 결정 여부 및 의사결정 순서, 지역·품목 선택 시 고려요인과 중요도, 정보 취득의 애로사항 등

❍ 청년농

- 일반 및 영농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농업 관련 학교 졸업 여부, 승계 여부, 영농경력, 정착지역 및 영농형태, 영농진입 당시 농지 및 자금 규모 등
- 영농진입 당시 영농목표 및 사전준비: 영농목표, 사전준비(정보탐색 및 계획수립, 자원 확보, 영농 역량 및 경험 축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착 준비) 내용 및 수준 등
- 지역·품목 선택 및 정보수요: 지역·품목 의사결정 순서, 진입 당시와 현재의 지역·품목 선택 고려요인 및 중요도, 관련 정보 접근성 등
- 영농성과: 영농소득, 영농만족도, 향후 영농지속 의향 등

1.4. 설문조사 기간

❍ 1차 설문조사 기간: 2026. 5. 8.~6. 21.
❍ 2차 설문조사 기간: 2026. 6. 22.~7. 3.

1.5. 설문조사 방법

❍ 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위탁하여 온라인 자기기입식 조사로 실시함.

1.6. 설문조사 대상자 기초 특성

❍ 예비농의 평균 연령은 24.1세, 청년농은 33.3세이며, 남성 비율은 각각 68.0%, 64.4%로 나타남.

❍ 성인 이전 농촌 거주 경험이 있는 비율은 예비농 58.5%, 청년농 58.2%로 유사하였으며, 승계농 비율은 예비농 33.0%, 청년농 26.8%로 나타남.

❍ 예비농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이 50.0%, 영농창업특성화대학 재학생이 27.5%로, 두 유형이 전체 예비농 조사대상의 77.5%를 차지함.

❍ 청년농의 영농경력은 1년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3년 19.6%, 2년 18.0%, 4년 17.6%, 5년 16.2% 순으로 나타남. 영농지역은 도농복합도시가 54.4%로 가장 많았고, 주된 품목은 시설채소 31.6%, 과수 2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부표 1〉 설문조사 대상자 기초 특성

단위: 세, %

구분		예비농		청년농	
		빈도수	평균/비율	빈도수	평균/비율
나이		200	24.1	500	33.3
성별	남성	136	68.0	322	64.4
	여성	64	32.0	178	35.6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3	56.5	120	24.0
	전문학사 졸업	27	13.5	81	16.2
	대학교 졸업	59	29.5	255	51.0
	대학원 이상	1	0.5	44	8.8
성인 이전 농촌 거주 경험 여부	경험 있음	117	58.5	291	58.2
	경험 없음	83	41.5	209	41.8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여부	졸업	44	22.0	29	5.8
	비졸업	156	78.0	471	94.2
농업계 대학교 졸업 여부	졸업	46	23.0	89	17.8
	비졸업	154	77.0	411	82.2
승계농 여부	승계농	66	33.0	134	26.8
	비승계농	134	67.0	366	73.2
예비농 유형	예비농업인 역량강화사업 참여자	32	16.0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100	50.0		
	영농창업특성화대학교 재학생	55	27.5		
	그 외 예비농	13	6.5		
영농경력	1년			143	28.6
	2년			90	18.0
	3년			98	19.6
	4년			88	17.6
	5년			81	16.2
영농지역 특성	도농복합도시			272	54.4
	군 단위 읍 소재지			66	13.2
	군 단위 읍 소재지 이외 지역			162	32.4
영농형태	논벼			47	9.4
	논벼 이외 식량작물			60	12.0
	시설 채소			158	31.6
	노지 채소			41	8.2
	과수			137	27.4
	특용작물			40	8.0
	화훼/묘목			17	3.4

주 1) 나이는 평균값이며, 그 외 변수는 각 범주의 비율임.
2) 예비농의 경우, '농업계 대학 졸업 여부'는 조사시점의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결과이며, 현재 재학 중인 응답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사대상의 최종적인 학력 구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자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사전준비 유형과 영농성과 간의 분석결과

〈부표 2〉 사전준비 유형과 영농성과 분석에 활용한 변수의 기초통계

단위: 세, %, 년

구분		빈도수	평균/비율
현재 연간 영농소득	1천만 원 미만	147	32.5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61	13.5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54	11.9
	3천만 원 이상~4천만 원 미만	47	10.4
	4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41	9.1
	5천만 원 이상~6천만 원 미만	34	7.5
	6천만 원 이상~7천만 원 미만	16	3.5
	7천만 원 이상~8천만 원 미만	9	2.0
	8천만 원 이상~9천만 원 미만	6	1.3
	9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11	2.4
	1억 원 이상	27	6.0
당초 기대 대비 영농소득 수준	당초 기대보다 50% 이상 낮음	168	37.1
	당초 기대보다 30~50% 정도 낮음	85	18.8
	당초 기대보다 10~30% 정도 낮음	68	15.0
	당초 기대의 ±10%로, 거의 유사함	98	21.6
	당초 기대보다 10~30% 정도 높음	11	2.4
	당초 기대보다 30~50% 정도 높음	9	2.0
	당초 기대보다 50% 이상 높음	14	3.1
현재 영농만족도	매우 불만족	23	5.1
	불만족	53	11.7
	보통	193	42.6
	만족	140	30.9
	매우 만족	44	9.7
향후 영농지속 의향	전혀 없다	9	2.0
	별로 없다	17	3.8
	보통이다	99	21.9
	어느 정도 있다	136	30.0
	매우 높다	192	42.4
사전준비 유형	유형1: 의사결정·실행준비 포괄형	101	22.3
	유형2: 의사결정 포함·실행준비 부분형	264	58.3
	유형3: 의사결정 미포함형	88	19.4

(계속)

구분		빈도수	평균/비율
나이	-	453	33.1
영농경력	-	453	2.6
성별	남성	289	63.8
	여성	164	36.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23.6
	전문학사 졸업	75	16.6
	대학교 졸업	234	51.7
	대학원 이상	37	8.2
영농진입 당시 가족 부양 여부	있음	103	22.7
	없음	350	77.3
성인 이전 농촌 거주 경험 여부	경험 있음	262	57.8
	경험 없음	191	42.2
승계농 여부	승계농	120	26.5
	비승계농	333	73.5
영농진입 계기	가업 승계 또는 가족의 농업 기반이 있어서	166	36.6
	농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및 비즈니스 가치를 발견해	155	34.2
	도시 생활의 피로감 또는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 때문에	56	12.4
	기존 취업, 직장 경로 외의 대안적 진로를 찾아서	41	9.1
	안전한 먹거리 생산, 환경 보전, 지역사회 기여 등 가치 실현을 위해서	35	7.7
위험 선호 성향	수익 가능성이 높더라도 위험이 크면 피하고 싶다	171	37.8
	수익 가능성이 높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은 감수할 수 있다	253	55.9
	높은 수익을 위해서라면 비교적 큰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	29	6.4
영농형태	논벼	40	8.8
	논벼 이외 식량작물	53	11.7
	시설 채소	143	31.6
	노지 채소	38	8.4
	과수	125	27.6
	특용작물	38	8.4
	화훼/묘목	16	3.5

주 1) 나이와 영농경력은 평균값이며, 그 외 변수는 각 범주의 비율임.
2) 기초통계는 사전준비 유형과 영농성과 간의 관계 분석에 활용된 청년농 453명을 대상으로 산출함.
3)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항목의 합이 10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3〉 사전준비 유형과 영농성과 간의 분석결과

구분		현재 연간 영농소득	당초 기대 대비 영농소득	현재 영농만족도	향후 영농지속 의향
사전준비 유형 (기준: 유형3)	유형1	0.895	0.928	1.241	1.746*
		(0.256)	(0.274)	(0.397)	(0.551)
	유형2	0.895	0.849	1.489	2.599***
		(0.234)	(0.223)	(0.423)	(0.740)
나이		0.975	0.954**	0.941***	0.999
		(0.019)	(0.019)	(0.017)	(0.020)
영농경력		1.449***	1.048	0.988	0.873**
		(0.093)	(0.069)	(0.065)	(0.060)
여성(기준: 남성)		0.590***	0.632**	0.496***	0.729*
		(0.119)	(0.124)	(0.096)	(0.138)
최종학력 (기준: 고졸 이하)	전문학사 졸업	0.590*	0.615*	0.869	0.831
		(0.171)	(0.167)	(0.294)	(0.273)
	대학교 졸업	0.510***	0.678*	1.050	0.803
		(0.124)	(0.160)	(0.280)	(0.202)
	대학원 이상	1.402	0.673	1.095	1.066
		(0.567)	(0.324)	(0.467)	(0.385)
영농진입 당시 가족 부양 여부 (기준: 부양가족 없음)		1.697*	1.416	1.785**	1.053
		(0.477)	(0.383)	(0.427)	(0.257)
성인 이전 농촌 거주 경험(기준: 경험 있음)		0.964	0.975	1.090	0.891
		(0.195)	(0.195)	(0.203)	(0.173)
승계농 여부(기준: 승계농)		0.498***	0.481***	0.625**	0.625*
		(0.108)	(0.111)	(0.150)	(0.161)
영농진입 계기 (기준: 영농진입 계기=1)	영농진입 계기=2	1.284	1.041	1.204	1.200
		(0.279)	(0.229)	(0.281)	(0.299)
	영농진입 계기=3	0.602	0.753	0.967	0.958
		(0.195)	(0.219)	(0.300)	(0.279)
	영농진입 계기=4	1.046	0.961	1.321	1.210
		(0.394)	(0.365)	(0.423)	(0.412)
	영농진입 계기=5	0.471**	0.453**	0.948	0.902
		(0.150)	(0.154)	(0.384)	(0.353)

(계속)

구분		현재 연간 영농소득	당초 기대 대비 영농소득	현재 영농만족도	향후 영농지속 의향
위험 선호 성향 (기준: 성향1)	성향2	1.124	0.806	1.025	1.272
		(0.212)	(0.154)	(0.199)	(0.253)
	성향3	2.061	1.364	0.866	1.683
		(1.125)	(0.563)	(0.365)	(0.711)
영농형태 (기준: 논벼)	논벼 이외 식량작물	0.767	0.922	0.584	0.762
		(0.280)	(0.376)	(0.240)	(0.348)
	시설 채소	2.486***	1.480	0.647	0.831
		(0.737)	(0.482)	(0.240)	(0.339)
	노지 채소	0.891	0.851	0.415**	0.722
		(0.357)	(0.392)	(0.183)	(0.347)
	과수	1.417	0.968	0.566	0.821
		(0.420)	(0.332)	(0.212)	(0.339)
	특용작물	1.197	1.226	0.401**	0.446*
		(0.468)	(0.508)	(0.174)	(0.210)
	화훼/묘목	2.012	1.265	0.841	0.658
		(1.173)	(0.719)	(0.469)	(0.378)
표본수		453	453	453	453

주 1) 사전준비 유형, 영농진입 계기, 위험 선호 성향의 범주별 더미 변수 코딩 순서는 〈부표 2〉에 제시된 순서와 동일함.
2) 분석결과는 오즈비(Odds Ratio)로 제시함.
3) 괄호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4) * $p<0.10$,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부표 4〉 사전준비 영역별 준비 여부와 영농성과 간의 분석결과

구분		현재 연간 영농소득	당초 기대 대비 영농소득	현재 영농만족도	향후 영농지속 의향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 여부=1		0.907	0.877	1.446	2.448***
		(0.236)	(0.232)	(0.432)	(0.707)
자원 확보 여부=1		1.243	0.999	0.939	0.974
		(0.264)	(0.212)	(0.191)	(0.208)
영농 역량 및 경험 축적 여부=1		0.793	0.885	1.083	1.143
		(0.165)	(0.198)	(0.256)	(0.245)
네트워크 구축 및 정착 준비 여부=1		0.920	1.144	0.857	0.587***
		(0.169)	(0.209)	(0.160)	(0.108)
나이		0.976	0.954**	0.941***	0.999
		(0.019)	(0.019)	(0.017)	(0.020)
영농경력		1.437***	1.048	0.990	0.869**
		(0.092)	(0.068)	(0.067)	(0.060)
여성(기준: 남성)		0.601**	0.622**	0.504***	0.762
		(0.121)	(0.123)	(0.097)	(0.145)
최종학력 (기준: 고졸 이하)	전문학사 졸업	0.590*	0.599*	0.884	0.875
		(0.172)	(0.166)	(0.302)	(0.292)
	대학교 졸업	0.496***	0.664*	1.070	0.829
		(0.119)	(0.159)	(0.288)	(0.209)
	대학원 이상	1.406	0.673	1.083	1.065
		(0.562)	(0.323)	(0.466)	(0.391)
영농진입 당시 가족 부양 여부 (기준: 부양가족 없음)		1.690*	1.405	1.784**	1.056
		(0.482)	(0.381)	(0.422)	(0.257)
성인 이전 농촌 거주 경험(기준: 경험 있음)		1.000	0.981	1.077	0.880
		(0.203)	(0.202)	(0.202)	(0.171)
승계농 여부(기준: 승계농)		0.502***	0.493***	0.619*	0.599*
		(0.110)	(0.115)	(0.153)	(0.158)
영농진입 계기 (기준: 영농진입 계기=1)	영농진입 계기=2	1.308	1.054	1.196	1.168
		(0.286)	(0.234)	(0.278)	(0.294)
	영농진입 계기=3	0.601	0.756	0.965	0.947
		(0.193)	(0.219)	(0.302)	(0.276)
	영농진입 계기=4	0.993	0.962	1.319	1.165
		(0.381)	(0.367)	(0.424)	(0.393)
	영농진입 계기=5	0.459**	0.451**	0.952	0.900
		(0.146)	(0.156)	(0.377)	(0.337)

(계속)

구분		현재 연간 영농소득	당초 기대 대비 영농소득	현재 영농만족도	향후 영농지속 의향
위험 선호 성향 (기준: 성향1)	성향2	1.097	0.802	1.024	1.265
		(0.209)	(0.154)	(0.197)	(0.249)
	성향3	2.080	1.329	0.877	1.759
		(1.098)	(0.550)	(0.375)	(0.743)
영농형태 (기준: 논벼)	논벼 이외 식량작물	0.791	0.921	0.591	0.788
		(0.287)	(0.374)	(0.245)	(0.355)
	시설 채소	2.504***	1.499	0.650	0.817
		(0.758)	(0.489)	(0.241)	(0.329)
	노지 채소	0.907	0.860	0.414**	0.700
		(0.354)	(0.392)	(0.185)	(0.334)
	과수	1.429	0.979	0.566	0.799
		(0.430)	(0.335)	(0.213)	(0.330)
	특용작물	1.171	1.208	0.410**	0.464
		(0.454)	(0.500)	(0.176)	(0.217)
	화훼/묘목	1.989	1.258	0.859	0.671
		(1.202)	(0.705)	(0.478)	(0.378)
표본수		453	453	453	453

주 1) 영농진입 계기, 위험 선호 성향의 범주별 더미변수 코딩 순서는 〈부표 2〉에 제시된 순서와 동일함.
2) 사전준비 영역별 준비 여부는 정보탐색 및 계획수립, 자원 확보, 영농 역량 및 경험 축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착 준비의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 사전준비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한 경우 1, 수행한 항목이 없는 경우 0으로 구분함. 4개 영역별 준비 여부를 각각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동일 모형에 함께 투입함.
3) 분석결과는 오즈비(Odds Ratio)로 제시함.
4) 괄호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5) * p〈0.10,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3. 영농목표-사전준비 정합성과 영농성과 간의 분석결과

〈부표 5〉 영농목표-사전준비 정합성 변수의 기초통계

단위: %, 점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 정합성(%)	453	70.2	28.7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질 정합성(점)	453	49.1	24.4

주 1) 영농목표-사전준비 정합성과 영농성과 분석에 활용된 다른 분석변수의 기초통계는 〈부표 3〉을 참조.
2) 기초통계는 영농목표-사전준비 정합성과 영농성과 간의 관계 분석에 활용된 청년농 453명을 대상으로 산출함.
3)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질 정합성은 0~3점으로 산출한 값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6〉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 정합성과 영농성과 간의 분석결과

구분		현재 연간 영농소득	당초 기대 대비영농소득	현재 영농만족도	향후 영농지속의향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 정합도		0.999	1.000	1.000	0.999
		(0.003)	(0.003)	(0.003)	(0.003)
나이		0.975	0.954**	0.944***	1.004
		(0.019)	(0.019)	(0.017)	(0.020)
영농경력		1.450***	1.052	0.977	0.860**
		(0.093)	(0.069)	(0.064)	(0.059)
여성(기준: 남성)		0.590***	0.631**	0.500***	0.745
		(0.119)	(0.124)	(0.096)	(0.141)
최종학력 (기준: 고졸 이하)	전문학사 졸업	0.591*	0.620*	0.854	0.796
		(0.171)	(0.168)	(0.289)	(0.258)
	대학교 졸업	0.508***	0.681	1.041	0.785
		(0.122)	(0.161)	(0.273)	(0.191)
	대학원 이상	1.399	0.669	1.084	0.979
		(0.565)	(0.320)	(0.465)	(0.357)
영농진입 당시 가족 부양 여부 (기준: 부양가족 없음)		1.694*	1.410	1.787**	1.097
		(0.476)	(0.381)	(0.424)	(0.270)
성인 이전 농촌 거주 경험(기준: 경험 있음)		0.967	0.977	1.070	0.876
		(0.195)	(0.196)	(0.197)	(0.169)
승계농 여부(기준: 승계농)		0.497***	0.474***	0.653*	0.696
		(0.107)	(0.110)	(0.158)	(0.175)

(계속)

구분		현재 연간 영농소득	당초 기대 대비영농소득	현재 영농만족도	향후 영농지속의향
영농진입 계기 (기준: 영농진입 계기=1)	영농진입 계기=2	1.280	1.027	1.257	1.320
		(0.278)	(0.227)	(0.287)	(0.319)
	영농진입 계기=3	0.606	0.753	0.963	0.988
		(0.197)	(0.219)	(0.301)	(0.291)
	영농진입 계기=4	1.041	0.968	1.312	1.165
		(0.391)	(0.368)	(0.422)	(0.389)
	영농진입 계기=5	0.469**	0.453**	0.946	0.920
		(0.149)	(0.153)	(0.379)	(0.360)
위험 선호 성향 (기준: 성향1)	성향2	1.115	0.809	1.025	1.258
		(0.212)	(0.156)	(0.198)	(0.247)
	성향3	2.102	1.423	0.786	1.337
		(1.134)	(0.569)	(0.324)	(0.567)
영농형태 (기준: 논벼)	논벼 이외 식량작물	0.772	0.917	0.585	0.777
		(0.281)	(0.373)	(0.238)	(0.341)
	시설 채소	2.487***	1.454	0.668	0.889
		(0.741)	(0.471)	(0.246)	(0.351)
	노지 채소	0.901	0.871	0.394**	0.621
		(0.356)	(0.397)	(0.174)	(0.293)
	과수	1.413	0.960	0.574	0.861
		(0.417)	(0.327)	(0.214)	(0.342)
	특용작물	1.203	1.223	0.401**	0.463*
		(0.470)	(0.505)	(0.173)	(0.212)
	화훼/묘목	1.996	1.231	0.860	0.674
		(1.167)	(0.690)	(0.492)	(0.410)
표본수		453	453	453	453

주 1) 영농진입 계기, 위험 선호 성향의 범주별 더미변수 코딩 순서는 〈부표 2〉에 제시된 순서와 동일함.
2) 분석결과는 오즈비(Odds Ratio)로 제시함.
3) 괄호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4) * p〈0.10,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부표 7〉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질 정합성과 영농성과 간의 분석결과

구분		현재 연간 영농소득	당초 기대 대비 영농소득	현재 영농만족도	향후 영농지속 의향
영농목표-사전준비 내용·질 정합도		1.007*	1.008*	1.008**	1.005
		(0.004)	(0.004)	(0.004)	(0.004)
나이		0.597**	0.644**	0.509***	0.755
		(0.120)	(0.128)	(0.098)	(0.143)
영농경력		0.974	0.953**	0.941***	1.002
		(0.019)	(0.018)	(0.016)	(0.019)
여성(기준: 남성)		1.472***	1.062	0.992	0.870**
		(0.096)	(0.070)	(0.064)	(0.060)
최종학력 (기준: 고졸 이하)	전문학사 졸업	0.595*	0.627*	0.884	0.811
		(0.173)	(0.172)	(0.297)	(0.264)
	대학교 졸업	0.517***	0.694	1.083	0.798
		(0.124)	(0.164)	(0.285)	(0.196)
	대학원 이상	1.395	0.659	1.074	0.974
		(0.571)	(0.318)	(0.467)	(0.355)
영농진입 당시 가족 부양 여부 (기준: 부양가족 없음)		1.634*	1.373	1.704**	1.064
		(0.460)	(0.375)	(0.409)	(0.262)
성인 이전 농촌 거주 경험(기준: 경험 있음)		0.982	0.988	1.084	0.879
		(0.199)	(0.201)	(0.201)	(0.170)
승계농 여부(기준: 승계농)		0.481***	0.458***	0.623*	0.673
		(0.105)	(0.108)	(0.151)	(0.171)
영농진입 계기 (기준: 영농진입 계기=1)	영농진입 계기=2	1.239	1.018	1.230	1.298
		(0.273)	(0.229)	(0.280)	(0.318)
	영농진입 계기=3	0.586	0.746	0.958	0.973
		(0.191)	(0.222)	(0.302)	(0.291)
	영농진입 계기=4	1.103	1.049	1.430	1.239
		(0.405)	(0.398)	(0.468)	(0.408)
	영농진입 계기=5	0.459**	0.451**	0.923	0.922
		(0.144)	(0.155)	(0.377)	(0.362)
위험 선호 성향 (기준: 성향1)	성향2	1.119	0.806	1.028	1.259
		(0.211)	(0.155)	(0.199)	(0.248)
	성향3	1.973	1.401	0.798	1.337
		(1.090)	(0.563)	(0.326)	(0.586)

(계속)

구분		현재 연간 영농소득	당초 기대 대비 영농소득	현재 영농만족도	향후 영농지속 의향
영농형태 (기준: 논벼)	논벼 이외 식량작물	0.772	0.923	0.591	0.791
		(0.288)	(0.385)	(0.241)	(0.351)
	시설 채소	2.458***	1.455	0.666	0.896
		(0.735)	(0.485)	(0.244)	(0.356)
	노지 채소	0.971	0.942	0.426*	0.670
		(0.386)	(0.438)	(0.186)	(0.317)
	과수	1.425	0.994	0.587	0.876
		(0.423)	(0.349)	(0.217)	(0.352)
	특용작물	1.160	1.237	0.395**	0.468
		(0.459)	(0.517)	(0.173)	(0.217)
	화훼/묘목	2.022	1.249	0.913	0.694
		(1.183)	(0.714)	(0.531)	(0.423)
표본수		453	453	453	453

주 1) 영농진입 계기, 위험 선호 성향의 범주별 더미변수 코딩 순서는 〈부표 2〉에 제시된 순서와 동일함.
2) 분석결과는 오즈비(Odds Ratio)로 제시함.
3) 괄호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4) * $p<0.10$,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강동우 외(202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2020),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

_____(2024), 농산물생산비조사 원자료.

국토교통부(2025~2026), 농지 실거래가 정보(2025. 6. 25.~2026. 6. 2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김경호·정성호(2018), “귀농·귀촌인의 농촌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사회학, 19(1): 5-26, 지역사회학회.

김국종·조용윤(2022), “작물 시설재배 초기 의사결정 지원 인터페이스 설계”,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8(2): 71-78, 한국사물인터넷학회.

김남중·권세용(2025), “소상공인의 창업 준비활동 중요성 인식이 사업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창업과정 어려움 인식의 매개효과”, 산업진흥연구, 10(3): 17-25, 산업진흥원.

김양기(2024), “자영업자의 창업준비과정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혁신연구, 40(2): 254-265,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김유하 외(2023),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의향을 구성하는 다차원적 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31(2): 31-63, 한국지역사회학회.

김진진·이소영(2022),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현장농수산연구지, 24(2): 29-38,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개발센터.

농림축산식품부(2026), “2026년 예비농업인 역량강화(멘토링·교육) 사업 지원자 모집”, 공고 제2026-65호, 농림축산식품부.

_____(각 연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2018~2025).

농촌진흥청(각 연도), 농산물소득조사 원자료(2022~2024년)(제공 자료).

마상진 외(2018),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종합보고서, 국립농업과학원.

마상진·김남훈(2019), “청년 창업농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경제, 42(1): 27-4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선·엄진영·조재우(2024), 농업교육 투자의 성과 분석: 농업 관련 대학 졸업생의 영농지속성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균기·조원지·이병훈(2021), 청년창업농 영농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석다솜·이상래·김윤호(2022),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논

문지, 23(5): 515-521, 한국산학기술학회.
안다섬·장동헌·문수희(2022),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가 영농만족과 이농의향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28(2): 1-9, 한국농촌계획학회.
이소영·이민수·김진진(202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특성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9(2): 99-110, 한국농촌지도학회.
이원석 외(2021), “귀농·귀촌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AHP 분석 연구: 이주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10(3),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지안·안영식(2018),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역량 측정도구 개발”, 벤처창업연구, 13(4): 197-209, 한국벤처창업학회.
이향미·김종하(2024), “청년농업인 유형화 및 결정요인 분석: 전남 무안군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토지주택연구, 15(2): 107-124, 토지주택연구원.
장형진·마강래(2026),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여건이 귀농·귀촌 의향에 미치는 영향: 1·2차 베이비부머의 세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61(1): 161-17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정신 외(2020), 2030세대 청년농업인의 지역사회 정착 방안 연구, 국립농업과학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귀어·귀촌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및 방법”,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603888호.
허태웅·김삼철·김태영(2025), “청년농업인 정착 요인 분석과 활성화 방안 도출”, 농업생명과학연구, 59(4): 129-141,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온라인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 검색일: 2026. 6. 24.
그린대로(https://www.greendaero.go.kr/), 검색일: 2026. 8. 7.
농사로(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b/psbl/workScheduleLst.ps?menuId=PS00087&code=210004), 검색일: 2026. 8. 7.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검색일: 2026. 8. 7.
농업e지 농식품사업안내(https://www.nongupez.go.kr/nsm/login/ssoCert?tx=20260903180911873_5000000126_0df49715-ed3a-43c1-828f-dccb7ae908c4&acrValues=3#/), 검색일: 2026. 8. 7.
농업ON 홈페이지(https://www.agrion.kr/portal/fsa/bdp/selectFamDecMakSuptList.do), 검색일: 2026. 8. 7.
농지은행(https://www.fbo.or.kr/index.do), 검색일: 2026. 8. 5.
농축산물생산비 조사통계설명자료(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

tatsdcdta?statsConfmNo=101043&kosisYn=Y), 검색일: 2026. 6. 22.
충청남도데이터포털 올담(https://alldam.chungnam.go.kr/index.chungnam?menuCd=DOM_000000207010000000), 검색일: 2026. 7. 20.
탄탄대로(https://youngfarmer.greendaero.go.kr/), 검색일: 2026. 8. 7.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s://www.fbo.or.kr/fmtd/flri/FlriList.do?menuId=060070), 검색일: 2026. 8. 5.
흙토람(https://soil.rda.go.kr/soil/index.do), 검색일: 2026. 7. 14.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 6. 2.),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줄인다".
농축투데이(2026. 8. 5.), "농촌 최소 생활기준 싹 바뀐다…농식품부, 농어촌서비스기준 전면 개정".
서울 Pn(2025. 10. 2.),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빨간불'… 이탈률 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한국농어민신문(2025. 9. 19.), "단순 자금지원, 숫자 늘리기보다 질적 정예화·내실화에 중점".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AI 자료〉
OpenAI(2026), ChatGPT(5.0, 2026. 7. 31.~8. 7.), 대형언어모델(LLM), https://chatgpt.com 본문 내 자료 작성 및 재구성을 위해 활용하였으며, 연구진의 검토를 거쳐 본 보고서에 수록함.

KREI

www.krei.re.kr

청년농 영농 진입단계
의사결정 지원체계 설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1833-5500 F.061) 820-2211

95520

ISBN 979-11-6149-855-3 (PDF)